

잉태

분단조국 44년/두번째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잉태」편집위원회

G.G.LADY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 지지 레이디—

지지레이디—
오늘을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신선한 에너지가 있다.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녀—
지지레이디.

■ 젊은 여성의 피부생리에 맞춘 —지지레이디

외부활동이 많고 외출이 잦은 숙녀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지지레이디는
피부손실을 보다 심플하고 스피디하게
도와드립니다.

■ 피부보호 및 피부자극완화: 보습성분의
히알루론산과 단백질성분의 엘라스틴, 비타민B
유도체 등으로 피부의 탄력과 보습기능을
높여줍니다.

■ 햇빛으로부터 피부보호: 광방어성분의
우로카닌산과 비타민E 유도체 성분이 피부의
광방어 기능을 높여주고 피부노화의 원인을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숙녀전용화장품

아 모 레

지.지.레이디

(원장소비자가격)

- 지지레이디 스킨케어 세트.....130ml - 6,200원
- 지지레이디 모이스처라이저.....130ml - 6,200원
- 지지레이디 클리닝폼.....100g - 6,200원
- 지지레이디 클리닝도우.....1g x 3 - 5,800원
- 지지레이디 브러쉬.....3g x 2 - 5,800원
- 지지레이디 립스틱.....3g - 4,500원
- 지지레이디 네일폴리쉬.....10ml - 5,800원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이 책을 사랑하는 연세 오천 여학우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차례

권두시		10
역은이의 말	• 정숙명	12
퍼낸이의 말	• 이은희	14
격려의 말씀	• 손경희	16

짜임글 I 일하는 여성

여성해방운동론	• 서영주	22
여성노동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 박석분	31
농민여성	• 허훈순	43
도시 빈민 여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 박민주	52
사무직 여성노동자운동의 현실과 전망	• 박주미	66

교수님 레포트	• 김찬국 부총장 • 조혜정 교수	127
---------	-----------------------	-----

탐 방 기

나우정밀 노조를 다녀와서	• 편집부	164
탁아소 <사랑터>를 다녀와서	• 편집부	169

만나 본 사람	• 편집부	88
---------	-------	----

기 획

연세 남학우의 의식조사	• 편집부	80
--------------	-------	----

잉 태

분단조국 44년/두번째

공동연구 공동발표

136	사회주의에서의 여성은 해방되었는가	• 사회학과 성과 사회
150	강간에 대한 일연구	• 손애리 외

잉태논단

176	한국에 있어 장애인 소외와 극복방향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188	다시 반봉건 문제에 대하여	• 전성식

만화

123	태극기가 바람에 콜록입니다
156	어머니

짜임글 II 분단조국 44년 한반도

96	한반도의 객관정세	• 최성웅
109	88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	• 차영일

잉태 문예 모음

202	시 / 박 선 영	• 명로진
204	한가윗날 고향서는	• 김정순
205	수필/“여성상위시대 유감” 유감	• 강진숙

출산후기

208

종로서적의 80년 전통은 이나라 독서문화의 자랑입니다.

문학·예술

- ① 미술 ② 음악 ③ 체육 ④ 시
⑤ 외국장편소설 ⑥ 국내장편소설
⑦ 수필 ⑧ 단편소설 ⑨ 전집
⑩ 지세·취미

자연과학/리프린트/컴퓨터

- ① 농업 ② 가정 ③ 의·약학 ④ 한의학
⑤ 순수과학 ⑥ 보목건축 ⑦ 금속기계
⑧ 전기전자 ⑨ 컴퓨터 ⑩ 복사판 교재
● 퍼스칼 렌즈

인문과학/외국어

- ① 문학이론 ② 대학출판물 ③ 외국어
④ 카세트 ⑤ 불교 ⑥ 역사 ⑦ 철학
⑧ 사회학 ⑨ 교육심리

종로서적 독서개발 서비스

1. 작가와의 대화/배달 4배주
토요일 오후 4시
2. 우편판매/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우편을
통하여 주문, 구입할 수 있는
제도
3. 독서정보지 발간/발간 [신간
소식] 제간 [종로서적]
[종합 도서목록]
4. 도서 안내/책에 대한 문의를
받는 안내 창구
(☎733-3061~2)

- 대한성서공회 지방반포소
-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재
- 지정공급처
- 국·검인정 교과서
- 지정 판매처

예매권 동편 출입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매장 안내

영업 사무실

- 방송통신대학교 ● 교과서

미국·유럽·일본 원서 (Foreign Books & Journals)

- ① 외국서적 ② 학술잡지

사회과학/사전

- ① 수필서 ② 정치·군사 ③ 법률 ④ 경제
⑤ 무역 ⑥ 경영관리 ⑦ 회계학 ⑧ 세법
⑨ 사전

중·고 교재/문구

- ① 문구 ② 오디오 ③ 레코드 ④ 문고
⑤ 중학교 교재 ⑥ 고교교재 ⑦ 사전

기독교/어린이/여성

- ① 신앙교양 ② 성경 ③ 신학 ④ 율리
⑤ 성서 ⑥ 교회학교 ⑦ 가톨릭
⑧ 사전·주석 ⑨ 여성교양 ⑩ 어린이

잡지

종로서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84의9 ● 대표전화 732-2331

영업시간 ● 평일/오전9시—오후9시 ● 일요일·공휴일/오전11시—오후8시 ● 정기휴일/매월 세째일요일

겨울을 녹이는 뜨거운 함성



권두시

가자 딸들아

우리들의 밥과 시가 민중을 불러내는
극한까지 일하고 사수하자
우리들의 한탄이 적을 쫓는
화살로 날 때까지 이야기를 하자
꽃겨와 여기 잠을 내릴 수 없는
회한의 밤이라도 다시 용트림을 하자
돌아설 수 없는 갈림길에도
종을 치자 노래를 부르자

가자 딸들아
흙먼지 쓰고
물이랑을 차며
그네 놀던 그 발길로
당그레 잡던 그 손길로
남 맞으려
어이 가자
거짓선전을 이기고
정의의 뱃전에 서서
민족해방 여성해방의
긴 썸나팔을 불자

쪽정이는 물아내고
젖먹이는 열싸안고
무덤의 날개로
피어린 하늘을 날자

금강초롱 그 얼굴에
돼지뽕전 그 노래에
우리가 살아
죽더라도 살아
자주와 민주의 행진을 하자

가자 딸들아 어이 가자
달려온다 하늬바람 잔물결이
살아난다 아가들 해웃음이
소리친다 복악산 구름장이
보인다 오뉴월 촌색시들이

가자 딸들아
밥주걱을 들고
자유를 단련하는
비인 광장으로

반평생 병어리로
소박데기 팔푼이로
맥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울부짖자
이제는 일어서자
이제는 달려가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저하라
학살의 잔치를 뒤엎고
황산벌에 다시 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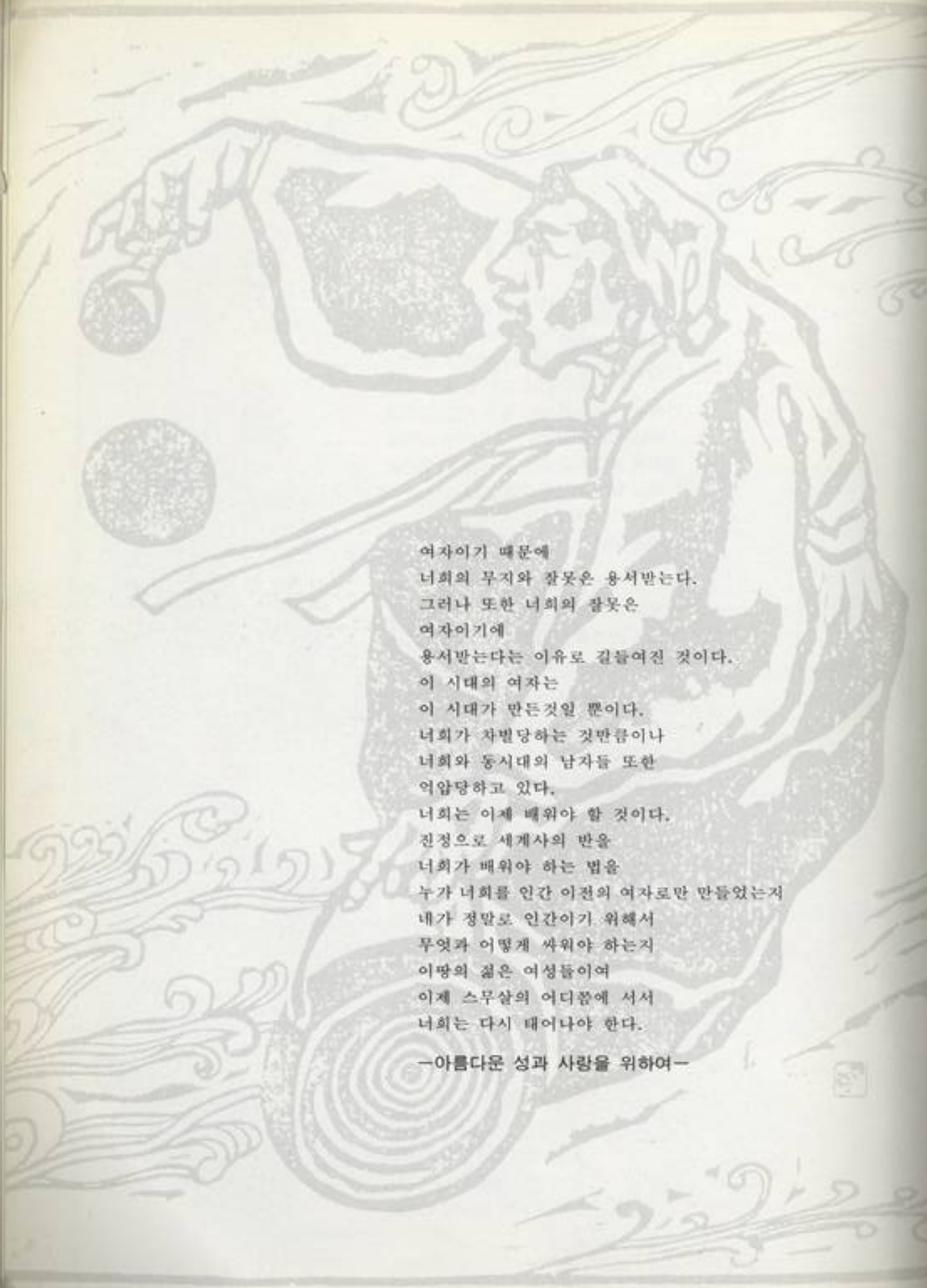
우리 앞엔 패배와 저주가 없다
우리 앞엔 눈물과 자학이 없다
다만 증오와 나아감이 있을 뿐이다
다만 땅방울이 있는 뿐이다
남북을 잇는 기도의 밤이 있을 뿐이다

적의 형색 음모의 첩조망을 거둬내고
해일로 망치로
주먹으로 지성으로
답답한 전선을 뚫자

우리 최루탄 대신 꽃상여다
우리 군화 대신 맨발이다
우리 총 대신 해방총이다
우리 몽둥이 대신 맨주먹이다

잉태

분단조국 44년/두번째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무지와 잘못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또한 너희의 잘못은
여자이기엔
용서받는다는 이유로 곁들여진 것이다.
이 시대의 여자는
이 시대가 만든것일 뿐이다.
너희가 차별당하는 것만큼이나
너희와 동시대의 남자들 또한
억압당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배워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세계사의 반을
너희가 배워야 하는 법을
누가 너희를 인간 이전의 여자로만 만들었는지
내가 정말로 인간이기 위해서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땅의 젊은 여성들이여
이제 스무살의 어디쯤에 서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잉태」편집위원회

역은이의 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자만이 슬럼프에 빠진다는 말이 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그 안에 안주한다.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며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더욱 전진한다.

지금 우리가 부딪힌 이 벽은
오래전, 호남별판을 해방의 함성으로 뒤흔든 녹두장군부터,
일제하 수없이 죽어간 무명의 독립투사들,
유신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한 젊은이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불꽃으로 타오른 태일 선배
힘이 있는 아름다움의 경숙언니,
종철이형, 인숙언니, 한열이.....
그리고 이름없는 수많은 선배·동료들이
최선을 다해왔기에 부딪힌 벽이다.

하여 우린 절망하고 아팠지만
절망하고 아파하기에 극복할 수 있다.
모두의 힘으로 이 벽을 깨부수고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이 넘치는 그곳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편집부장 정 숙 명

이 벽을 깨뜨리기 위한 열원을 모아 이 작은 책에 담았다.
경험없는 사람들이 오직 의욕 하나만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계획했던 글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한 좋은 글이 나온 것도 있다.
부족한 이 책이 오천 여학우의 답답함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오천 여학우의 가슴에 강한 문제제기로 남아,
더 수준 높은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책의 발간을 염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여학생처장님과 혜정이언니, 총여학생회 집행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최선을 다해준
편집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이신 연세 오천 여학우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피난이의 말

피어나라 연세의 딸 그대 삼천리 강산
해방의 진달래로!



제 1대 총학생회장 이 은 회

I

인류의 시작

혼돈을 가르고 태초에 천지가 열릴 때
인간의 세상은 순결한 남과 여의 합일, 순수한 자연
진정한 생명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반, 반.
피로 얼룩진 계급사회의 시작은 여성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의 배신으로 여자는 애남는 고통속에서 죽으리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그렇게 조작되었다.
임태의 축복을 고통의 소산으로
생명의 탄생을 죄의 씨앗으로
인류의 역사를 반쪽의 역사로 만들어 나갔다.

II

그러나
역사의 발전은
인간평등의 역사발전은 말하고 있다.
인, 간, 선, 언.
우리는 일만하는 노예가 아니라 인간이다.
우리는 사고파는 노리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우리는 애만남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여자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계급사회의 지배자에게
분노의 깃발 꽃으려 달려가고 있다.

III

더욱 더
힘찬 여성의 전진
붓물터지듯 밀려오는 커다란 구보소리를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굴종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
우리의 뼈와 살 속에 시퍼런 인두로 새겨진 상처를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는 간다.
하나가 아니라 열이되어 나간다.
열이 아니라 백으로 천으로 전진, 또 전진한다.
하늘의 절반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IV

임, 태.
깃발한 만큼 순결하고
차별당한 만큼 평등하고
억압당한 만큼 자유로운 너, 생명이어!
역사의 구비구비 반쪽인간의 굴레를 쓴 늪지대에서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언니들의
한과 오욕과 치욕의 사슬을 끊고
고동치는 신새벽으로
힘차게 외쳐라.
그리고
북만주 말달리던 고구려 여인의 서릿발 같은 기상을 살려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에 품고
억압당하는 모든 인간의 해방을 향해
황무지에 씨를 뿌려 새날을 확신하는 개척자의 피와 땀으로
어둠을 가르며 한줄기빛 선구자의 기쁨으로
해방의 과정에서 이름없이 산화한 순교자의 사랑으로
결연하게 자신을 살라라.
역사의 맥박, 겨레의 심장으로 태어날 임태여!

격려의 말씀

총여학생회의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를 촉구하는 디딤돌로서 발간되었던 『임태』 창간호에 이어, 이제 그 2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진심으로 경하할 일이다.

발족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염려 그리고 큰 기대와 지지속에서 출범했던 총여학생회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다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창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기에 더욱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에도,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소외가 많은 부분이 현존하고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부당한 대우에도 여성이라는 사실에 안주하여 사회에 종속적이고 남성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 수 있다. 여대생으로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올바른 의식이나 실천적 방향성을 찾는 데, 많은 여학생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정당한 위상을 설정해가는 한 노력으로서, 사회구조적 성모순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방안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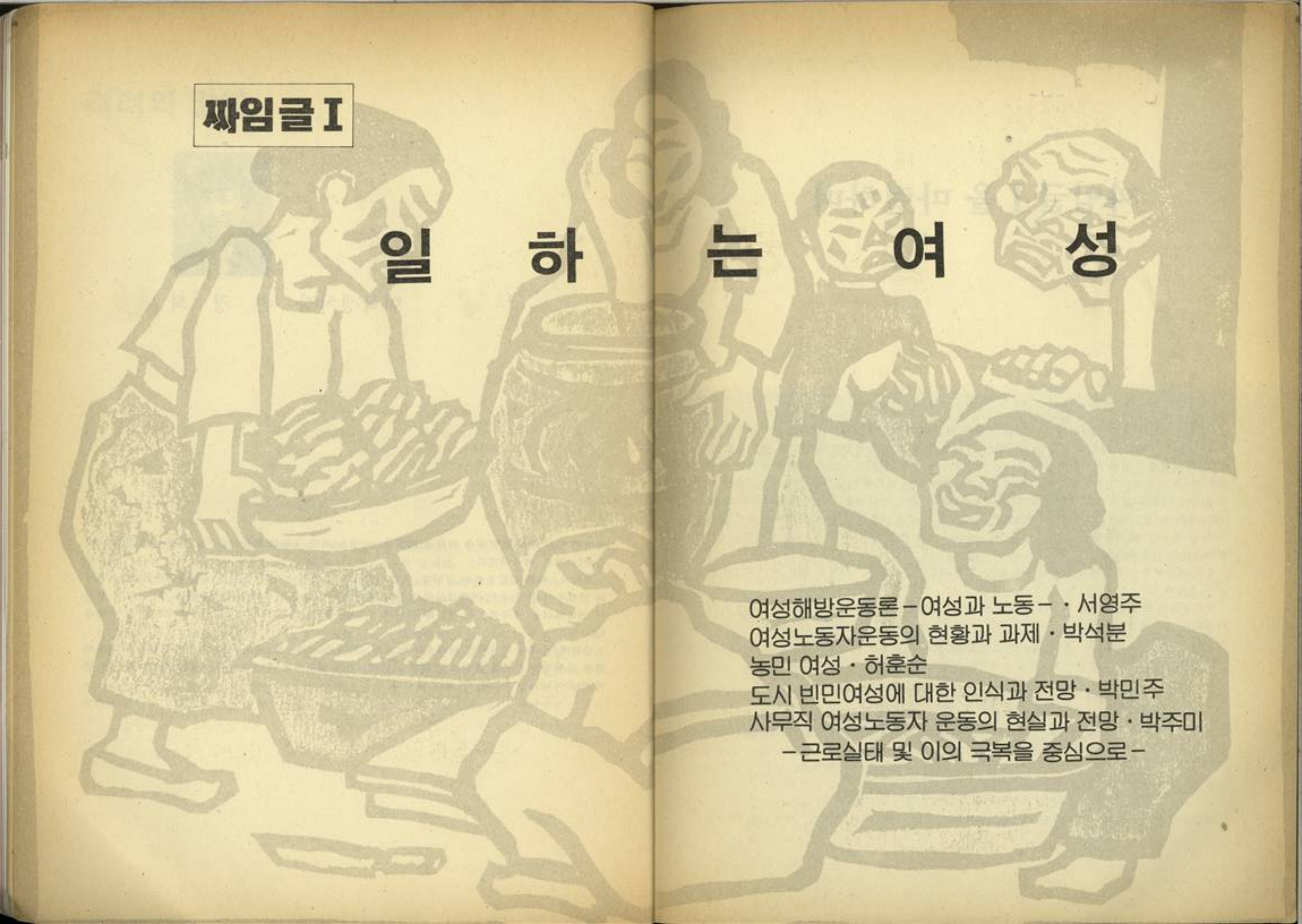


여학생처장 손 경 희

올바른 여성 문화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을 위한 글들의 모음지인 『임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태』가 총여학생회 임원이나 일부 관심있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고 명실공히 연세 오천 여학생들의 참된 언론매체로서 민주적 의사수렴의 장이 되기를, 여성 자신의 권리의식을 적극적으로 찾는데 실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발간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의지와 노력으로 이를 극복한 편집위원들과 총여학생회 임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며, 더욱 전진하는 총여학생회, 연세 오천 여학우와 함께 가꾸어나가는 『임태』가 되길 바란다.



짜임글 I

일 하 는 여 성

여성해방운동론 - 여성과 노동 - · 서영주
여성노동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 박석분
농민 여성 · 허훈순
도시 빈민여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 박민주
사무직 여성노동자 운동의 현실과 전망 · 박주미
- 근로실태 및 이의 극복을 중심으로 -

짜임글 I 을 마련하며

이 책의 주인은 오천 연세여학우(장차 중산층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이다. 그러나 우리 여대생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부딪힐 성차별의 거대한 벽은 결코 우리들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여성해방이 일부 지식인여성의 고독한 외침으로 끝날때, 돌아오는 것은 외침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혹여, 그 고독한 외침으로 지식인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따냈다하더라도 거기에는 자칫 스스로 새로운 압제자로 변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같이 싸워야 할 자리에서 빠져나와 더 거대한 벽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운동은 지배자의 논리에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성모순은 모든 계층의 모든 여성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짜임글 I 을 마련했다.

오천 여학우가 앞으로의 취업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는 「사무직 여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여학우들의 부당한 성차별 해소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1) 여성과 노동

인간의 본질은 '노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바른 여성해방운동이란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 주체는 노동하는 여성-노동자여성이고 이와 함께 농민, 도시빈민, 지식인여성(사무직 여성도 포함)이 연대하여 함께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2) 노동자여성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로서, 성적 억압의 대상인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 노동자여성의 투쟁사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실었다.

여성노동자의 해방은 대남 투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분할 지배로써 초과착취를 얻고 있는 자본가와 체제의 억압에 대해 투쟁할때 얻어지는 것이다.

(3) 도시빈민여성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지향적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농촌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와 광범한 산업예비군으로서 저임금구조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는 도시빈민여성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미혼시절 노동자로서의 경험이나 노동자부인으로 존재하므로 노동자여성의 하층으로 보기도 한다.)

(4) 농민여성

60년대이후 공업화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해온 농민, 그중에서도 농촌의 봉건적 유습의 온존으로 더욱 수탈을 당하고있는 여성농민의 삶과 과제, 조직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5) 사무직여성

80년대들어 사무직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그내에 조직화되기 시작한 사무관련직 여성노동자운동은 전체 여성운동 발전의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이 책의 주인인 오천 여학우들의 앞으로의 삶과도 밀접히 연관된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사무직여성의 실태와 과제, 앞으로의 조직적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여성해방운동론

— 여성과 노동 —

서 영 주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

— 차 례 —

- I. 여성 해방 운동의 출발점
- II. 여성 해방 운동의 이념
- III. 여성 해방 운동의 주체
- IV. 여성 해방 운동의 현단계
- V. 여성 해방 운동의 과제

‘남녀평등’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과 이들 실현하고자 하는 최초의 움직임이 태동되기 시작한 동학농민전쟁으로부터 벌써 100여년이 지났다. 즉 이 땅에서 여성해방의 이념과 여성운동이 시작된 지 1세기를 경과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타의 사회운동과 비교해볼 때 여성해방운동은 아직 그 이념과 조직면에서, 그리고 실천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부족, 이를 끊임없이 방해해 온 서구 여성해방론의 영향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한반도 민족해방운동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여성운동은 별개의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었고, 그 결과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과 물이해를 낳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문제를 여성이라는 성적(性的) 존재에서 찾으려는 모습, 여성운동을 남성과의 대응관계에서의 평등으로 설정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깊이 추적해 들어가보면 위의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위 성과 계급을 분리해놓고 그 우위를 가리는 논쟁은 이러하다 여겨진다.

이제 여성해방운동은 그 출발점을 분명히 하며 과학성을 획득할 때이다. 그리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서 자기 위상을 정리할 때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여성을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보편성 속에서 바라보며, 노동의 변화과정 속에서 여성문제를 추적하려함— 그 전개 위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이념과 주체를 밝혀보려 한다. 그리고 여성해방운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따라서 당면의 주요 과제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
여성해방운동은
그 출발점을 분명히 하며
과학성을
획득할 때이다.

I. 여성해방운동의 출발점

여성은 여성이라는 성적 범주로 구분되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갖는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동물도 행동하고 인간도 행동하는데, 굳이 인간의 행동을 노동이라 구분하는 것은 왜인가? 동물의 행동이 본능적, 무의식적인 데 반해 인간의 행동은 목적의식적이기 때문이다. “꿀벌도 집을 짓고 건축가도 집을 짓지만, 그것이 구별되는 것은, 건축가는 집을 짓기 이전에 머리 속에서 그 집을 미리 그려보는 데 있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 말은 인간행동의 목적의식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특징짓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은 생산력의 발전—그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의 발전—과 함께 그 단위와 성격을 바꾸어왔다.

인간 노동의 최초의 단위는 공동체였다. 생산력이 극히 낮은 최초의 시기에 인간은 공동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자체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새로운 생명의 출현도 노동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산으로 여겨졌다. 또한 도구—매우 저급한 수준이긴 하지만—를 사용한 노동과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의식주에 관계되는 노동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 분업에 의한 여성의 노동과 남

성의 노동은 공동체 내에서 똑같이 소중한 노동이었다. 즉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의 질을 규정하는 사용가치와 양을 구분하는 교환가치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평등의 조건이었다. 즉 이 때는 지배자에 의한 피지배자,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이 존재하지 않았다.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단위의 축소를 가져왔다. 공동체에 의한 노동이 가족에 의한 노동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력 발전에 직접 기여한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과의 구별이 생겨났다. 이제는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노동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1차적으로 재생산노동을 담당하고 있던 여성에 대한 억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생산노동의 단위임과 동시에 재생산노동의 단위였다.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확연한 분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수공업, 상업의 분업이 나타나고 노동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존재했지만, 아직 노동의 질과 양은 상대적으로 공통분모였다.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노동단위는 개인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공장과 가정이라는 생산의 영역과 재생산의 영역이라는 확연한 구분이 생겨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품화됨에 따라 교환가치만이 가치로서 인정받는, 따라서 재생산노동은 무가치한 노동으로 전락되었다. 이로써 여성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생산노동은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억압은 심화되었다.

이에 의해 여성은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유적 본질을 거세당하고 단지 성적 존재로 취급되었다. 여성의 본질이 왜곡된 것이다.

여성이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본질을

여성이
노동하는 인간임을
확인하는데서
여성해방운동은
그 출발선을 긋는 것이다.

상실한 것은 노동하는 인간이 갖는 진보성과 자주성을 거세당한 것이다. 즉 여성은 이미 인간이 아니라 성적 범주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여성해방운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여성의 노동이 가치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데서 출발한다. 즉 여성이 역시 노동하는 인간임을 확인하는 데서, 성적 존재임을 거부하고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회복하는 데서, 그리하여 여성의 자주성을 획득해나가는 데서 여성해방운동은 그 출발선을 긋는 것이다.

여성해방운동이 이렇게 출발점을 분명히 할 때, 여성의 억압을 성적 존재로서의 무언가에서 찾으려 하는 모든 오류들을 극복해 내면서 과학성을 획득할 수 있다. 여성을 노동의 주체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노동의 가치에 대한 왜곡됨을 바로잡고, 여성이 역사와 사회의 주인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변화 발전의 주체로서 여성을 바라볼 수 있다.

여성은 여러 측면에서 가해지는 억압과 고통을 벗어나 완벽한 인격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자주화예의 요구를 가지고 있다.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의 해방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존재인 것이다.

II. 여성해방운동의 이념

사적 소유의 출현과 함께 생겨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은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고 있고, 여성의 억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특징은 자본과 노동의 분리,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의 분리이다. 따라서 여성은 노동자로, 그것도 재생산노동(이는 바꾸어 가사 노동이라 할 수 있다)을 담당하는 자로 1차적 규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교환)가치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여성은 기생인간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이 기생인간인 데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을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내용과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1차적으로 가사노동자=재생산노동자로 규정받는다. 그리고 이 노동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무보수노동이다. 여성이 재생산영역인 가정에서 담당하는 무보수 가사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조건이 되고 있다.

인간이 생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생산노동이 필연적이다. 이는 노동자도 자본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노동이 무보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본가는 재생산비, 즉 임금을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이 노동자의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하여 자본의 이윤 증식을 극대화시켜주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자본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을 생산노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노동의 기계화와 단순노동화, 남성의 저임금에 의해 가능하다. 노동자 가족은 절대적 저임금 때문에 온 가족이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여성은 1차적으로 가사노동자라는 사회적 규정에 의해 남성 임금의 절반 정도의 임금에 고용된다. 또한 여성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언제든지 고용될 태세를 갖추고 있음으로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과 차별적 저임금은
노동력의 평가절하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자본의 가치증식에 기여한다.

해서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하게 된다. 여성은 거대한 실업자군으로 형성돼 고용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은 자본의 축적과 확대, 축소에 따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졌다. 다시 내몰리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성이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함으로써 고용노동자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악조건도 참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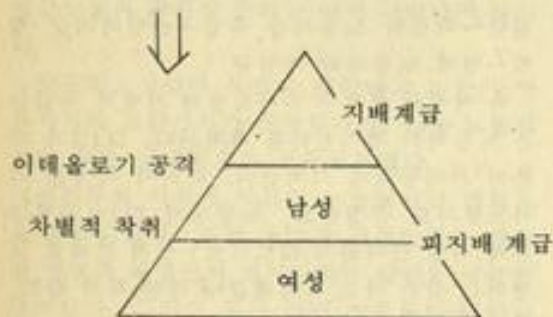
이것을 간단히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남성 노동자의 저임금→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산업예비군 형성→전체 노동자의 저임금.

즉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과 차별적 저임금은 노동력의 평가절하를 가져온다. 그 결과 자본의 가치증식에 기여한다. 따라서 여성을 가사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하지 않는(가치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성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에 의한 착취 강화, 유지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지배계급은 이 전제조건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 공격을 편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만들어내고 이를 본성화시킨다. 이는 온갖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주입되며, 심지어 교육을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유아교육부터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고 주장되며, 여성은 가사를 배우게 하고 남성은 공업이나 상업을 선택하게 한다. 여성은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가사노동자라는 것이 세뇌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세뇌, 본성화와 함께 남녀에 대한 차별화정책을 통해 남과 여는 상호 억압받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치 못하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위치지워진다. 일단 여성은 무보수 가사노동자이므로 경제적 무능력자로 된다. 따라서 남성-어려서는 아버지, 자라는 남편에게 기생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여성 억압을 가시화한다. 남성보다 적은 임금, 더 적은 승진기회, 상대적으로 더 부당한 인격 무시 등이 여성에게 가해진다.

따라서 여성 차별은 바로 이러한 남성과 비교한 차별로 드러나고, 남성에게는 상대적 위안감을 가져다준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적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남성들이 지배계급의 착취의 본질을 바로보지 못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에 종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에서 간단히 도식화시켜본 것처럼 지배계급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 착취함으로써 계급지배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억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여분을 갖고 있는 남성이 아니라 지배계급과의 대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남성과의 모순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에 의해 화해 가능한 것이다. 여성의 억압을

먼저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극복하고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성과의 동맹으로 지배계급과 대치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해 여성이 자주적 인간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이 사회적 의의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 대폭 참여하여야 한다.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무보수 가사노동은 그 댓가를 여성이 받는 형태로서는 해결 가능하지 않다. 또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는 전제조건인데 가능하겠는가? 또 직접적으로 (교환)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성에 의해 임금의 형태로 해결할 수도 없다. 가사노동=재생산노동의 사회적 의의의 획득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가치 구별이 해소되고, 여성의 노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아울러 여성 억압을 정당화시키는 제반 이데올로기와 무쟁을 전개해야 한다. 여성에게서 노동하는 인간의 보편성을 제거하고 단지 성적 존재로 위치지우려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해 그리고 여성을 기생인간으로 취급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무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3자의 무쟁이 통일되어 전개될 때 여

성해방운동은 자기 내용성을 채워나감, 여성 대중을 해방의 주체로 세워나갈 수 있다.

III. 여성해방운동의 주체

앞서 여성의 본질을 노동하는 인간으로 규정 지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성해방운동이 출발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여성해방의 주체는 바로 노동하는 여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노동자를 기본으로 하여 농민, 청년 등 다양한 계급, 계층이 존재한다. 여성 역시 이러한 계급, 계층에 속해 있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청년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여성은 다계급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4천만 남한 인구 중 직접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1천만, 그 가족까지 합친 노동자계급의 수는 2천 5백만이다. 그 중의 반이 여성노동자다.

물론 여성노동자는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위치로, 그리고 부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위치로 존재한다. 여성노동자의 존재의 위치 변화를 간단히 도식화시켜보면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자로서
하는 운동과
노동자부인(=가족)의 위치에서
하는 운동의 내용이
모두 여성노동자운동이다.

여성은 노동자나 농민의 딸에서 여성노동자로 다시 노동자 부인이나 기혼여성노동자로 변화한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범주를 들락날락하여 불안정한 취업, 실업자 사이를 메우고 있다. 즉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시빈민의 계층을 따로 보지 아니하고 노동자계급 속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존재 조건이 여성노동자운동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자로서 하는 운동과 노동자 부인(=가족)의 위치에서 하는 운동의 내용이 모두 여성노동자운동이다.

여성농민들 역시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농촌경제의 파탄은 노동력 있는 젊은층의 이동을 가져와, 농사일이 모두 여성농민과 고령층에 전가되고 있다. 또한 농촌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봉건적 이데올로기는 여성농민의 가사노동은 물론 생산노동을 공동 부담하고 있으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처럼 숨소리도 제대로 못내며 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농촌경제의 파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반대, 농산물에 대한 제값받기, 농가부채 탕감 등이 해결해야 할 당면의 과제다. 이와 함께 봉건적 유습의 척결, 가사노동의 공동화를 통해 여성농민들의 자주화를 꾀해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농민운동이다.

남한에서 중요한 사회세력의 하나는 청년학생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며 진취적인 청년

학생들은 사회구조의 모순을 바로 자신들의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제도교육에 의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여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보고 있다. 그 결과가 총여학생회로의 현재화이며, 여학생 대표자협의회를 조직하여 전국적 통일을 꾀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여직원회 등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문제 등을 자각해나가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학생들은 운동의 사회운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여성해방운동은 여성문제라는 공동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계급과 계층에 속해 있다는 존재의 특성에 의해, 그 내에 위와 같은 운동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위 3영역의 여성운동과 기타 여성운동들이 동맹하여 여성해방운동을 이뤄내는 것이다.

각 부문의 여성들은 각자의 계급·계층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노동자운동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내용이며 노동운동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여성농민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이 중에서도 여성노동자는 여성해방운동의 주도세력이다. 이는 남한 사회가 자본주의가 거의 전일화된 사회라는 데서 그 1차적 근거를 들 수 있다. 이에 의해 여성노동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계급이 여성노동자계급이다. 또 여성노동자는 노동자가 본성적으로 갖는 진보성과 전투성, 집단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노동자는 노동운동의 주체일 뿐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의 주도세력인 것이다.

여성해방운동은 이처럼 여성노동자를 주도세력으로 하여 여성농민, 여성청년학생들이 동맹하여, 전개해 나가는 운동이다.

IV. 여성해방운동의 현단계

여성해방운동은
이처럼
여성노동자를 주도세력으로 하여
여성농민, 여성청년학생이 동맹하여
전개해가는 운동이다.

여성해방운동은 이제 유아기의 모습을 던지고 도약단계에 들어갔다 할 수 있을만큼 많은 발전적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해방운동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해보겠다.

첫째로, 여성해방이념의 정리를 들 수 있다. 물론 여성해방이념이 명확한 과학성을 획득하고 있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 계급의 범주를 분리시켜놓고 어느 한쪽의 우위를 강조하거나, 결합시켜보려는—결국은 어느 한쪽의 우위 강조로 결과된다—오류에 대한 지적들이 광범위하다. 이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진출, 대중운동의 고양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로, 각 계급·계층운동 내에 여성부문이 구축되고 있는 점이다. 노동운동내에서 여성노동자운동이, 농민운동 내에서 여성농민운동이, 청년학생운동 내에서는 여성청년학생운동이 분화, 발전하여, 그 모습을 현실화시켜내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나 가톨릭여성농민회의 출현이 대표적이며, 여학생대표자협의회 결성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자기 대중과의 결합을 높여나가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동시에 여성해방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각 계급·계층에서의 다양한 여성대중의 요구를 실천함으로써 여성해방운동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있다.

셋째, 여성해방운동의 주체가 형성되고 있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민중들이 조직화되어 나가고 있다. 이는 과거의 개인적이고 산발적이며 일시적이던 움직임들이 집단적·지속적 활동으로 정착된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결성되고 있는 노동조합과 그 내의 여성부는 여성노동자운동의 폭과 질을 넓혀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선진적 지식인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여성해방운동이 여성민중에 의한, 대중에 의한 운동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생존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민중들의 투쟁은 곧바로 여성들의 자주화 요구투쟁이며, 그 내에 해방에의 불씨를 담고 있다.

네째, 서울 중심의 운동이 전국적, 지역의 운동으로 뿌리내려가고 있다.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여성운동단체들이 87년 4월 마산의 '경남여성문화연구회'를 필두로 하여 전국에 건설되고 있다. '제주여성회' 부산 '근로여성의 집', '광주·전남여성회', '전북민주여성회', '거창여성회', '충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수원여성회', 인천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성남민주여성회' 등 충청지방을 제외한 모든 도에 여성운동단체가 생겼다.

물론 여성운동단체의 설립이 곧바로 여성해방운동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여성민중의 생존권 및 기타의 요구와 적극 결합해 들어가고 또 요구들을 조직함으로써 여성해방운동 발전의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여성운동세력의 정치적 요구를 통일적으로 관찰시켜내는 구심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립을 들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여성해방운동의 연합전선으로써, 여성해방운동의 한단계 도약을 이루어내고 있다.

관계화된 여성운동의 보루였던 여성단체협의회에 대응하여 총 24개의 진보적 여성운동단

과거 선진적 지식인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여성해방운동이
여성민중에 의한, 대중에 의한 운동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체를 포괄하고 있는 여연은 그 출발부터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할 수 있다. 여연은 민주화운동의 고양과 함께 군부독재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성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원, 참여하고 있다.

V. 여성해방운동의 과제

여성해방운동은 이제 여성민중들에 의한 운동으로 그 모습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또한 여성 억압에 대한 확고한 인식, 여성으로부터 '노동'을 제거해내려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나가고 있다.

여성해방운동이 진정 대중에 의한 운동으로,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가 시급히 요구된다.

우선 올바른 이념으로의 통일이 필요하다. 여성을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유적 보편성 속에서 파악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성해방운동은 출발한다. 하나 아직 여성문제의 입지점을 바로보지 못하고 성적 범주로서만 파악하려는 모습들이 많다. 따라서 여성해방운동은 모든 이러한 모습들과 투쟁해 나가면서 명확한 과학적인 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해방을 비방, 왜곡시키며 저지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투쟁하며 그 속에서 여성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여성해방의 정당성과 투쟁으로 지켜내야 한다. 여성의 억압

I. 여성노동자 운동이란?

여성 노동자 운동이란, 여성 노동자가 여성으로서 겪는 제반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억압을 타파하는 운동이다.

여성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임금에서 뿐만 아니라 고용과 승진, 승급 등 사회적 노동 과정에서 각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노동은 결혼 전, 혹은 임신 전까지라는 사회적 통념이 팽배하여 있다. 게다가 여성에게는 가사 노동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를 당하는 사회적 노동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가정내에서 가내노예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서의 후진성은 이 가사 노동의 굴레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

노동 운동에서 여성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거부가 대중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87년 노동자 대파업 과정에서였다. 여성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자각과 의식을 가지고 투쟁해온 것은, 물론 일제하로부터 지금까지 한국 노동 운동사 전체를 통하여 면면히 계승되어오고 있었지만, 87년에 이르러서는, 여성으로서의 요구를 정당하게 전면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87년 울산 태광산업, 국제상사, 한일합섬에서의 남녀차별 임금, 차별 상여금, 차별 휴식 시간등의 철폐 요구! 현대중공업에서의 여사원 장기근속수당지급 요구! 88년 인천 경동산업과 부천 삼영정밀, 성남 OPC전자, 안양 코롬방직에서의 남녀 임금, 호봉승급, 경력차별 철폐 요구! 한국 3M사에서의 승진승급제 요구와 결혼피직 강요 중지 요구! 대한교육보험에서의 승진, 정년, 근무수당등 남녀차별 철폐 요구! 고대 구로병원 임시직 부인노동자들의 고용차별 철폐 요구등! 특히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 열기와 노동자 부인 및 가

족들의 투쟁은 노동자 계급 대중 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고 그 투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적 통념으로 뿌리박힌 여성성(女性性)-소극성, 폐쇄성등을 과감히 탈피하여 노동자 계급의 투쟁전선으로 나섰을뿐만 아니라, 자본가들과 지배자들에 의한 남녀 분할지배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얼마나 오랜 동안 노동자들이 억눌려 살아왔는가! 기아적 저임금에 살인적 장시간 노동, 온갖 산업재해와 위험 속에 오직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겨우 유지하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당하지 않았는가!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온전한 인간, 노동하는 인간으로 대우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본가들에 의해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구조는 더욱 탄탄해진 것이 아니던가!

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 속에서, 그 엄청난 계급적 진출 속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자주적인 요구와 투쟁의 깃발을 내걸었다. 이제 우리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에 의하여 보다 풍부해질 것이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은 여성운동의 분명한 계급운동으로의 통일을 이루어낼 것이며, 전체 변혁의 대열을 강화, 발전시킬 것이다.

II. 한국 자본주의와 여성노동자의 현실

한국 사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신식민지 사회로의 편입과정이었다. 기생성과 매관성을 가지고 태어난 한국 자본주의

여성노동자운동이란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 겪는 제반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억압을 타파하는 운동이다.

1. 생산적 미혼 여성노동자

정부 통계에 따르면 86년 전체 취업자 1550만명 중 여성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85년에 비해 5.5%가 증가, 남성증가추세를 알지르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약 40%가 여성노동자로서 85년 통계에 의하면 제조업 노동자의 약 42%가 여성노동자이다.

미혼 여성노동자는 여성노동자 운동에 있어 핵심 세력이다. 70년대 광범한 이농을 통해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에 고용되었던 이들 여성노동자는, 70년대 말부터 점차 고용 비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수출 위주의 섬유산업등이 전체 한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학력신장에 의해 사무직으로 이동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생산적 미혼 여성노동자는 계급적 존재조건상 양적으로는 물론이요 그 전 무성에 있어서 핵심층이 된다.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에서 보여지는 선배 여성노동자들의 강인한 투쟁력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미혼 여성노동자들은 그 여성 의식에 있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 와 관습 등 제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허위의식 때문이다. 결혼하면 이 지긋지긋한 노동을 그만둘 수 있다는 환상,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 생활을 해야한다는 관습적 태도, 운동도 좋지 않지만 미혼 때 잠시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결혼관은 미

는 그 발전과정에서 예측성을 심화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적 지배질서의 변화에 따라 정치, 군사, 문화, 이데올로기적 종속 역시 심화되었다.

국내 독점 자본뿐 아니라 외세 독점 자본까지를 배불려야 했으므로 이 땅의 노동력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초과착취당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한 각종 노동통제 장치들을 우리는 그 동안 신물이 나도록 보아왔다. 각종 법, 제도, 사상등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인간적 저항조차 금압하고 탄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70년대로부터 경공업, 수출위주의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 등에 광범히 고용되었다. 이들 산업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단순한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저임노동력을 확보하였는데 여기에 여성노동력은 차별적 저임금으로 착취하기에 마침 알맞았던 것이다. 따라서 신식민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초과착취에다가 여성에 대한 차별착취로 말미암아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들 중 가장 낮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상대적 과잉인구화에 따른 고용불안정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즉, 여성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세력과 국내독점자본, 그리고 반민중적 국가 권력에 의해 착취되고 억압당하는 가장 침해한 노동자계급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성격상 아직도 잔존하여있는 봉건적 잔재, 유습과 제도들은 여성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저들게 하고 있다. 공장에서 기업주나 관리자가 여성노동자들에게 구타, 모욕, 욕설등을 할뿐더러 성폭행, 성희롱등을 일삼는 것이 보통이다. 이 봉건적 유제들은 남녀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남녀 노동자를 계속 분열, 이간질시키게 된다.

이상의 개괄적 이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그 존재형태별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자.

흔 여성노동자들을 참으로 건강한 노동자로, 노동 운동의 지도력으로 세워 내는 것을 지독하게 방해하고 있다.

2. 생산직 기혼 여성노동자

기혼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 중 30%에 육박한다. 그 증가추세는 놀랍게 전진하고 있다. 이는 첫째, 자본이 기혼여성 노동력을 미혼보다 더 낮은 저임금과 순종성 때문에 선호하는 것과, 둘째, 노동자 가족 전체의 궁핍화로 인한 기혼 여성의 취업요구 증가, 셋째, 노동 과정의 기계화에 따른 남성노동력의 대체, 넷째, 여성의 직업의식 변화등에서 요인을 구할 수 있겠다.

이들 기혼 여성노동자는 대개 70년대 이혼하여 산업역군으로서 조국 근대화에 몸바친 여성 노동자들로서 결혼 후 퇴직-임신, 출산 및 육아등 가사일에 매여있다가 생활고로 재취업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경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혼처럼 허위의식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생계를 책임진 다름가 가족의 안위를 우선하게 되는 존재적 요구 때문에 투쟁력이나 전투성 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고 개인적 이해 관계에 집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 부친의 피코노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히려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선도적이고 끈질긴 투쟁력이, 미혼과 다를 바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른 기혼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방안등 참신한 조사, 연구 작업등이 요청된다.

3. 사무직 여성노동자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실상 전체 여성노동력의 증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한국 자본주의의 신식민지적 착취 구조의 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완결적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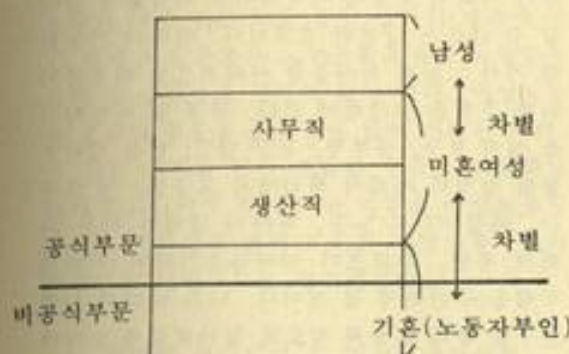
생산 경제 구조가 취약한 한국 자본주의는 과도한 유통 및 서비스 분야의 확대라는 파행적 산업 구조 현상을 결과하게 되고, 특히 하급 사무직(경리, 출납등) 및 하급 기술직(간호보조원외, 사진사, 단순 기능공)과 생산직간의 임금 격차가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인 바, 그 계급적 동일성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운동의 범주 속에 이들 사무직 여성을 포괄해야함이 과제로 대두된다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남녀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계급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정리하게 하여 노동자 운동과 여성운동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4. 노동자 부인

노동자 부인들은 기혼 여성노동자로 이동하기도 하고 가내하청이나 부업등을 통해 비공식 부문에 침전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존재이다.

비공식 부문에 있어서 우리는 그 동안 이 경우의 여성을 빈민 여성으로 일컬어 왔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어야 할것은, 빈민의 계급 구성을 노동자계급의 하층으로 보아, 빈민 여성 역시 이들 노동자계급의 부인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부인들은 불안정한 하급 직종이나 열악한 고용 조건속에서 일용공, 임시공으로 일하기도 하고 행상, 노점, 취로사업, 베틀짜기, 차다기, 때밀이 쓰레기 치우기등과 파출부, 도배공, 가정부, 청소부, 화장품을 파는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 불완전 고용 상태에 의해 일반 공장 취업 여성노동자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으며 교육, 주택, 교통 문제등 주거 및 가족관계상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전적이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노동자 가족으로 존재하곤 하기 때문에 노동자인 남편, 자식의 이해에 금방 동일화하여 노동자가족 운동으로 진출한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투쟁 과제와 조직 운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면, 결국 여성노동자의 한국 사회 속에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운동의 범주는 이들 기혼·미혼 여성노동자와 사무직(하급) 여성노동자, 그리고 노동자 부인이 된다.

III. 여성노동자운동의 투쟁과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여성노동자 운동이란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서의 억압을 타파하려는 운동이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형태는 경제, 정치, 이념 투쟁이라는 계급 투쟁의 세 형태와 일치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적 경제적 권익 투쟁, 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등 국가 권력을 상대로, 전 노동여성의 법적·제도적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 그리고 여성을 열등한 성으로 규정하고 그를 통해 착취와 지배 질서를 공고화하려는 정치 권력 자체에 대한 폭력과 투쟁, 각종 성 차별적 사상의 투쟁등이 그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형태는 경제, 정치, 이념투쟁이라는 계급투쟁의 제형태와 일치한다.

특히 우리는 이념 투쟁에 있어 성 차별과 계급 차별을 분리하려는 경향, 여성 해방과 계급 해방을 달리 사고하는 경향에 대하여 비판하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여야만 한다. 자본가 계급은 열등한 성으로서 차별화된 여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고 있다. 여성성의 강조를 통한 각종 노동 통제, 차별 임금과 그것을 기초로 한 저임금의 온존 강화, 투쟁 전선의 약화와 분리! 즉 여성 차별은 계급 지배의 도구이며 토대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급 해방과 인간 해방을 말할 때 거기에는 여성의 해방이 포함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착취를 타파하고 여성을 해방하는 노력은 곧 계급 해방에 의지와 실천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운동 또한 노동 운동에 포함되며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요구와 여성으로서의 요구를 통일적으로 제기하고 쟁취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노동할 권리의 회복과 사회적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로 요약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그 투쟁 과제를 살펴보자.

1.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투쟁

여성에게는 노동할 권리조차 박탈되어 있다. 취업제한, 고용시의 차별, 결혼·임신 퇴직, 직업훈련 기회의 차별등이 타파되어야 한다. 여성은 역사 이래 남성과 함께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살아왔다. 사회적 노동에의 평등한 참

여를 통하여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적인 개별 노동의 형태로 여성에게 지워진 가사 노동의 사회화는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2. 사회적 노동에 있어서 평등을 위한 투쟁

각종 임금, 수당, 승진, 승급, 인격적 대우 등 사회적 노동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 실현은 노동 운동의 과제로서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40% 정도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는, 최저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함께 중요한 권리이다. 차별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온존하고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차별 임금철폐는 곧 저임금의 타파를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이 된다.

3. 여성으로서의 제반 보호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

생리 휴가 쟁취,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쟁취 등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및 모성보호센터 무료검진등의 제반 권리의 획득은 노동할 권리와 평등한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투쟁 과제와 불가분의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어리고 약하며 노쇠한 인간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임여와 이윤만을 바라는 자본가 계급에게는 병들고 약한 인간은 전혀 쓸모 없을 것이나, 평등과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바라 보지, 이윤 낚는 기계로 바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의 모성은 곧 인류의 번영과 제반 역사의 계승을 위한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힘이 된다. 해방된 사회는 남녀 노소,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차별받지 않고 보호되는 사회이며 진정한 자유, 평등, 우애에 기초한 인간다운 사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4.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투쟁

가사 노동이라든가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가능한 가사 노동과 육아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공장 및 지역탁아소 설치 요구, 공부방, 공동 밥집, 공동 세탁소 등의 설치와 사회적 책임에의 요구 등. 이 요구는 '여성=가사 노동, 육아의 담당자'라는 사회적 통념,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 지닌 투쟁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 연구를 통해 효율적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5. 차별을 정당화하는 제반 교육, 문화등의 근절과 성폭행의 타파를 위한 투쟁.

아동교육으로부터 모든 제도 교육에 스며든, 성 차별적 교육 내용과 방식이 근절되어야 한다. 여성을 반쪽 인간, 성적 도구로서 인식하게 하는 퇴폐적인 성문화와 장치들도 제거되어야 한다. '내 여자니 내 맘대로 한다'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인식이 교정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계급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희롱과 폭행은 사회, 제도적으로 규탄·정벌되어야 하며 또한 외국인의 한국 여성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민족의 문제로 인식하여 투쟁해야 한다.

이외에 민주적 남녀 관계의 정립을 위한 과제, 여성 스스로의 자주적 실천을 위한 노력 등 이들 투쟁 과제들은 여성노동자 운동에 있어 교육 및 선전 선동의 범주가 되며 여성노동자가 누리고 쟁취해야 할 목표이다.

IV. 여성노동자운동의 현황

87년 대파업 이후 광범히 분출된 노동 조합 운동과 이에 따른 노동 운동 세력의 재편에 따라 현재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조직과 노동운동 단체 및 공간들로 세력화 되어 있다. 여성노동자 운동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세력, 즉 실천 주체인 단위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87년 이후의 여성노동자 운동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해본다.

1. 면면히 계승되어 온 여성노동자운동

일제하, 그리고 6, 70년대로부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70년대, 한국 자본주의는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얻어내어 순식간에 기가 막힐 정도로 높은 이익을 거두어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기아 임금이라는 말은 70년대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성장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노동자들의 삶은 노예적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노동으로 역사를 일궈낸 혁명적 존재이고, 그 본질-노동으로 스스로를 해방시킨-은 면면히 흘러, 70년대 이 땅 한국의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일으켜 세웠다. 70년대 생산의 주역은 여성노동자들이었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는 물론이요 인간적으로도 모멸과 멸시, 천대 속에 울분을 삼켜온 이들의 분노, 투쟁과 조직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고 견고한 것이었다. 동일·원통, Y·H, 콘트롤테이타 등의 투쟁이 보여주는 것은 강고한 조직력이다. "죽기까지 싸우자"로 이들은 어깨를 건 팔들을 놓지 않았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이들

일제하,
그리고
60, 70년대로부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은 피를 나눈듯 하나가 되어 싸웠음을 70년대 노동 운동사가, 그리고 지금까지 선봉에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투쟁을 여성으로서의 자각이라든가, 자본이 이들을 왜 그리고 집요하게 수탈하고 탄압하였는가에 대한 과학적 인식 이전의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다. 80년 광주 항쟁 이후 암흑과도 같은 어둠의 세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성, 비판, 자각이 일어났으며 노동 운동이 갖는 변혁 지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특히 70년대의 노동자 투쟁을 그 주역이 여성노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다 주체로 세워내지 못했음이 지적되었다.

85년 구로 지역 동맹 파업은 그간의 자연발생적이고 경제적 권익 중심의 노동자 투쟁을 극복, 변혁적인 노동 운동으로의 도약점이 되었으며 여전히 차별적 수탈의 대상이던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면서 이들에게는 역사의 변혁 주체로서의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노동자 운동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와 함께 발전하고 성숙하였으며 87년 투쟁 속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70년대로부터 (아니 그 이전 일제하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투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이제 스스로의 요구를 내걸기 시작한 것이다.

2. 노동조합운동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

노동 조합 운동 속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은 단위 사업장과 지역별 민주 노조협의회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단위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 중심 사업장과 여성 사업장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할 것이다.

7. 남성 중심 사업장의 경우.

남성 중심 사업장은 노조 간부가 대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이 조합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조직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구성이 4,50대 기혼으로부터 야간 학생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활동의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기혼의 경우 가사 노동등의 부담으로 조합 일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여성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조직적 배려를 하고, 남성 간부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든지 함으로써 여성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사례)

① 부천 경일화학

100명의 노동자 중 26명이 여성노동자이고 기혼이 21명이나 된다. 여기에서는 여성부를 통하여 여성 조합원 전부를 조직하고 조합 결성 때부터 소그룹들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다. 여성 문제에 관련한 슬라이드를 통해 교육이나 강연등을 실시, 여성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② 한국 린나이

여성부를 중심으로 타 노조와 공동으로 여성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위원장과 여성 조합원 간의 간담회를 개최, 차별 임금에 대한 여성 조합원들의 요구를 임금 인상안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녀 노동자 모두가 임금 인상 투

쟁에 적극적이고 희생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③ (주)통일

이 곳에서는 여성부원과 위원장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여성들의 애로 사항을 조합 활동에 반영시키고 여성 조합원의 조합 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ㄴ. 여성사업장의 경우

간부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미혼이 중심이 되는 사업장에서 기혼과의 갈등과 마찰이 노조 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소수 남성 노동자들이 봉건적 남녀 관계에 의한 사고 및 회사측의 회유 등으로 구사대화, 노조 탄압과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노조 간부 및 전체 조합원에 대한 여성 의식의 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적 연대들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사대 문제에 있어서도 자본가들의 남녀 분리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과감히 노동자로서의 단결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간 주입받아온 허위 의식과 결혼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여 노동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무엇보다도 평생 노동자로서의 인식을 도모해야 한다. 지긋지긋한 노동이 아닌, 즐겁고 명랑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제반 근로 조건들을 확보해 나가는 투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① 코스모스 전자.

인천 코스모스 전자는 구사대로 만들어진 남성노동자들을 조합의 자위대로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들도 당당히 규찰동에 나섬으로써 남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② 부평 II 공장

임금 인상이 호봉 조정에서 남녀 차별을 둔 회사측의 작태와, "여자는 필요없으니, 다 나

현재 노조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

(사례)

*병원노조 협의회 여성부

전체 노동자의 2/3가 여성노동자인 병원 노조 협의회는 경우, 여성부 활동의 강화를 통한 노조 및 협의회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약 10여개 노조의 여성부장, 차장등이 정례 회의를 구성하여 정보 교류, 공동 설문 조사, 공동 투쟁 조직(생리 휴가 문제), 간부 수련회, 공동 요구안 작성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3. 노동운동 단체 및 공간에서의 여성노동자 운동

노동 운동 단체의 경우 일반 노동 운동 단체와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로 나누어 살펴 보고, 공간의 경우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소, 탁아소등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ㄱ.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

현재 독자적인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는 유일하게 '한국 여성노동자회'뿐이다. 향후 각 지역에서 여성노동자 운동단체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는 전문적인 여성 문제 교육과 선전 활동에서부터 노조 지원 및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노조에서의 여성노동자 운동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여성 부장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 노조에서의 여성 문제 해결의

가도 좋다"는 사장의 말에 분노하여 여성노동자들끼리 독자적 대책 회의를 구성, 그간의 차별을 공개 토론하는 등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전개, 노조의 투쟁력을 보다 고양하였다.

③ 세진전자

87년 단체 협약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평생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다. 남녀 공히 근속수당, 가족수당, 경조휴가와 경조금, 퇴직금 누진제등이 적용되었으며 결혼, 임신 퇴직금 철폐와 생리 휴가 자유 사용, 산전 산후 휴가 2개월 유급, 육아 휴직과 휴직 기간 근속 연수 포함등이 확보된 바 있다.

ㄴ. 노조협의회를 통한 활동

우리가 노조에서의 제반 투쟁과 활동을 사고할 때 기업별 노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조 운동은 산업별 조직, 전국적 조직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개별 노조 및 단위 사업장의 투쟁력을 가지고는 자본의 독점화, 계열화,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결합을 통한 노동 통제등에 절대 대항할 수가 없다. 여성노동자 운동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의 확보라든가 모성 보호 권리의 확보, 또는 가사 및 육아의 사회화등은 산업별, 나아가 전국적 차원의 노조 연합 운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결성되었거나 결성되고 있는 각 지역 민주 노조협의회라든가 노조 연합체를 통하여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제기되고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다. 이를테면 지역 민주 노조 협의회 산하에 여성부를 두고 각 단위 노조 여성부 간담회라든가 공동 교육, 조사, 연구, 지도력 훈련, 투쟁 지원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몇 개 지역에서 여성부 간담회등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를 민노협 여성부로 끌어 올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 및 여성 단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성과 방식을 교육, 연구, 조사하는 일,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교재 및 매체 개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선전 활동등.

이상의 활동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형성되는데, 하나는 노조 지원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의 대중 조직적 전망하의 조직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는 노동 운동 내에 다양한 대중 조직을 건설한다는 대중 운동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노동자 대중 조직으로의 발전과 그 전국적 결집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나 일반 노동운동 단체

그 동안 노동 운동 내부에서는 여성노동자 운동의 필요성과 독자적 조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거나 모색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자적 조직은 노동운동 대열을 분리시킨다는 사고와 여성 문제는 노동 문제 일 반과는 다르거나 부차적인 문제라는 분리적 사고가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87년 대과업과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자각은 이러한 분리적 사고를 일축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제는 필요성과 그 대중적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많이 극복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편향의 본질-계급 해방과 여성 해방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서 오는 갖가지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 문제는 여성노동자 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든지, 여성노동자들의 지도력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조직적 배려를 동한시 한다든지, 심지어 지도적인 활동가 사이에 보여지는 여성과의 비인도적 관계등, 그 편향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노동 운동 단체의 경우에도 여성 문제 및 여성 운동의 이념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함으로써 여성노동자운동의 제반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육과 조직, 투쟁 과제에 있어서 여성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조직적 배려와 결의를

해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전문적 활동은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등과 협력하면 좋을 것이다.

드 여성노동자 공간

전문 기구나 공간은 여성노동자 운동을 보다 풍부하게,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임무를 갖는다. 전문 기구나 공간은 각종 훈련과 교육, 연구, 조사 활동과 대중 접촉면을 확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나눔의 집'이라든가 '해님방'(인천), 구로 지역의 '새터 어린이방' 등의 탁아소들, 청계 '평화 공동체' 등 각 지역에서 속속 여성노동자를 위한 공간 건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 공간에서는 탁아소 사업과 상담 활동, 공동 세탁기 운영, 밥집, 공부방등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 외에 여성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 공간은 보다 전문적인 역량의 확보, 대중의 정서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문화 기획과 실무력의 확충, 그리고 지역 여성노동자 운동 단체와의 관계 정립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여성 운동 단체에서의 여성노동자 지원 활동(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 위원회를 중심으로)도 소개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대략 그 동안 전개되었던 투쟁 지원의 내용과 방식만을 소개해본다.

87년 제일피복, 무극사 불매 운동으로부터 88년 대한광학, 야쿠르트, 논노동에서의 노조 투쟁 지원 활동과 여성 민우회가 중심이 된 구사대 폭력추방운동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등이 전개되었다.

항의공문, 항의방문, 항의전화로부터 모금 지원, 선전, 홍보 활동, 집회 조직, 관계기관에 대한 청원과 항의, 불매운동등 낮은 차원으로부터의 다양한 투쟁방식을 구사, 노동계급 여성을 중심으로 타계급, 계층 여성들의 지원과 연대가 상당 부분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4. 부인, 가족운동으로서의 여성노동자운동

노동자들의 부인과 가족들은 87년 투쟁에서부터, 가족투쟁위원회등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을 함께 요구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가족수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인 임금이 턱없이 열악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임금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가족수당에의 요구가 가족으로부터 공공연히 제기되는 것은 노동자의 가족과 부인의 요구가 노동자에게 일 반의 요구와 동일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자본가 계급의 착취 구조와 본질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부인은 스스로도 노동자화의 경로를 겪음으로써 노동자의 제반 요구와 이해에 일치되고, 자본의 여성에 대한 착취구조 및 방식을 깨닫는다.

운수, 탄광 및 경원세기, 맥스테크, 한독금속, 동아건설 창동공장, 야쿠르트, 아주파이프 등에서 보여준 가족 투쟁 및 부인 투쟁은 다양한 전술로서 대중 운동의 풍부함을 더해 주었고 그 결사적 투쟁 의지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더욱 고양하였다. 그동안 가족들을 동원하여 투쟁을 와해시키곤 했던 자본가들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다. 이제 천만 노동자가 아니라 이천 오백만 노동자가 모두 노동 운동의 전선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투쟁 기간 동안의 임시 조직이었던 가족들의 투쟁 조직은 투쟁 이후 일상적 부인 조직, 부인회등으로 전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거주 지역의 다양함, 가사노동등에 의한 제약, 가족 관계상의 문제등-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 '아주 파이프 부인회'와 같이 동일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 일상적인 지역 활동으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즉, 부인 조직은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자본가의 노동자 차별 정책과
분할지배에
따른 것이다.

투쟁시의 노조 지원 활동과 일상시의 노조 지원 사업이나 지역 주민 활동등으로 분화,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부모들의 상태나 조건을 고려한 운영방식, 요구를 깊이 파악한 이후의 사업계획등 세밀히 고려해야 하고 상당히 장기간 끈기있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여성 운동으로서의 중심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부인들의 자주성, 창조성이 발 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여성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여성노동자 운동의 개괄적인 현황, 필요성등을 살펴보았다.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 즉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자본가의 노동자 차별 정책과 분할 지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며 여성노동자 운동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노동을 해방하고 인간화를 실현하려는 노동자 계급 운동의 하나이다. 이는 여성 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단일한 계급이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여성의 존재조건에 의한, 여성으로서의 동일성 우선시 경향을 바로 잡을 핵심운동 세력이기도 하다.

여성노동자운동은 그 조직적 전망에 있어 대중 조직으로의 다양한 분화 발전과, 노동조합

의 지역, 산업별, 전국적 결집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탁아소 자모회 조직, 부인 조직, 가족 운동 단체 등의 다종다양한 대중 조직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외곽 대중조직이라 하자)의 건설과 함께, 노동 조합의 전국적인 연합 속에서 산업별 조직과 지역별 협의체 등 강고한 노동자 계급 운동의 구축을 통하여 여성 노동자운동이 나타날 것이며, 여성노동자 대중 조직 또한 모색될 것이다.

다종다양한 외곽 대중 조직을 통하여 지역 및 주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제도 및 법적, 정치적 요구는 여성들의 정치적 각각을 고양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평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내 복지 및 보건 사업, 교육 사업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노조 및 여성노동자 대중조직의 전국적 단결을 통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평생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반 제도적, 정치적 투쟁 역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요구로서 제기되고 쟁취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실천 과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 여성노동자 운동의 대중 운동적 의의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들의,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깊고 진한 민중적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배울 것이다. 그 동안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경직성, 조급성, 성과주의적 경향이 대중 운동이라는 과제 앞에서 철저히 불식되고 건강하게 성숙되어야만 한다. 즉, 대중운동적 관점, 대중적 삶에 대한 풍부한 이해, 그 속에서 번득이는 계급적 요구를 적절히 조직하는 일들이 중요한 과제로서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기존 여성노동자와 부인, 그리고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조직화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 부분은 노동자계급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 운동에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한 조직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사대문제, 차별임금 등 제반 차별적 대우의 문제, 모성보호의 문제, 성폭행 등 여성 노동자의 특수한 요구와 문제를 투쟁적 요구로서 정리해냄과 동시에 교육이나 선전의 형태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투쟁의 형태와 방식으로 제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요구는 항상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저임금, 차별임금의 논리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선전되어야 한다.

구사대를 노동자의 편으로 하기 위한 방침,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제안, 모성 보호를 위한 현재적 요구의 내용과 방식 등 이를테면 여성노동자 투쟁의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네째, 전체 노동자 계급과 특히 지도부에 대한 여성 문제 교육이 항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식과 교재 및 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여성노동자 지도력 개발을 위한 특수한 훈련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차별적 여성상을 조장하는 기존 자본가들의 허위 의식 유포와 피폐적 성문화, 관습들을 타파하기 위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며 여성 운동 단체와의 연대, 농민, 빈민 등 근로 대중 여성들과의 결합을 통해 여성의 정치력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이는 전체 민족민주운동전선을 강화하고 튼튼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여성들 스스로도 기존의 소극적 여성상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인간,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지배 방식은 날로 교묘해지고 전 근로대중을 분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풍부하고 다양한 대중운동의 전개와 이들의 계급적 통일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운동의 활발한 전개는, 대중운동과,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다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위대한 전진을 이루어 낼 것이다.

농민여성

허 훈 순 (가톨릭여성농민회)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자본주의화와 여성노동 가중화의 배경
- III. 여성 농민의 현실
 1. 가난한 살림살이
 2. 과중한 노동
 3. 불평등한 교육기회
 4. 위협받는 여성 농민들의 건강
 5. 무시당하는 여성 농민
 6. 도시·농촌 간의 문화적 차이

I. 들어가는 말

해마다 30만~50만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고 인구의 절반을 넘던 농민은 이제 1천만도 안된다. 그렇게 떠난 농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 떠났다가보다 더 이상 농촌에서는 살 수가 없어 떠밀리다시피 도시로 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농민들이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도시로 나가 불완전한 저소득 취업에 허덕이며 구호받아야 할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한창 일할 나이의 노동력을 빼앗긴 농업은, 노인이나 여성에 그 노동력을 의존하게 된다. 여성농민은 길게는 19시간의 초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해마다 늘어날 빛은 가구당 5백만원이 넘어, 여성농민들이 살림을 꾸려가는 것은 기적인양 싶다. 이제 농촌은 여자없이 농사지를 수 없다고 한다. 진짜 농민은 여자라고들 말한다. 그만큼 여자가 농사일을 많이 하고 역할도 커졌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대우는 못 받고 있다.

60년대 이후 공업화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국민 식량생산의 한 몫을 묵묵히 감당해 온 이 땅의 농민들, 그들 중에도 특히 여성농민들이 어떻게 노동이 가중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자. 가장 최악의 상태를 버티고 있는 이들의 삶을 바로 알고 또한 그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II. 자본주의화와 여성노동 가중화의 배경

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은 자본, 원료, 기술, 판매시장을 모두 외국에, 그것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해 한국경제의 재생산구조, 수출입과 외자도입의 중대로 나타내어지는 외연적 생산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대외의존적 재생산구조는 외자와의 제휴로 외국산 플랜트와 기술을 도입하여 수입된 원자재를 값싼 저임금노동자에게 가공시켜,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해외시장을 상대로 수출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속에서, 재생산 조건은 원자재의 수입과 값싼 노동력과 해외시장이 된다. 결국 우리로서는 값싼 노동력 하나만을 믿고 지금까지 경제개발을 대외의존적으로 해온 것이다. 이 값싼 노동력의 계속적인 공급을 위해 값싼 농산물의 공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저농산물가격을 유지하면서 공업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자본주의 하에서의 농업의 위치는 파잉인구의 풀(pool)로서 사회적 지출없이 잠재적이거나 정채당해에 있는 실업인구를 급양하고, 공업이 필요로 할때는 언제라도 값싼 저임금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급원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에 필요한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농업은 소농경영에 머문 채, 역사의 발전방향과는 반대로 전근대적 지주·소작관계가 재생되고, 상업적 농업의 전개는 농민분해, 농민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농업은 완전히 외세와 대관자본에 놓여 공업을 위해, 독점자본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며 농업인구의 이동을 부채질했다.

결국 외자의존형 수출경제와 불균형 성장에 따른 저임금 또 이를 위한 저곡가정책 등 생산계층을 근간으로 한 우리의 경제구조는 여성의 생산노동참여 역시 왜곡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농촌의 나이 어린 여성인력은, 공장노동

자로 이동해가서 도시빈민지역에서 영세 하청노동으로, 서비스산업에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또한 많은 농업노동력이 빠져나간 그자리는 결국 남아있는 여성농민들 몫으로 전보다 훨씬 많은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노동량도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여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본의 고용관계를 통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외의존적, 외연적인 경제구조속에서 외세의 직접적 지배수탈구조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

다음의 표를 보면 농업노동력과 비농업노동력에 있어서 모두 여성노동력 구성비가 점점 증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경제가 지금과 같은 외연적 재생산구조를 고수할 때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더욱 증가됨에 따라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뒤로 미룬채 여성의 노동참여만 증가된다면 여성들의 노동만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자본은 성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실현하려 하고 농업의 소농경영을 온존시켜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고자 한다.

직접적 생산자에 의한 보다 많은 경제잉여의 실현이 역사발전의 진보의 방향이라고 하면 민족경제의 자주·자립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여성은 노동으로 부터 자유로와 질수 있는 것이다.

전보다 훨씬 많은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노동량도
훨씬 많아졌다.

III. 여성농민의 현실

1. 가난한 살림살이

요즈음 농촌엔 이런 말이 있다. "1백만원 빚내서 1년 먹고 살면 1백만원만 빚지는데 호미자루만 들었다 하면 이놈의 빚이 2백만원도 되고 3백만원도 되고 아니, 열심히만 하면 1천만원도 넘으니 이 무슨 조화속이냐고." 일할수록 빚지고 열심히 살수록 더 빚지는 농촌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1987년말 정부통계에 의하더라도 전국의 농가의 8할가량이 빚이 있는 농가이며 가구당 평균부채는 2백39만원이라고 나타났다. 이것으로 계산해도 농민이 진 총빚은 4조4천7백17억 원이나 된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빚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들 하며 농민들은 한집당 최소 5백만원은 남을거라고 말한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한 여성농민의 11월 일

(표 1) 농업 및 비농업 노동력의 여성구성비율

	1965	1970	1975	1980	1985
농업노동력 여성구성비(%)	38.7	42.2	42.8	44.6	44.6
비농업노동력 여성구성비	30.6	31.4	32.0	35.2	37.3

기는 이렇게 섞어 있다.

"이제 한해의 농사일을 마무리 하는 달이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못입고 못먹었는데도 이래도 되는 걸까. 내당 한평없이 일하는 농촌의 생활이란 지옥도 못하는 서글픈 생활일 뿐이다. 떠나고 싶다."

아이도 없이 부부만이 살고 있는 이집의 년간 수입은 3백80 만원으로 이중 식생활로 지출한 돈은 6만 8천원 미만이며 1년간 쇠고기는 3번밖에 못 사먹었다고 한다. 땅한평 없는 이집의 지출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작료이다. 논 2천평, 밭 1천평, 총 3천평에 대한 소작료가 1백만원이 넘는다.

이렇게 농가살림이 어려운 것은 경지면적이 적거나 없기 때문이다. 가구당 평균 1.1정보의 경지면적을 갖고 농사를 짓고 1정보미만의 농가가 65%나 된다. 게다가 소작지는 늘고 소작농도 65%에 달하고 있다.

(표 2) 소작지일 소작율

	1975	1981	1985
소 작 지 (%)	13.7	22.3	30.5
소 작 농	27.8	46.4	64.7

경지면적은 작고 소작농은 늘어가는데 정부는 개방정책이니 뭐니 해서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해 와 농산물값이 뚱뚱이기 예사로 이제는 정말 더 지어볼 농사가 없다고 한다. 농수산부의 1988년 농어촌 부채현황을 보면 농가살림의 고충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다.

(표 3) 농어가 부채현황 1988. 6. 9 농림수산부

구분	년도	80	81	82	83	84	85	86	87
호 당 부 채 (천 원)		339	437	830	1,285	1,784	2,024	2,192	2,390
연 중 가 율 (%)		95.9	28.9	89.9	58.4	38.8	13.5	8.3	9.0
농 가 부 채 총 액 (억 원)		7,305	8,723	16,567	25,700	35,216	38,982	41,780	44,717

점점 커져오는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살림을 맡고 있는 여성농민에게는 더욱 큰 부담과 심각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전북 순창의 용복이 엄마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몇번이고 때려치우고 보따리 장사나 할까 생각도 했으나 용기가 없어서 그것도 못했다고 한다.

가난이 지긋지긋해 도시로 떠나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가난의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2. 과중한 노동

농번기철의 경기도 여주의 한 여성농민의 일과를 보자.

"요즘같이 바쁜 철엔 설거지와 빨래하는것도 일하러 안가고 꾸물대는 것으로 여기는 남편의 등쌀에, 다 미워두고 연장을 쟁겨들고, 들로 나간다. 점심때가 되면 함께 일을 해 놓고도 '때가 됐으면 먹을 걸 내와야 할 것 아니냐'며 짜증을 내는 남편을 혼자 들에 두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쟁겨 머리에 이고 다시 들로 간다. 중간중간 시장하면 딱걸리 한 사발에 김치쪽을 나눠 먹고 해 떨어지면 경운기에 올라타 툴툴거리며 집으로 온다. 온 삭신이 쏘는데 차라리 덜렁거리는 경운기의 요동을 안마삼아 보지만은,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소죽을 끓이고 앞마당가에 지어 놓은 비닐하우스에 물 주고 급한 빨래 몇가지 하다보면 밥상 늦게 들여 온다고 잔소리를 해대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하다. 어찌다 딸

애라도 일찍오는 날이면 마음이 덜 바쁜데 타자학원을 다녀야 취직이 된다는 딸애는 10시경에나 들어 오니 밥상을 머리맡에 미워 놓고 이것저것 잔일을 하다가 그만 골아 떨어진다. 잠을 자는 것도 단 몇시간 뿐 새벽녘이 되면 어찌나 몸이 쭈시는지 아픈 김에 잠이 깨면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대부분의 여성농민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말인 것 같다.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보면 자식보다 더 소중한 여기는 농산물의 수확기를 놓치기도 한다.

인간에겐 노동과 여가, 휴식이 적당히 주어 져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보통 8시간 노동에 8시간의 여가, 8시간의 휴식을 이상적 배분이라 하여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정했다 한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은 어떤가?

1983년 농촌진흥청의 조사를 보아도 농가주부의 농번기 노동시간은 농업노동 8시간54분, 가사노동 4시간29분으로 총1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자료로서 1988년 순창군에서 조사한 농번기 여성농민들의 노동시간을 보면 평균 15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상시간은 4시부터 5시이며 늦어도 6시를 넘기지 않으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오후 10시경이 가장 많고 대부분 늦어도 12시를 넘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여농민들은 휴식도 충분히 못하며 더구나 여가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 농번기에는 깨어있는 동안 대부분은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나머지 틈틈이 집안일을 한다. 결국 잠자는 시간 대여섯시간을 제외하면 여가시간도 없이 일에 매여 돌아간다.

이러한 여성농민들의 일을 농사일과 집안일과 자녀 양육으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자.

① 농업노동 참여 늘어

순창의 임단오 할머니는 육순이 넘도록 죽어라고 일만하는 과중한 노동이, 이가 갈리도록 지겹다고 했다.

농번기
여성농민들의
노동시간을 보면
평균 15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운 몸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여성농민은 "너무나 농사일이 힘들어서 땅을 놀리자니 땅농사 짓고 먹는 사람이 그럴수도 없고 지어먹자니 뼈가 부서지도록 노동을 해야 하고 온몸이 쭈시고 아파서 주먹으로 탕탕치면서 괴로워만 할 뿐이다"고 호소한다.

또 요즈음은,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만큼 일이 수월해졌다고 하나 여성농민들은 여전히 몸종아리가 부스러지도록 일만 한다. 농기계 조작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해 기계가 못하는 일들을 여전히 몸으로 때우고 있어, 이앙기니 트랙터니 콤팩트이니 하는 농기계가 농촌에 보급되었다 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안성에서의 조사에서 보면 기계사용할 줄 아는 여성농민은 3백42명의 조사대상중 경운기 운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와 바인더를 운전조작할 줄 아는 여성농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여전히 긴 노동시간과 힘든 노동을 해도 경제성은 낮아 이것이 노동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남녀의 품삯차이를 인정하고 합리화 시켜주기도 한다.

이렇게 농가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여성농민의 노동의 부담은 더욱 많아지고 휴식과 영양부족에서 오는 여성농민들의 건강은 이제 막 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②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자가

여성농민들이 농사일을 한다고 해서 집안일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집안일은 여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예전엔 딸자식이 엄마의 일손을 돕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도시의

공장에 빼앗겨 집안일과 자녀양육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젊은부부들은 간혹 집안일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봉건적 유제가 아직도 생활속에 깊이 남아있는 농촌에서는 집안일은 여전히 여자만의 고유영역으로 치부하려 든다.

편리하게 개발된 가정전기용품이 일손을 덜어 줄 수도 있지만 어려운 농가경제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③ 출산·육아의 부담만 늘어

아이를 낳는 일도 아이를 키우는 일도 모두 다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 것처럼 되어 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아직도 대도시에서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아, 요즈음 세상에도 아이와 산모 모두의 생명을 잃은 예도 있다. 아이 낳은 후, 산후조리는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이고 작고하고 한달동안 몸조리한 부인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아이가 있다 해도 농사일은 여전히 여성농민의 일손을 기다려, 잠시도 쉴 틈이 없어 아이 돌보는 일은 아이가 걷기 전까지 하면 그만이고 그 이후엔 제대로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크는 것이 농촌 아이들이다. 노인들마저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도 막아소 하나 변변히 없는 농촌 형편이니 농촌의 아이들은 버려진 것과 다를 없다.

마음이 안 놓이는 어머니들은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 들에 나가기도 한다.

“들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요. 다치지나 않나, 위험한 데 손대지나 않나 해서요. 내살짜리를 두고 나가거든요. 애들도 고생이에요.”

강원도의 최 명술씨는 1978년 가톨릭 농민회 소식지에 이런 글을 실었다.

“작은 아인 업고 큰아이는 손을 잡고 들로 나가는 부녀자, 악을 쓰며 우는 네댓살짜리 아이에게 회초리를 든 채 따라오지 말라고 협박하는 엄마, 지게 그늘에 갇힌애를 눕혀 놓고 일하는 신혼의 엄마…… 이런 아이도, 어른도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형벌이다.”

십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들로 집안으로 뛰어 다니며 바쁘게 살아가도 돌아오는 것은 빗뚱이라니 부지런하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산다는 말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이 된 것인가.

3. 불평등한 교육기회

아직도 문맹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젠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나 실제로 젊은 나이에 글을 몰라 자살한 어머니도 있다.

실제로 안성의 젊은 어머니는 내년엔 아이가 학교에 들어는데 한글을 모른다. 어떻게 시간을 내서 배워보려 땅 한 평 없는 농촌살림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을 찾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걱정이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 가면 엄마가 글 모르는 것이 여러 가지로 걸린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내 자식만은 어떻게 농사꾼 신세 면해 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나라 교육 정책은 이들에게 좀처럼 희망을 주지 않는다.

지난 여름 순창군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상태가 계속 되면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농민이 조사 대상의 74%나 되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싶은 이유중 으뜸은 자녀교육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절실한 자녀 교육도 아들에게는 어떻게든 지원하려 하고, 딸 자식은 안되면 동생이나 오빠 학비 보태는 일이나 하도록 강요되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 교육의 기회로부터 차단되고 또 사회교육에서도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술한 정보가 쏟아지고 정보화 시대라 할 만큼 정보홍수 시대에 모든 교육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여성농민의 이런 교육의 소외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지위향상이나 사회활동의 참여, 또 다른 여성농민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남편들은 영농교육이다, 농민교육이다, 해서 갖가지 교육을 본인 마음만 내키면 받을 수 있는데 비해 부인네들은 집안일이다, 농사일이다, 또는 남편이 못가게 한다, 도시락때문에 갈 수가 없다 등등의 갖은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이들에게 알맞는 내용의 교육도 농민운동 단체에서 하는 여성농민교육이외에 거의 없는 형편이다.

4. 위협받는 여성농민들의 건강

“손발이 저리고 허리·어깨가 아프고 머리·뒤통이 뻐근하고 다리가 욱신거리며 팔목은 바깥든 무우처럼 시큰거리지만 이거야 농사일하고 애 낳고 살다보면 다 그런 거려니 해요. 아파서 당장 죽을 병 아닌데 병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정말 그렇다. 웬만큼 아픈건 아픈 축에도 끼지 못한다.

과중한 노동과 빈약한 식생활이 결국 여성농민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여성농민들의 38%가 영양결핍에 걸려 있고 70%가 빈혈로 고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의 몸을 위해 지출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성의 건강은 남성과 같이 중요하며 동시에 남성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여성의 건강은 여성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 나아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성농민들은 이 땅의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성보다 자신의 육신을 혹사시키고 있다.

여성농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과중한노동, 영양부족 외에도 피임과 인공유산, 소출한 산전후관리등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부녀부가 84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백95명의 농촌부녀중 출산3일후에 일을 한 여성이 15.2%, 일주일후가 56.9%로 일주일안에 일을 한 여성이 72.1%에 달하

50여가지가 넘는
병중에 시달리면서도
힘든 농사일, 집안일을
해내야 하는 여성농민에게
의료시설은 그림의 떡과 같다.

고 1개월이상 산후조리를 한 사람은 단 1명뿐 이었다고 한다.

최소한 3주가 지나야만 가벼운 가사일을 할 수 있고 6주가 지나야만 정상적인 노동을 한다고 보건의학에서는 말하는데 이렇게 여성농민은 생물학적인 기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피임도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90%이상이 여자가 피임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농민이 많다. 반강제적이고 실적위주의 가족계획사업으로 복강경수술이나 불임시술 등을 한 여성농민들이 속수무책인 부작용때문에 말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또한 잦은 임신중절로 허리병에 시달리는 여성농민들도 상당하다. 심지어는 10번이상씩 인공유산술을 하고 허리가 굽어지는듯한 아픔속에서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지옥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여성농민은 “허리만 안 아프면 농사 지을만 하겠다.”고 한다.

또 요즈음엔 농약투리는 여성농민이 많아지면서부터 농약중독을 경험하기도 한다. 농민중 57%가 농약중독의 경험이 있으며, 85년 한 해에 농약중독으로 1천5백60명이 죽어갔다. 특히 여성들의 농약중독은 자녀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0여가지가 넘는 병중에 시달리면서도 힘든 농사일, 집안일을 해내야 하는 여성농민에게 의료시설은 그림의 떡과 같다. 전국의 의료시설중 93%가 도시에 집중해 있고 그중 7%만이 농어촌 지역에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군은 병원하나 제대로 없는 곳도 있다. 또 병원이 있다 한들 병원비 부담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지내는 것이 여성농민이다. 때문에 올해 실시된 의료보험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이 여성농민이었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다. 곳곳의 의료보험 싸움에서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들의 절실함을 말해 주고 있다. 자기부담이 큰 현재의 보험제도로는 여전히 여성농민은 뒤처지고 언제 차례가 올는지 기대할 수 없다.

5. 무시당하는 여성농민

화성군에 사는 두 남매를 둔 젊은 어머니는 뜻밖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잡아 먹었다고 구박인데다 보험금이며 예탁금등 등을 시집식구들끼리 의논하여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남편을 키우더니 재혼을 하든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 여성농민은 생산농민이면서도 토지로 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생산하는 농민에게 토지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생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앞으로 토지등기가 되어 있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대부분 남편이거나 남편이 죽은 후에도 아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부장제 문화가 더욱 뿌리깊은 농촌에서 여자가 무시당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생각이 남녀 모두에게 심어져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일방적 희생과 복종은 어디서나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가부장제 문화권에 사는 모든 여성에게 공통된 것이겠으나 도시와 공업에 대해 농촌과 농업의 희생을 자기의 몸을 소모해가며 떠맡치고 있는 여성농민의 아픔은 훨씬 큰 것이다.

한편 여성농민에게 가해지는 온갖 무시 천시, 또 여기에 갖은 억압은 농민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해 일종의 안전판 노릇을 하고 있다. 즉 농민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의 일부를 여성농민에게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완화 내지는 은폐시키며, 여성농민은 이러한 이중의 억압을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받아 들여야만 한다.

결국 농촌 내부에 가해지는 이러한 사회적 억압도 이 완충지대를 거치는 동안 남성들에게는 더 참고 견딜만한 것으로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마땅히 참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만약 남녀가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의식이 모두에게 확고하게 뿌리박혀 있다면 여성이 출산후 3일만에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인 상황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여성농민들의 일이 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농업노동조차도 사회화된 노동으로 의식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농민의 생산노동의 증가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내지는 해방의 성격보다 가사노동의 부담에 또하나의 부담으로 고통의 심화라는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6. 도시·농촌 간의 문화적 차이

산골 구석까지 보급된 텔레비전의 덕택으로 이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방에 앉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성농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열등감과 소외감 뿐이다 생산 대중과 상관없는 놀이·노래에 길들여지고, 끝없이 벌어지기만 하는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욕구가 각종 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또다시 농가경제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얼마 되지 않는 귀중한 여가시간은 재벌집 딸의 운명이나 대감집 마님의 운명을 지켜보는데 바치고 있다.

IV. 맺는 말

모든 여성농민이
해방되는 날
그날은
이 땅의 모든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되는 날인 것이다.

카톨릭농민회 여성부가 생겨나기 이전엔 단지 여성농민교육이 몇 번 있었던 정도였다.

1977년 이후 여성농민분회나 여성농민회니 하여 조직이 생겨났지만, 초기에는 협동적 조직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민적 자질이 결여되어 우물가 모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조직활동담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민조직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여성농민들의 투쟁력과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다.

기존의 농민운동 단체내에 여성농민조직이 건설되어야 하고, 더 많은 독자성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관제 부녀회로부터 민주적 자주적 조직으로의 전환은 여성농민에게 주어진 과제들로 남아 있다.

내일의 농업은, 오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주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절반이상의 여성농민은 내일 농업의 주인이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서야 한다. 여성농민 자신의 더욱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사회 해방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여성농민이 해방되는 날, 그날은 이 땅의 모든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되는 날인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여성농민의 어렵고 고통스런 현실—가난한 살림살이, 가중된 노동, 불평등한 교육기회, 위협받는 여성농민의 건강, 무시당하는 여성농민, 문화적차이에 의한 소외감 등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것들은 소농존 존 경영양식, 저농산물 가격 유지, 등의 농업·농민문제와 더불어 제시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성적 편견에 의해 가장 억압받고 있는 여성농민을 이해하고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농민 대중의 의식화와 운동의 성장은 전체 농업 문제 해결에 커다란 관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세계 놀려있던 용수철이 더 많이 튀어오르듯이, 가장 억눌려 있는 여성농민이 가장 기운차게 튀어 오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여성농민은 점차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소몰이 싸움으로부터, 시청료 거부싸움, 의료보험 시정 운동, 수세 폐지 운동, 토지반환 싸움에서 남성보다도 뛰어난 투쟁의 의지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적극적이고 당당한 모습속에서 앞으로 여성농민 운동의 성장의 밝은 빛을 예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직도 여성농민 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의 수는 아주 적다. 하지만 미미하나마 여성농민 스스로,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 의식으로 뭉쳐서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 배우고 싸워나가고 있다.

1977년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생활개선 구락부나 어머니회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여성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 동원의 일환으로 관주도하에 조직, 운영 되어온 것이 대부분 이었다. 여성 농민의 문제는 여성단체나 기타 사회단체등의 관심으로부터도 소외되었었고, 심지어 농민 운동에서조차도 소외되어 있었다. 1977년 카톨릭농촌여성회(현재 카톨릭여성농민회)와 한국

도시빈민여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박민주(서울협여성부)

-차 례-

- I.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 II. 도시빈민의 생활실태
- III. 도시빈민의 여성문제
 - 1. 주거문제
 - 2. 취업문제
 - 3. 성차별
 - 4. 탁아소
- IV. 도시빈민의 여성운동
 - 1. 빈민여성의 위치
 - 2. 빈민여성의 조직화를 위한 당면과제
 - 3. 빈민여성의 조직적 전망

노선 버스의 양쪽 끝 종점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무허가 판자촌, 서울에만도 230여군데나 되는 이러한 빈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도시빈민이라고 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데도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그들도, 이제는 84년 목동 투쟁을 계기로 사당동, 상계동, 양평동 등 각 지역에서 철거 투쟁을 해 오면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순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빈민 여성들은 남성들 못지않게,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철거 투쟁의 최전두에 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반면 아직도 많은 도시빈민들이 잠들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난함을 그저 자기의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도시빈민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위하여 도시빈민의 형성 과정과 그 일반적 실태를 먼저 살펴 보자.

I.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도시빈민의 역사는 일제 시대의 토막민으로 시작된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만주 등 해외로 이주하거나 도시 변두리로 나아가 최하층 생활을 이어가게 되며 이들은 일반 주택의 행랑채에 기거하거나 공한지, 사유지, 관유지 등에 움막이나 토막을 짓고 집단으로 거주하게 된다.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적 요소의 미청산과 토지 개혁의 실패, 6·25전쟁 피난민들로 인해 도시빈민화가 더욱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빈민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는 196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의 실시 이후이다.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 개발은 근대화를 위

대량의
이농민들이
농촌으로부터 밀려나
도시주변부에
퇴적하게 된다.

한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질 수는 있지만 외형적 경제 성장과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그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 구조의 대외 의존성을 확대 심화하는 과정이었다.

외자 도입에 의한 수출 지향적 경제 개발은, 국내적 분업 체계에 기초한 내포적 공업화가 아니라, 국내 농업 부문과의 관련을 무시한 것이었다. 국내의 농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해체하면서 대량의 유출 노동력을 창출해 도시의 산업 예비군으로 존재하게 하여 저임금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며,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낮추는 작업으로 인해 한층 더 농업 부문은 황폐화, 피폐화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량의 이농민들이 농촌으로부터 밀려나 도시 주변부에 퇴적하게 된다.

60년 이래 이농민은 매년 50~7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72~77년까지만 해도 750만명이 도시로 이주하였고, 77~82년 사이 매년 평균 70만명이 도시로 이주하였다.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편성된 산업 구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용량을 감퇴시키면서 이농민을 비롯해 도시의 수공업자층,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체 종사자를 근대적 공업 체계의 고용 체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주변적이고 비공식 부문에 불안정하게 취업하게 만든다.

이렇게 형성된 도시빈민은 주택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 변두리의 산비탈이나 하천변, 구릉지에 물려 살 수 밖에 없었다. 원시적

으로 형성되었던 판자촌들은 현재 거의 철거되어, 보다 번두리로 강제 이주 되었지만, 판자집이 불량 블록집으로 바뀌었을 뿐, 무허가불량 주택 지구는 갈수록 확대되어 갈 뿐이다.

60년대 말, 70년대초에 형성되어 70년대 양성화 과정을 통해 더욱 과밀화된 빈민 지역은 80년대에 접어들어 아파트 건립용 토지의 확보를 위한 재개발이라는 투기 바람에 밀려, 철거 폭력을 당함으로써 새로운 해체의 과정을 맞고 있다. 도시빈민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밀려나기 보다는 기존의 빈민지역에 더욱 더 집중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주택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편 기존 지역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일부는 아예 도시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일부는 주소도 없는 서초동, 개포동, 양재동, 오류동 등지에 무허가 비닐 천막촌 형태로 자연 부락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II. 도시빈민의 생활실태

도시빈민은 불안정한 생활 조건, 즉 취업, 주거, 그리고 소득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먼저 취업 형태를 보면, 건축 노동자가 거의 반수를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노점상, 행상 등의 영세 영업자의 청소부, 음식점 종업원 등의 하층 서비스업-종사자, 그리고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도시빈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용 건설 노동자는 장마철과 땅이 어는 겨울을 빼면 일년 365일중 150일 내지 180일 밖에 일을 못하게 되는 불안정 고용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심장 단위로 하청을 받아 일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의 재해나 부상

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의료 보험 가입의 혜택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노점상, 행상의 경우도 비가 오거나 계절적 이유로 반일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더구나 잦은 단속 때문에 영업 활동은 지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벌금도 많이 물며 유치장 신세까지 지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 영세 서비스업도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

결국 모든 도시빈민은 유망적인 신세일 따름이다. 그리하여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빈민촌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가구당 월 17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로 간신히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도시빈민은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 수가 많고, 또 가구 구성원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상태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되고 있다. 한편 주거 생활 역시 매우 불안정하다. 도시빈민의 과반수가 과중한 주거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값싼 방을 이리저리 떠도는 세입자들이다.

고밀도 과적 형태를 하고 있는 빈민 지역은 한 가구에 보통 3~4세대가 살고 있으며 1세대가 차지하는 방 수는 1칸이 대부분이다. 부부와 자식이 방 1칸을 쓰기 때문에 이에 의해 야기되는 성문제와 자식들의 교육 환경의 열악으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 문제 또한 크다.

주거 소유 형태는 전세나 월세가 대부분이고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30도이상의 비탈에 즐비하게 늘어선 8평~10평집이 고작이다. 요즘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빈민 지역들이 해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점점 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세가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다.

상하수도, 화장실, 쓰레기 수거 등의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도 않고 있다.

교육 수준 또한 매우 낮아 가구주 중 무학이나 국졸이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빈민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은
주거와 관계된
여러가지 문제이다.

학대까지 받으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빈민여성들은 가난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굴레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도시빈민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크게 주거 문제, 취업 문제, 성차별 문제 등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보자.

1. 주거문제

빈민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은 주거와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이다.

40대이상의 빈민여성들은 거의 한두번의 철거 경험이 있다.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조그마한 야산에 5평씩 새끼줄을 쳐서 말뚝을 받고 판자 조각으로 바람을 막고 겨우 집형상을 갖추어 놓으면 철거반원들이 쫓아와 몇 번씩 집을 부수기가 일쑤이다. 그리고, 물사정이 안좋아, 동네에 하나 있는 펌프로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물을 길어야만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 지금은 거의 집집마다 수도가 있지만, 지대가 좀 높은 곳은 아직도 길이다 먹는다.

또, 철거 대상 지역이라고 상하수도 시설을 해 주지 않아 여름에는 악취와 병균들로 인해 온 동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쓰레기 문제이다. 먹고 살기에 바빠, 집안밖의 쓰레기를 갖다 버릴 시간이 없고, 간혹 시간이 난다 해도 쓰레기차가 자주 안 와서 버릴 수가 없다. 거기에서 쓰레기차 아저씨들의 태도는 몹시 거칠을 뿐 만 아니라, 산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차별한다. 한번 쓰레기차가 오면 그야말로 전쟁터이다. 저 산 꼭대기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면서 쓰레기차를

낮은 교육 수준은 계층 상승의 기회를 봉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것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빈곤으로 2세에 대한 교육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다. 그 외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고 격심한 노동으로 인해 도시 빈민들의 건강은 매우 악화되어 질병이 만연되고 있다. 82년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빈민 인구 1천명당 유병률은 503명이며, 이중 7%가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해 소득원이 끊겨 극빈 생활을 해야 하며, 그럼에도 저소득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또한 의료보험도 가지지 못하므로 악순환은 가속화한다.

결론적으로 빈민들의 부채 및 공공서비스 혜택의 부재 등은, 빈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제를 의미하며 '빈곤의 악순환'은 '빈곤의 세습화'를 야기하고 있다.

III. 도시빈민 여성문제

도시의 온갖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도시여성들은 처녀때는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다가, 시집가서 애남고 나면 또 다시 처녀때 보다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가난한 남편을 가진 그들은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파출부로, 아니면 아이가 너무 어릴 경우는 가정 부업으로, '이를 악물고' 일을 하고 있다.

그 전에 다니던 공장은 애남고 몇 년 집에서 놀아서 기술이 녹이 슬었다고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기도 한다.

남편들이 한숨으로 술로, 화투쪽으로 신세한탄을 하며 자포자기하고 외역을 일할 때, 새벽같이 일어나 밥짓고, 빨래하고, 돈벌러 갔다가 밤늦도록 밀린 일 하며 때론 남편의 술주정,

를 끌고 오는 모습은 힘든 산동네 생활 그 자체이다.

물론 화장실 또한 집집마다 있지 못하다. 재래식이 대부분이며 없는 집은 공중 변소를 이용한다. 그러나 세입자인 경우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집주인하고의 관계이다. 제 때 월세를 못 낼 경우의 집주인의 잔소리와, 세든 집 자식들과 주인집 자식들과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거기다가 요즈음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받는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재개발사업으로 빈민 지역이 없어짐으로 인해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이다.

2. 취업문제

빈민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취업은 직업을 통한 자기 실현의 계기가 되기 보다는 남편의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만 하는 하나의 굴레로서 작용한다.

집안일과 애들을 돌보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시중까지 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 돌아 오면 그야말로 몸은 녹초가 되어버린다. 남편의 대부분이 노동일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그나마 겨울이나 장마철이 되면 일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끊어진다. "일을 나가진 않으면 우리 애들은 밥을 굶어야 합니다. 애들 아홉 수입으로 집세 내고, 지고 있는 빚이나 갚으면 그만이지요. 제가 그날그날 버는 돈으로 애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합니다." 이것은 일하는 빈민여성의 대부분은 그나마 4천원 정도 밖에 못받는다. 어쩌다 한번, 일하러 가는 집에서, 한달에 15여만원씩 계속 일해 주기를 원하면 정말로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파출부는 그야말로 남의 피땀까지 해야 하는 가장 하찮은 일로, 일 자체에서 오는 인간적 굴욕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데다가 주인 여자의 비인간적 대우를 당하게 되면 화가 저절로

복받친다.

자기 자식예겐 20~30만원씩 들여 피아노렛 손이다. 수영강습이다. 특기 지도를 위해 쓰면서,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많으면서도 몸이 피로와, 혹은 집안에 갑작스런 불상사가 생겨 가불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쌀쌀맞게 거절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 주려고 하면 못 가져가게 하며, 주인집의 아이들까지도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이 같이 밥도 안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파출부 여성들은 주인집 여자로부터 깨끗하게 다닐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없는 돈을 쪼개 파마도 하고 싸구려 화장품으로 짙은 화장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은 생활 환경의 극단적 격차에서 오는 갈등을 심하게 겪게 된다. 잘사는 집과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들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갈등을 심하게 겪기도 하지만 하루종일 일하고 와서 애들 씻기기도 정신없이 집안 일 하고는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잠들어 버리면 그만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빈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취업환경이 다 그러하듯이 파출부 역시 일하다가 다치면 아무런 의료 혜택이 없다. 파출부 사무실은 가입비와 화비만 받고 소개해 주면 그만이고 일을 시키는 주인집은 그 날의 일당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다. 땀만큼 아프면 약을 사먹고 견디고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 병원에 가는 것이다. 어쩌다 친구 의료 보험중이라도 빌리면 병원에 자주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하루 종일 남의 집 가서 일해 주고 돌아와서 또 격심한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파출부 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낮에 빈민지역에 들어서면 여자들은 거의 볼 수 없고 남자들이 군데군데 모여 노름판이나 술판을 벌이고 있고, 노인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명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빈민여성들에게
취업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하는
하나의 굴레로서 작용한다.

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2) 가내부업

빈민지역의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자그마한 부업거리를 앞에 놓고 혼자서 혹은 둘, 셋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가내 부업의 종류는 마늘까기에서부터 조화불이기, 구슬 꿴기, 전자부품조립, 봉제등이루 해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이 가내부업에 대한 댓가는 그 어느 노동보다도 열악하다. 일의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하는 일인지라 하루평균 2천원 안팎이고, 그야말로 하루종일 매달려서 잠자리 들기 전까지 하면 한달에 겨우 10만원이 넘을까 말까 한다.

와이어라고 불리우는 조그만 전기선의 양끝에 고리를 끼워 뜨거운 열을 가해 녹여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박씨의 경우는 "단가가 1원인데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집안을 치운 후 낮에 종일 매달려서 한달에 6~7만원 정도 번다."고 말했다.

일한 대가의 지불의 시기도 문제다.

보통의 경우 '하나에 얼마' 정도만 구두로 계약하고 일하기 때문에 지불날짜가 구체적이질 않아, 일을 끝내고도 한참후에나, 심지어는 몇 달 후에 돈을 받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나마 이런 일도 고정적으로 일정한 수량의

전문 직종이 요구하는 고급 기술이나 고학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파출부, 부업, 노점상, 행상, 각종 수선업, 노천 음식점, 낚시판이, 영세공장, 매춘부, 걸인 등 주로 몸으로 때우는 사회의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다.

빈민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가정의 빈곤이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이란 가사일의 연장인 허드렛일이나 막노동뿐이다. 노동 조합도 노동 규정도 없는 그들의 개별적, 분산적 노동 환경은 제한을 모르는 최악의 노동 조건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풍부하게 먹거나 풍부하게 입지도 않고 그렇다고 게으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간됨을 다하는 노동과 노력은 가정의 빈곤은 물론 자신의 빈곤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1) 파출부

빈민여성의 직업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출부는 파출부 사무실에 가입비 2만여원과 매달 회비 5,000여원 정도만 내면 손쉽게 일거리를 얻을 수 있고,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출부를 하고 있다.

파출부 사무실에 남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좋은 대를 잡을 수 있다. 보통 만나절일(4시간)과 종일일(8시간)이 있는데 집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종일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선착순이라서 집에서 늦게 나오면 어떨때는 일거리를 잡을 수가 없는 날도 있다. 또 파출부 사무실에 일거리가 쌓여 있는게 아니라 그날그날 파출부를 원하는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일거리가 없을 수도 있다.

하루종일 일해야 8천원이 고작이고 주인을 잘 만나면 1만원 주는 때도 있지만 만나절일때 여성들은 늘 정신적, 육체적 피곤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대접을 못 받아도 좋으니 일이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사정에 따라 증감 혹은 유무의 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안정한 직업'이다.

이렇게 지극히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빈민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가내 부업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공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아이들 있어서 이들을 맡아줄 주위의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업을 갖게 된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 관념에 젖은 가정들이 집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아내를 달갑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부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 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척 많다. 이와같이 여성 공급 인력이 남아도는 점을 이용, 하청업자는 아주 험값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 또한 하청업자의 입장에서 부업을 통하는 것이 일정한 인원을 정식고용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부대 비용 일체, 예를 들어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비용이나 일정한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3) 영세 공장 노동자

집안에 기계를 몇 대 들여 놓고 기술자를 고용하여(또는 가족, 친척의 도움을 받아) 수출 업체나 봉제 공장으로부터 하청받아 주문 생산하는 소규모의 공장이 많으며 가족 종사원을 포함한 종업원 수는 5~6명 정도이며 많아야 10여명이다.

그나마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으면 월급이 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시다로 일하기 때문에 10만원 안팎이다. 주인도 같이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더 친밀한 사이이다. 공장이 바로 동네안에 있기 때문에 점심때는 집에 와서 대충 밥 먹고 밀린 빨래도 해 놓고 가기도 한다. 이들의 노동 시간은 보통 오전 8시경에서 오후 8시 경까지이며 여기에서 작업 시간까지 합하면 12~18시간 정도가 된다.

다.

(4) 막노동

건축 공사장에서 흔히 스치게 되는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들은 대부분 '태모도' 혹은 '조공'이라고 해서 남자 인부들의 일을 거드는 역할을 한다. 벽돌 나르기, 모래 나르기에서부터 페인트 칠, 타일 깔기, 도배 그리고 작업장 뒤 치닥거리등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다. 이들 여성들은 파출부, 가내공업등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더 나은 벌이를 위해서 뛰어들는 경우로, 가정이 어려운 40대 후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임금은 작업이 고되기 때문에 일당 1만3천원 선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랄 수 있지만 남자 인부들의 경우 아무리 잡부라도 2만원 이상, 미장이등 기능공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여성 차별의 저임금 구조가 공사판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드렛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동 강도가 무척 높은 편이어서 이들 여성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느끼는 것이 체력의 한계다. 제대로 영양보충도 못 하면서 새벽에 일을 나가서는 저녁 7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다. 힘든 일 때문에 누적된 피로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몸의 이상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 벌이를 위해서, 아침 출근(?)을 할 때마다 동네 약방에 들러서 진통제, 드링크 등을 사 마시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약물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체력의 한계로 인한 고통 못지 않게 일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과 작업 중 다쳐도 산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후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다.

공사장으로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고용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겨울이나 장마철엔 손을 털고 놀아야 한다. 일을 맡는 것도 체계적 정보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인적인 연결에 의존하기

빈민여성이
갖는 직업은
영세 서서비스 부문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때문에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 대부분 가내 부업 등을 겸해서 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작업장에서 멀어지거나 자재가 무너지면서 몸을 크게 다칠 우려가 다른 직업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에 소속되지 못하고 이들 일일고용 노동자를 대변할 기구조차 없기 때문에 보상은 커녕 생계가 막히고 폐인이 되어도 속수무책인 형편이다.

"뛰니뛰니 해도 기운이 떨어져서 더 일을 못 하겠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제 몸 하나 밀쳐 삼고 이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버텨내기가 힘들지요. 그저 내 자식한테는 대물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0대 중반에 서울에 올라와, 50줄이 되도록 공사판을 쫓아다녔다는 한 산동네 주부의 한숨 섞인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외에 빈민여성이 갖는 직업은 포장마차, 행상, 노점, 청소부, 세차하는 일, 구멍가게, 각종 수선업등 영세 서서비스 부문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모두 다 일을 하면서 그 위에 가사와 육아의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노동하고 있으며, 직업상의 의료 혜택이나 임금 인상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이나 대책이 없다.

3. 성차별

빈민여성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성차별이다.

공장에 가면 남자와도 차별하고, 미혼과도 차별 대우하여 월급을 아주 적게 준다. 또한 서서비스 부문에 종사할 경우는 남자들로부터 받는 인간 이하의 대접과 희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편이 다쳐서 일을 못하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노는 경우는 마누라가 벌어들여 주는 돈으로 살고 있다는 남편의 열등감 때문에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 그리고, 부인이 철거 싸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남편과의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싸움에 참여

하고 세입자 대책위원회(주민 조직)의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 집안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남편은 여자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다고 신경질을 내고, 시위 때 앞장섰던 사람들의 경우 이혼하자는 소리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남자들은 여자가 철거 싸움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마치 여자를 앞세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못난 남편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 같아 싫은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여자들을 막기 위해 남편들의 직장에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 한편으로, 남자 임원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을 남편이 보고는, 극자살자하고 덤벼들 때에는 정말 어찌 할 수가 없다.

빈민여성들은 가사와 육아의 모든 부담을 안고서, 한편으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부대낌으로부터, 또 철거 싸움을 하는 경우에 남편과 자식들의 물이해로부터 오는 갖은 수난과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다.

4. 탁아소

현재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탁아의 형태는 크게 지역탁아소(자생적 비영리 민간탁아소), YWCA의 개인 탁아시설, 각종 유치원 시설과 새마을 유아원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설 유치원 시설은 5~6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장소로, 일하러나가는 엄마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YWCA에서 실시하고 있는 탁아모 교육을 통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3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아 주고 있다. 이런 경우는 탁아비가 보통 1명당 10만~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나 이용이 가능하지, 빈민여성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빈민여성들은 보통 어린애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아니면 형이나 누나가 어린 동생을 돌보게 하고 일하러 나간다. 애들은 엄마가 차려주는 점심을 먹고는, 저녁 늦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길에서 놀곤 한다. 빈민지역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와 곁할 시간이 적고, 비좁은 주거 환경에서 자라므로, 대체로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 그리고, 부모의 관심을 적게 받아 정서가 불안하고 애정이 결핍된 아동이 많다.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들이 많으며 발표력이나 주체적인 활동 능력이 부족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충분한 책이나 장난감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거나, 소꿉장난, 혹은 좁은 방 안에서 놀게 된다. 특별한 놀이감이 없이 주변의 대상물이 놀이 기구가 되는 것이다.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일하는 엄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해결을 위하여,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유아원은 실재에 있어서 빈민지역보다는 중산층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유치원에 들어 갈 나이인 5~6세의 아이들을 주로 받고 하루종일 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새마을유아원은 새세대 육영의 사업으로 5공화국의 전시적 행정에 불과한 것이며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많은 부작용과 불합리를 낳았다. 또 유아원의 관찰과 행정의 경우, 정책 담당자인 내부부와, 교육 담당인 문교부내의 학

무과의 이중적 체계로 인해 일관화를 이루지 못했다.

진정 일하는 엄마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출발부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85년경부터 빈민지역이나 공단 부근에 자생적으로 탁아소가 생겨서 일어나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있다. 이러한 탁아소는 정부당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주로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탁아소는 엄마들의 수입을 고려해서 엄마들이 내는 보육비의 수준은 2만~5만원 정도 뿐이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마다 일일 찻집이나 바자회 등을 벌여 그때그때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탁아소는 엄마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엄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탁아소의 숫자는 서울·경인지역을 총망라해도 50여개 밖에 안되기때문에, 사회적 탁아 시설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수용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대부분의 가난한 애들은 버려져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시립 탁아소—일명 88탁아소—와 탁아 입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8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31개의 탁아원을 신설,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실제로 9월부터 봉천동이나 구로동 등지에 시립 탁아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립 탁아소는 부모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제반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지역탁아소에게는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로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성 개발원에서 탁아 입법이란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탁아 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일하는 가난한 여성들의 요구와 조건을

철거투쟁으로 빈민여성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깨이기 시작했으며
투쟁과정속에서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2) 경제적

농촌에서 탈락되어 도시로 밀려났거나, 혹은 노동자로부터 광범위한 실업군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도시빈민의 딸과 그 아내들은 한국 자본주의 모순이 빚은 최말단의 위치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의 직업은 영세 공장의 시다, 식당·이발소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 파출부, 하청 막노동의 잡부나 데모도, 하청 부업, 영세 노점상 등으로서 자본의 모순이 가장 난맥으로 일고 있고 설켜 있는 성격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민여성들의 모순을 파악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철거 문제에서 특히 여성들이 투쟁의 최전선을 점하게 되는 이유는, 집이라는 것이 가정을 유지하는 역할로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피부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철거 투쟁으로 빈민여성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깨이기 시작했으며 투쟁 과정속에서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철거 투쟁은 빈민여성들이 최초로 조직적으로 투쟁하게 하는 가능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거 투쟁에서 보여지는 빈민여성들의 조직과 투쟁력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3) 사회적

한 가정안에서도 빈민여성은 교육의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문화의 측면에서도 텔레비전, 라디오에 감염되어 그릇된 허위 의식과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누구보다 교육열이 높으며, 누구보다 문화적 감수성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해야 하며 지역 탁아소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탁아 부분에 대한 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탁아 입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역 탁아소를 규제, 제한하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준비되고 있는 탁아 입법은 지역 탁아소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새마을 유아원과 같이 대통령 선거 때 표를 확보하지 못한 빈민층에 대한 6공화국의 시혜적 전시 행정이라는 인상을 떨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IV. 도시빈민 여성운동

1. 빈민여성의 위치

이 땅의 빈민여성은 한국 자본주의 체계의 최말단 고리에 처해 있음으로써 그 어느 계층보다도 열악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지금까지 여성운동의 차원에서든 빈민운동의 차원에서든, 빈민여성의 중심문제가 조직적인 투쟁으로 발전된 예가 없다. 이는 빈민여성의 주체적 조건에도 관계하지만, 전체 운동의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집중된 적이 없다는 데도 기인한다. 빈민여성의 위치는 정치적으로 가장 불모지에 가깝다. 지금까지 빈민여성은 정치적인 힘을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무능력자로 낙인이 찍혔을 정도였다.

최근 철거 투쟁으로 단련된 빈민여성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투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 뛰어난 빈민여성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계급 의식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필요로 한다. 가장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병이 많고, 스스로의 그러한 희생에 의해서 가족들,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비인간적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명이라는 봉건적 의식으로 인내하는 여성들의 사회의식을 깨뜨려야만 한다. 직업의 문제, 교육·문화·질병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그들의 조건을 개선,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2. 빈민여성의 조직화를 위한 당면과제

(1) 생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세우는 일

남성의 소득에 견주어, 여성의 소득을 이르는 말로 귀벌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부업이나 파출부, 혹은 청소부 등의 서어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의 주체로서의 의식을 스스로 갖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위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빈민여성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다. 현실적으로 가정수입으로서는 부분적이고, 보조적이지만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생산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게하며 직업적인 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2) 가사 노동의 사회화

여성은 남성과 달리 아기를 낳고 키우는 생명재생산의 주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사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재생산에 대한 주체의식이 부족하다. 여자니까 당연히 하는일, 어머니니까 당연한 일로 스스로, 규정을 지을 때도 많다. 탁아소, 김치 공장, 옷수선소 등을 사회화하는 문제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화된 '재생산노동'은 여성을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그 주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

이 마련되는 단초가 된다. 말하자면 재생산노동을 사회화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재생산 노동을 노동으로서의 가치로 인정받으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가정내 남성과의 역할 배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가능하다.

(3) 봉건잔재의 의식을 타파하는 일

여성들의 의식속에 스스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한, 여성은 영원히 해방되지 못한다. 남편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맹종,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여성 스스로 자신을 못났다고, 남자보다 무능하다고 느끼는 의식, 이러한 것들이 빈민여성의 조직적 전망을 내부로부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3. 빈민여성의 조직적 전망

빈민여성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조직적 전망을 갖는 것은 당위로서 가능한 일이며 그 당위가 필연적으로 귀결되려면 시급하게 전망을 실천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우선 교육 문제, 문화 운동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집단적 실천을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자모회, 지역문화운동회, 마당놀이회 등)

둘째, 경제적 권익을 위한 조직화와 투쟁으로의 연결(지역 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X X동 주민 조직, 파출부회,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등)

셋째, 빈민여성회처럼 빈민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제권익을 위한 연대조직과 그 투쟁들, 빈민여성들은 철거반대투쟁 과정에서 서울시철거민협의회의라는 대중단체의 주요한 기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민여성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과 주체로서의 자각의 미비로 인하여 여전히 그 삶과 운동에 있어서 제약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들은 조직내에서 요구되어지는 올바른 실천 활동을 통해서, 또한 조직 운영에서의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 그리고 무

엇보다도 빈민여성 자신들의 활동과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속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

(수 기)

『살아온 이야기』

72년도에 서울왔죠. 17살이었어요. 시골집이 썩 못살아서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고 서울에 사촌오빠가 있어서 뒷바라지도 해주고 학교도 다니려는 욕심으로 올라와서는 경기도 시흥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사실 공부하러 왔다지만 그게 잘 되나요? 부모들도 옆에 없지 그때만해도 경기가 좋아선지 시흥에 공장들이 많았고 그래서 주위에 자취생들이 많았어

요. 학원다니는 것 포기하고 안경공장애를 들어갔죠. 월급이 하루 90원꼴 이었나봐요. 삼월 세방 값이 2500원이었구 한번은 추석때 월급 받아서 바지하나 사입고나니 시골갈 차비밖에 안남았어요. 올라와서 없을 정도였다고요.

공장생활 오래 하다보니 지금의 애아빠 만나서 6년이나 연애했고 26살때 결혼했어요. 정말 연애했으면서 서로 사정 다 알고 모든 것을 참아

내했다고 생각했으니 지금도 살죠. 시집이 너무나 살기 힘든 집이었어요. 애아빠가 결혼하면서 갖고온 건 불알 두쪽하고 정부미 1포대가 다였다고요. 그러니 어찌겠어요. 전 결혼비용을 혼수장만 하는대신 방부터 하나 얻는데 써야했죠. 단칸방에서 시어머니, 시동생, 신랑 그리고 나 함께 뒹굴었어요. 무엇보다도 건디기 힘든게 시어머니 술주정이었어요. 애아빠방에 대한 화풀이를 며느리한테 해대는 거지 뭐. 애아빠도 술깨면 말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인이 술이 얼마나 심한지 모전자전이에요. 저도 치내때는 지금 아빠랑 술자리 있으면 꼭꼭가고 술먹을 줄은 지금도 알지만 워낙 시집와서 술에 절어 사는 사람들만 보다보니 이젠 술하면 몸서리부터 쳐져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도저히 못살겠다고 얘기 데리고 친정가서 있다가 겨울을 보내고 왔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맘이 변한다더니 죽기 1년전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불쌍하다고 그러대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손자를 보기시작하고 또 제가 생각해도 '내가 일부터 나가면 얼굴 마주치니까 덜 아웅거리겠지'해서 파출부를 시작했죠. 일하니까 여러가지가 좋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인근 탁아소에 맡겨 놓기는 하지만 돈도 벌고 또 마누라 고생시키는게 미안한지 얘기 아빠 술도 많이 줄어 들구요. 자식요? 아빠가 정관수술했어요. 자식이야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야 열이고 스물이고 넘으면 좀 힘들어도 다 크고나면 보기좋죠. 그런데 하나 키우기도 이렇게 힘이든데 어찌 더 낳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저절로 가족계획해요. 안시키도.

일주일에 3일은 1년전부터 정해논 집에 가고 나머지 날은 사무실에 나가서 있다가 전화 받고 아무 집이나 가죠. 그래도 사실 일주일 꼬박 일하기는 힘들어요. 얘기가 있는 집은 다른 집보다 잘 대해줘요. 자기자식을 돌보니까 그런가보죠. 내 자식은 탁아소에 맡기고 남의 자식 보러가지만 남의일도 내일처럼 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나는 내가 잘 살아서 파출부 쓰면 정말 잘 할것 같아요. 하긴 모전 시집살이 한년이 모전 시어머니 된다고 더 할지도 모르죠. 나이도 얼마 안먹은 것들이 까다롭게 될 시키면 맘이 안좋아요. 있는 집에 시집와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림살이 보면 더러워요. 돈만 많았다 뿐이지 살림사는 것은 별수 없구나 싶어요. 요샌 사무실에 쫓겨온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파출부 자릴 구하려고 하는데 가만보니까 그래도 일자릴 다 얻어 나가더라구요. 파출부 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나보죠.

봉천동으로 이사온지 얼마 안됐지만 없는 사람들 참 좋은 동네죠. 서로가 서로 사정 뻔히 아니까 숨기고 뭐고도 없이 오히려 속 편하죠. 돈 벌어서 부자동네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래오래 이 동네에 살아야겠는데 요즘 하도 철거이야기들이 많이 도니까 남의 일 같지않고 불안해요. 사실 뭐 사람사는 집이라 할 수가 있나요. 친정식구들이 와서 울고가는 것 보고 맘이 많이 아팠어요. 동생이 '이런 집은 그냥 줄테니 살라해도 못살겠다' 하더군요. 그래도 하늘에 가까와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잖아요. 우리에게만 하나뿐인 보금자리인 데 보기 싫다고 허물수도 없는일 아녜요?

둘째 집인데도 만이노릇 해야하는 것도 큰 부담이에요. 시숙이라는 양반이 여자 도망가고 혼자 저렇게 있으니..... 할머니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병간호하랴, 오줌통 받아내랴, 밥해대랴, 일다니랴, 내가 다 했잖아요. 어찌겠어요. 제사도 우리가 지내요. 지난번에는 제사 지낼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준 1돈반짜리 반지 팔아서 했어요.

우리는 월부나 외상은 참 싫어해요. 그러니 빨리 돈 모아가지고 칼라TV 사야겠어요. 모두 다 칼라잖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50만원 보증금에 3만 5천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까워 죽겠어요. 돈도 제대로 안모이고 빨리 모아서

전셋방으로 옮겨야죠. 그게 제일 큰 목표예요. 아빠만 제대로 빠지지 않고 일하면 저축이 될 텐데.....

(봉천동에 사는 엄마)



사무직 여성노동자 운동의 현실과 전망

—근로 실태 및 이의
극복을 중심으로—

박 주 미

—차 례—

- I. 머리말
- II.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근로실태
- III.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주체적 대응
- IV. 맺는말

I. 머 리 말

지난 87년 6월 이후 가장 활발한 운동 중의 하나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 사무 관련직 노동 운동이며, 더불어 그 내에 조직화되기 시작한 사무 관련직 여성 노동자의 움직임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들 사무직 여성 노동자는 현재 약 6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상 더욱 증가할 추세에 있어, 장차 생산직 여성 근로자(현재 약 87만 5천명)보다 숫적으로 우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무직 여성 노동자 운동의 중요성과 영향력 증가는 그 집단의 운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 운동과 여성 운동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대생의 대부분이 졸업 후 취업을 할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나 운동의 초기 단계로서의 여러 양태들을 살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 즉 근로의 전과정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한 후 전체 사무직 노동 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살펴 본 후 앞으로의 운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는 것으로 하겠다.

(표 1) 15세 이상 여성 14,757,000명 분포도

취업자 5,610,000	가사 종사자 5,915,000
실업자 149,000	학생 1,796,000

경제활동인구 5,759,000
비경제활동인구 8,998,000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현재
약 6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II.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근로 실태

구체적인 실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성 노동자의 전반적인 취업 실태를 보도록 하자.

우리 나라 여성 인구는 1985년말 현재 2천 2백만명, 노동 가능 연령인 15세 이상의 여성 인구는 14,757,000명이며 그 중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5,610,000명, 실업자 149,000명으로 모두 5,759,000명(39%)으로 나타나 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8,998,000명으로 이 중 가사 종사자는 5,915,000명, 학생이 1,796,000명이다.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를 제외한 5,610,000명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근거해 보더라도 사무직 및 사무직관련 종사자의 수는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성 취업자의 대부분이 저임금의 기술 숙련도가 낮은 제조업 부분의 생산직 노동자이거나 사무직 중에서도 타자수, 경리, 안내원 등 단순 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경우가 90% 이상이며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연령층이 80.5%로 절대 다수이고,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이 79.3%, 기혼이 20.7%,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58.2%, 고졸 36.9%, 초졸 2.4%, 대졸이상이 2.5%의 순으로 최근 여성노동자의 학력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근속년수로 볼 때는 5년미만 근속자의 구성비가 86.5%를 차지하며 10년 이상 장기근속비율은 1.6%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여성은 저임금의 임시노동력(결혼전까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보조·비숙련직종에 여성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학력·고연령 여성의 취업난은 이래서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을까?

여성노동자는 취업기회에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다. 즉, 고용에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에서, 승진과 승급에서, 직업교육의 부여에서, 각종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그리고 결국은 정년(퇴직)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차별은 생산직·사무직 여성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일반 대기업, 대학사무직, 병원 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용 및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문의 '사원모집'란을 가까이 대하고 있다. 특히 입사철이 되면 신문

의 하단을 장식하는 사원모집란.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년 이후 출생한 자로서 군필한 남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예 여성을 선발 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간혹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때는 '○○세 이하 미혼여성' '용모 단정한 ○○년도 이전 출생자'라는 조항이 달려있고 대부분 '인사과·총무부·영업부' 등의 특정부서와 더불어 '여사원'이라는 난을 따로 두고 여성을 채용하고 있다. 즉, 채용광고에서 모집직종에 특수성을 명시하거나 남자만을 모집함으로써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낮은 연봉으로, 미혼일 것을 요구하며, 동일학력·동일경력일 경우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눈에 보이는 성차별적 신문광고는 모습을 감추는 듯 하나, 형식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도 나타나는 바, 여성노동자의 98.3%가 비직급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현저하다.

또한 채용된 여성노동자는 배치·전환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앞서의 모집광고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 관행에 의해 남녀의 직무를 분리하여 남성은 기간 업무에, 여성은 보조 업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조건에서 (임금의 절대액수면, 결혼후 계속 근로,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의 보장 등) 일하고 있다는 은행(제1금융-10개 시중은행, 국책은행, 특수은행 등)의 여성노동자들은 모집에서

(표 2) 여성취업자 분포도

	행정관리직	전문기술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관련직	농업	생산직
1980	3.5%	12.0%	16.5%	7.9%	38.9%	21.2%	
1986	2,000	281,000	794,000	954,000	558,000	1,975,000	1,046,000
	0.3%	5%	14.2%	17%	9.9%	35.2%	18.6%

1985, 센서스 결과 보고

1986, 제2차 고용구조 특별조사 보고서, 경제기획원

부터 남성은 행원으로, 여성은 여행원으로 채용되어 사내의 서열상 형식적으로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행원에 이은 여섯번째 서열에 위치한다.

대체로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된 여성이 하는 일을 주로 직책이나 고유업무 능력을 요하지 않는 분야이다. 사무실 정리 정돈, 타자치기, 정확성과 치밀함이 요구되는 장부 및 영수증 정리, 문서수발, 전화받기, 기타 잡무-사무직 여성들은 이를 3C업무라 부른다. 커피(coffee), 담배(cigarette), 복사(copy) 등-즉 남자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발하거나 마무리하는 보조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 주요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은 입사 초임부터 동일 학력의 남자 사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금액을 받아들게 되는데, 업무분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임금을 정당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직급이 같거나 업무분리가 적은 곳일 수록 즉, 배치에 있어서 성차별이 적은 곳일 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2)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올해 들어 직장생활 10년째, 우리 회사 호

여성노동자는
취업기회에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다.

봉으로 12년째, 내 나이 두달이 지나면 서른인데 19살의 남자신입사원보다도 적은 월급, 입사동기생들은 이미 과장·부장으로 승진되어 있는데……'라는 어느 여직원의 뒷두리를 빌지 않더라도 직장내에서의 남녀 임금 차별은 매우 심각한 양태를 나타낸다(생산직 여성에 있어서는 업무나 직종분리 또는 임금의 절대액수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사내 남녀 임금 격차에 있어서는 사무직이 더욱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은행에 있어서의 임금차별을 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하위 서열에 속하는 여행원의 임금은 같은 고졸일 지라도 행원(남자)과 초봉에서부터 차이가 나, 그 비율이 행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8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년이 경과하면 78.7%, 10년 경과시 76.7%, 20년이 되면 68.5%로 그 차

(표 3) 직급별, 성별 근로자수(1985)

(단위:명, %)

	총 계	남 성	여 성	여 성 비
	3,418,563	2,221,692(100.0)	1,196,871(100.0)	53.9
임원	41,851(1.2)	41,163(1.8)	688(0.0)	1.7
부장	42,505(1.2)	42,311(1.9)	194(-)	0.5
과장	99,310(2.9)	98,102(4.4)	1,208(0.1)	1.2
계장	48,641(1.4)	47,568(2.1)	1,073(0.1)	2.3
심장	1,141(0.0)	1,141(0.1)	-	-
조장	25,599(0.8)	17,611(0.8)	7,988(0.7)	45.3
반장	55,208(1.6)	46,020(2.1)	9,188(0.8)	20.0
비직급	3,104,308(90.8)	1,927,776(86.8)	1,176,532(98.3)	61.0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이는 계속 벌어지기만 한다.

특히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8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단일호봉제(이전에는 직급별 분리호봉제였다)에서도 여행원은 제외된 채 별도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입행시부터의 분리채용으로 인해 초임에서부터의 차별은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서열을 그 기본축으로 하면서 학력, 성별에 따른 분리호봉체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무직여성에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는 다음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다. 동일업종이면서도 남녀업무가 거의 비슷한 O기업과 D기업은 임금체계가 달라 남녀 모두 동일직급인 O기업의 남녀초임비율이 93.6%인데 비해 남녀분리호봉체계를 실시하는 D기업은 78.9%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한 S대학의 경우 사무직, 전산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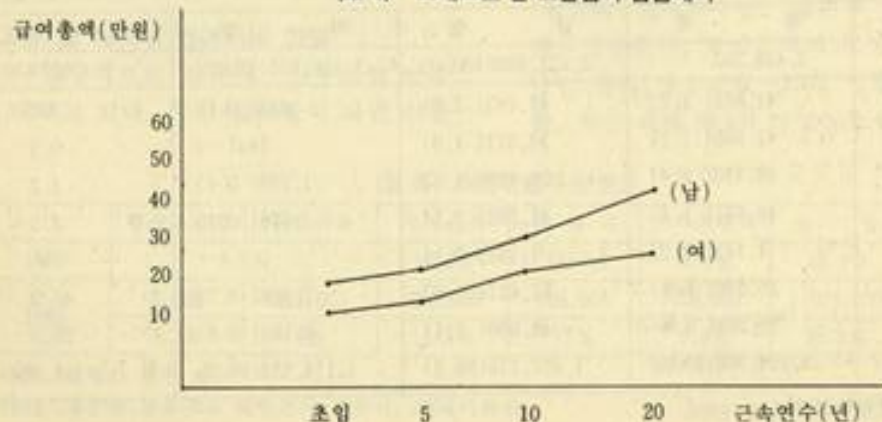
직에 고졸남녀직원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 때 남자 100에 여자 95.9%로서 남자의 근입대 기간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 2 급유권 내에서도, 남(자료, 여신, 수신, 총무)·여(자료, 계산, 수신·여신보조, 심사보조)의 업무차가 비교적 심한 투자금융이나 보험업쪽이 투자신탁이나 증권회사보다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투자신탁 84.7%, D증권 79.8%임에 비해 H화재해상보험이 61.8%, S투자금융 62.3%, H투자금융 59.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여성과 남성의 임금비가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임금체계나 업무분리 때문만이 아닌 승진·승급에서의 제외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비교적 초임의 격차가 적은 S대학이나 O기업에서도 근속년수

〈표 4〉 시중은행 고졸남녀직원 근속연수별 월급(본봉) 및 그 차액 대비표(원)

	초 임	5 년	10 년	20 년
남 자 행 원 (A)	191,800	231,000	348,600	471,800
여 자 행 원 (B)	165,200	182,000	267,400	323,400
차 액	26,600	49,000	81,200	148,400
비 율 (B/A)	86.1%	78.7%	76.7%	68.5%

(1987. 11. 1 현재)

〈표 5〉 그래프로 본 고졸남녀 임금대비



가 오래되면 월수급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승진이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실재를 여러 사업장의 예를 통해 보도록 하자.

G 투자신탁=초임격차 84.9%

8년
남→대리→61.6%

6년
남→과장→49%

S 대학:초임격차 95.9%

10년
남→주임→93.1%

5년
남→과장→50%

D 투자신탁:초임격차 84.7%

8년
남→대리→61.6%

6년
남→과장→49%

D 증권:초임격차 79.8%→4년 57.9%

4년
남→대리→52.8%

H 보험:초임격차 74.8%

10년
남→대리→66.3%

5년
남→부장→38%

임금을 구조적으로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1차적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음과, 승진·승급이 여성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2차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각종 수당, 상여금 후생적 급여의 차이는 실제 수령총액의 보다 심한 차이를 낳는다. 수당의 종류와 명목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매우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다. 기본급에 준해 정률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

심지어는
남자직원을 위해
여성이 희생양이 되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아예 없는 것이 허다하다), 특수수당, 업무수당 등과 남자에게만 지급되는 가계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등은 남녀 초임(본봉)격차가 65%인 C기업에 있어,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의 차를 56%로 벌려 놓고, 월 기본급차액은 71,300원인데 비해 월급여총액차이는 284,960원으로 4배이상 벌어지게 한다.

심지어는 남자직원을 위해 여성이 희생양이 되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G전선에서는 인사과과가 능력급제도로 전환된 후 부서별 특진자 및 감봉자가 비율로 정해지게 되는데, 남자사원에 감봉대상이 없는 경우(승진된 사람, 1년미만자, 승진시험대상자 제외) 사무직여성 1명이 임의감봉을 당해 상여금 50%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내의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어 몇몇 기업의 경우 승급시험이나 승진시험을 도입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3) 승진·승급에서의 차별

앞의 〈표 3〉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직장여성들은 승진에서 아예 열외로 취급되고 있다. 계장급이상 여성은 0.2%이며 특히 관리직인 과장과 임원의 구성비는 각각 0.02%, 0.06%로 친인척관계에 의한 경우를 제한한다면 사실상 여성의 상위직급으로서의 승진의 기회

는 거의 없어 왔다. 지금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여성에게는 단지 '성'을 이유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84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승진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기업이 전체의 33%라 한다. 그러나 이는 취업 규칙상 명문화된 조항이 없을 뿐이지 관행상 승진기회에서의 배제를 생각해 보면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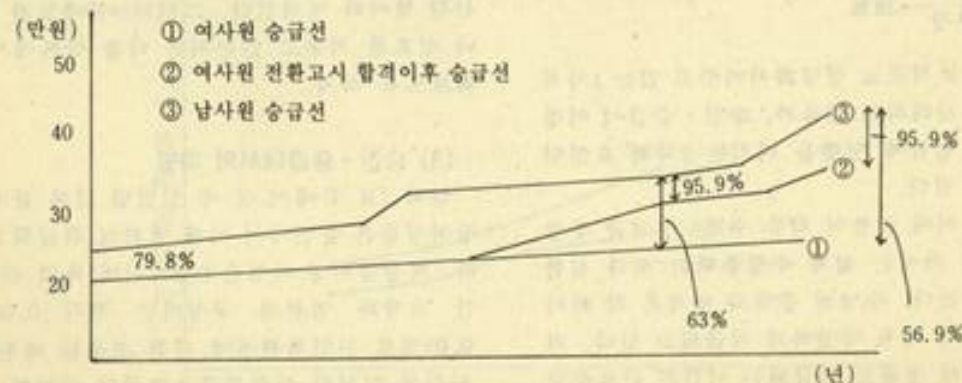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금융업계나 일반대기업 등 사무직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그 내의 여성의 조직화는 여성의 승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명문화시키고 있어(S 부자금용, H 해상화재보험, H 부자금용, D 산업건설, D 증권, W 출판사 등등) 일정한 횟수가 경과하면 6급에서 5급으로, 또는 5급에서 4급 '올'로 자동적이거나 시험을 통해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했지만, 승급의 근거가 인사고과에 큰 비중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리한 직무에 배치된 여성으로서의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일반적 상황에 비해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여행원의 승진·승급은 비록 제한적이거나 계속 개선되고 있다. 1977년 중견여행원

제도의 실시, 특별전환고시, 보통승격고시(책임자승격고시)의 실시, 15년장기근속여행원의 일반직으로의 자동전환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행원의 지위향상과 승진·승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질적인 은행내의 현 위계질서의 골격은 그냥 방치해 둔 채, 주변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무마해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들 제도조차 큰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들 고시가 인원수를 미리 제한한 T.O.제한 점이다(용시자의 5~10%, 또는 '0명'이라고 미리 규정). 이는 형식적으로는 남녀동등한 공개시험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여성만의 경쟁으로 만들고 중견여행원이라는 미명하에 여행원간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남자)행원의 경우에는 연수만 차고(4년) 실무연수교육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중견행원으로 되는데 반해, 여행원은 시험을 치게 되어 있고 또 T.O.제로 묶여있다는 것은 이 시험제도의 한계를 뚜렷이 나타내주는 것이며 그나마도 중견여행원의 채용은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는 채용인원수나 시험의 시행면에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여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표 6〉 1종권 승급, 승진여부에 따른 임금 대비표



에 10년된 여행원이 전직했을 때 남자 7호봉으로 처리되며 그나마 시험에 실패하거나 제외된 여행원은 가호봉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여행원들은 타직종이나 업종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타부문에서의 여성의 승진은 제도적, 관례적으로 완전봉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직업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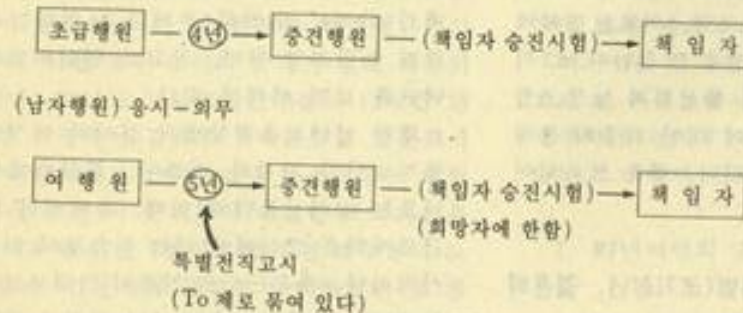
이 측면에 있어서는 극소수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가끔씩 행해지는 교육도 남자직원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내용의 교육(예를 들면 '고객관리와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수시장개척을 위하여' 등)를 받게 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꽃꽂이 강좌', '예절교실', '결혼강좌' 등의 비업무직 성격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은행의 경우 여행원은 해외연수에는 용시조차 못하게 되어 있고 사내에서 행하는 각종의 실무연수교육, 책임자 시험에 대비한 갖가지 연수에서도 열외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되니 실제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행원은 극히 드물다.

여성의 승진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기업이
전체의
33%라 한다.

또한 최근 D 부자금용의 예에서처럼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운동이 활성화 됨에 따라 해외연수나 각종 교육에 여직원을 참가시키는 경우 일정한 근거없이 추천·선발함으로써 여직원간,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여성은 지속적인 훈련을 요하지 않는 단순보조적인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의 실시 자체가 불필요하며 소모적이기까지 하다는(결혼하면 대부분 그만 둘 것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에서 연유한다. 이런 현상은 분리채용과 직무분리를 통해 더욱 가중될 시점에 놓여있고 또 이것은 다시 여성노동력에 대한 무시 및 차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표 7〉 승진에 있어서의 고졸 남녀행원 대비표



(5) 복리후생에 있어서의 차별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는 여성노동자의 장차근속을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적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은행의 경우를 잠깐 보도록 하자.

은행은 타직종에 비해 이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산전·산후 60일휴가, 6개월까지의 육아 휴직(무급), 주택자금의 지급 등 가시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남자행원과 비교해 볼 때 그 차별은 여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근무중 군입대로 인한 입영휴직 기간동안 본봉의 70%를 받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거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출산한 여행원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무급인 것은 고사하고 그 기간이 근무경력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주택자금 및 임차보증금의 대부에서 있어서도 남자는 무주택자로서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무조건 대부되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각종 단서조항, 예를 들면 '결혼후 남편과 사별하고 20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붙어 있어 혜택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 이런 불평등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이나, 면제혜택,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거의 동질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도 사무직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노동조합의 확산에 의해 이들 여성에 대한 각종의 불평등 해소가 주도되어 오고 있어, 계속 보완되어 나갈 전망이다.

(6)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조기정년, 결혼퇴직)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차별적 정년, 해고, 퇴직에 대해서만 유독 별치조항을 둘 정도로, '결혼퇴직',

'조기정년'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가치판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별 마찰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 회사도 많다.

은행은 75년부터의 긴 싸움을 통해 이 문제는 거의 해소하였다(아직 결혼후 계속 근로에 대한 제반 조건—성취감 등의 부족한 업무성격, 내용 등의 해결이 남은 문제이다).

또 얼마전 K 부자금용에서는 한 여직원이 결혼후에도 계속 다닐 의사가 있음을 밝히자 경영주가 그 여직원의 등을 두드리며 "잘 해보라"고 했더니 '결혼퇴직', '조기정년'은 이미 물건너간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구시대 유물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옛날처럼 결혼각서를 받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교묘한 탄압과 회유로 결혼퇴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축적 등의 변칙적인 인사조치로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 또한편의 현실이기도 하다.

얼마전 영남의료원에서는 교환원으로 근무해오던 장영이씨가 만 28세 퇴직이라는 내규로 인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승강기 요원의 20세정년—여자가 20살이 되면 승강기가 오르다가 서기라도 한단 말인가. 김영희씨 사건, 주소너씨 사건, 이경숙씨 사건으로 이미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었던 이 문제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기만 하다. 참고로 영남의료원의 정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시와 여성들의 노동자로서의 자각과 더불어, 회사측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축적제'이다. 축적이란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임시직이다.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므로 퇴직금도 없고, 직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로 행사할 수 없으며 그나마도 '임신전까지'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업주들의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탁아소문제 등 모성보호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표 8) 영남의료원 기능직·고용직 정년표

구분	직류	직종	정년
기능직	1직류	운전기사, 일반시설기능직	55세
고용직	2직류	수위, 경비, 조리사	55세
		의료기사보조원(남), 약제보조원(남), 간호보조수	50세
		전문보조원	35세
3직류	조무수, 의료기사보조수(여), 약제보조수(여), 타자수, 교환원		28세
4직류	조리원		55세
	배선원		28세
5직류	간호보조원(자격유)		28세
6직류	간호보조원(자격무)		28세
7직류	사원, 승강기원		20세

기간동안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기피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J 부자금용이나 일반기업에서 축적제안을 가지고 여성을 설득, 회유하는 사례 등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반적 분위기가 호를 결혼퇴직, 조기정년이 해결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특히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이런 경우 오히려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있다. 87년도 노동조합간부들의 12일간 단식농성 과정에서 결혼후 계속근로를 명문화시킨 H 해상화재보험이나 83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한 H 부자금용 등을 비롯해 87년 7월이후 결성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였던 점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민주노조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여직원의 힘이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다. 어쨌든 사업장내 요구와 더불어 동료와의 단결

사무직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노동조합의 확산에 의해 이들 여성에 대한 각종 불평등의 해소가 주도되어 오고 있다.

된 힘으로, 즉 조직적으로 결혼퇴직문제를 극복했을 경우에는 후유증도 덜하고 회사측의 직·간접적인 탄압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III. 사무직여성노동자의 주체적 대응

앞에서도 간간히 서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직장내의 여성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의 선배들은 오랜동안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왔으며 이에 따라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도 있어 왔다.

특히 87년 6월이후 급속히 진출한 사무직 노동운동과 그에 비례하여 진행된 여성들의 조직화, 의식화, 그리고 문제의 제기 및 해결에의 노력 또한 증폭되어 나타났다.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87년이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자의 권익확보에 대한 노력의 과정과 87년이후 진행된 움직임의 두 시기로 나누고 대략의 경과를 살펴보겠다.

1. 87년이전의 흐름

75년은 '세계 여성의 해'였다. 당시 이것이 큰 내용이나 실효성은 갖지 못했지만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던 여행원에 대한

결혼 각서제를 은행노동조합 여성부장의 모임과 BPW(전문직 여성클럽)를 중심으로 문제로서 제기하고 한국은행장과 재무부 당국에 시정을 요청하는 등 여론화에 노력하여 76년 연초 재무부 훈시에 의해 일단은 형식적으로 해결되는 듯 했고, 같은 해 조흥은행 이명숙씨와 산업은행 노미숙씨가 은행측의 집요한 사표중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 결국 결혼각서제의 벽을 허물었다.

이를 시발로 하며 은행노동조합 여성부장 중심으로 여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은행 및 당국에 요청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부장 추천제의 확립(이전에는 연맹위원장의 지명이었다) 등을 이루어냈고, 이것을 기반으로 증권여행원 채용고시, 전직고시, 책임자승격고시 등을 확보하고, 87년에는 15년 근속여행원 자동전직, 육아휴직확보 등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후 여성노동자의 운동에 큰 힘과 기반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2. 87년 이후의 움직임

87년 노동자의 진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무직 및 관련분야의 노동조합결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매우 고무적인 양상을 띠며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사무직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배경은 60년 이후 생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태받고 있었던 사무직노동자들이 자본의 해외유출로 인한 지속적인 지위하락(경제적, 정치적)과 업무의 전산화에 의한 노동의 단순화, 사무직 노동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직과의 임금격차 감소, 승진의 누적 등 인사불만이 그 하나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열기에 힘입은 바, 그것이 또 하나의 배경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무직 노동자의 조직화(노동조합)를 살펴보면, 제 1 금융권 111개사,

제 2 금융권 52개사, 의료분야 120개사, 언론·방송·신문 24개사, 출판 18개사, 연구전문 33개소, 대학사무직 37개교, 그 외에도 대림산업건설, 삼환기업, 현대건설 등 일반사무직과 백화점, 호텔, 유통 등의 판매서비스직까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특히 조합활동에 있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어서인지 상당히 전진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활동에 여성노동자 문제가 함께 요구되고 노동조합단위의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노조가 중심이 되어 결혼퇴직이 철폐된 곳이 H 부자금융, H 해상화재보험, D 산업건설, D 출판사, N 백화점, 병원 등 노조가 있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남자와 같은 대우(4급 갑)를 받을 수 있는 승급제도를 신설한 H 화재해상보험, '전환고시제'를 도입한 D 부자신탁, 단일호봉제를 채택한 W 출판사, 호봉표작성소위원회에 여성부장을 참여시켜 여직원의 입장을 반영시킨 I 신문사 등 일각에서는 '여용'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민주노조는 여성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난 6월말 "우리의 소원은 정식직원", "우리의 소원은 노조가입"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이틀동안 파업농성을 하여 요구를 관철시킨 G 사 상용사무원(그녀 여성)의 싸움, 사복차림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 G 전선 여직원들, D 증권사의 남녀 동등한 승급시험제도(인사후 8년이 지나면 5급으로 승급)의 신설, 만년 6급별정직에 묶여 있던 여직원을 5급으로 전환, 승급시킨 D 산업건설, 전조합원의 단결로 결혼퇴직제, 승진·승급차별을 철폐한 H 해상화재보험(남녀임금차 100:80→4급을 100:90)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치 여러 곳에서의 싸움과 승리가 있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남녀노동자 모두가 허위의식을 깨고 점차 노동자로서의 자기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

된 것은 아니다. 여성위원장에 대한 남성조합원의 거부반응(J 부자금융, D 증권), 여직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강한 반발(결혼퇴직문제를 둘러싼 J 부자금융의 내부 분란 등) 여성노동자들의 자기문제만의 강한 주장(D 부자신탁), 노동조합을 경제적 측면의 기능만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 등 부작용과 운동초기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또한 있어왔으며, 지금도 많은 경우 이런 내부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조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노동현장내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남성노동자의 문제인 동시에 전노동자의 문제'임과, 남녀노동자의 힘이 하나로 뭉쳐져 조직적인 힘으로 발휘될 때만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남녀의 차이를 이용하여 한 성을 차별하고, 이를 무기로 노동자의 힘을 와해시키려는 자본가의 분열책동을 포기시킬 수 있음을 큰 교훈으로 배울 수 있었다.

IV. 맺는말

이상으로 우리는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구체적인 근로실태는 어떠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혼퇴직제, 승진·승급의 문제, 성별임금격차, 각종 해태 및 교육기회의 제한 등의 모든 문제가 서로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조직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여직원회를 중심으로 여직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고 여성부가 건재한 경우라도 한 단위사업장을 뛰어넘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여직원회를 중심으로
여직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종업종, 타업종등의 전체노동자와 사회단체와의 크고 작은 연대를 이루어나며 그 내에 여성부문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단위사업장 노조와 여성부가 가질 수 있는 한계와 역부족을 극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국 병원 노동조합협의회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현재는 동종업종끼리의 협의체와 연합체가 많이 결성된 바, 그 내의 여성부분의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동일직종노동조합 여성부장 및 여성부위원장모임 등의 진행은 무척 고무적이나(보험, 부자신탁, 부자금융 등) 아직 정보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러나 이런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수행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렇게 될 때야 전취업여성의 조직적 운동 및 여성단체와 연대가 형성되어 직장내 노동조합과 여성운동에 동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행해져야 할 것은 당사자의 노동자로서의 의식제고 및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이다. 아직까지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허위의식 속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지 않은 여성운동, 사무직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제 굳게 서야 할 시점에 놓여있는 사무직 여성노동자 운동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회원모집

연세대학교 잉태편집위원회는
참신하고 의욕적인

88, 89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학기에 한번씩 『잉태』를 발간하고
여성문제와 삶 자체에 대한 많은 토론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힘있는 대학생활을
하고자하는 남녀학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획

연세남학우 의식조사

여성문제에 대한 연세 남학우 의식조사

편집부 마련

연세서베이연구회 도움

이 설문조사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 우리대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1월 14일부터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1. 조사의 대상과 조사방법

표본추출의 과정은 서울캠퍼스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여 단대별로 남학생수에 비례하여 전체 남학생(1만 2천376명)의 12.1%인 1천5백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제대로 수거되지 않음에 따라 842명(전체의 6.8%)만이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와 사회계, 자연계, 동아리로 나누었다. 인문계에는 문과대 학생만이 포함되었고 사회계에는 상경대, 신과대, 사 회대, 법대, 교과대를 포함시켰다. 자연계에는 이과대와 공대, 의·치대를 포함시켰고 동아리에 소속한 학생들은 설문지에 표시한 경우, 동아리로 포함시켰다. 설문지에 자기가 속한 단과대와 동 아리를 모두 썼을 경우에는 동아리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문계 남학생이 117명, 사회계 남 학생이 297명, 자연계 남학생 259명, 동아리 168명이 질문에 응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전체 의 31.1%(262명), 2학년이 27.9%(235명), 3학년이 15.6%(131명), 4학년이 17%(143명)이고 학 년을 표시하지 않아 미분처리된 학생도 8.2%인 69명이나 되었다. 설문 문항에 대한 남학우의 인 식은 다음과 같다.

2. 여성의 문화에 대한 인식

먼저 여성에게 바라는 특질 세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으로 아름답다 (410명)와 이해심이 많다(407명)는 것을 선호했으며 가치관이 올바르다(386명)와 지혜롭다(333 명)는 답안도 많았다. 온화하다(250명)와 명랑하다(237명)도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적했 다. 반면에 지식이 많다, 활동적이다, 진보적이다 등의 문항들은 그 선호도가 현저하게 뒤떨어졌 다. 이것은 계열별로 보아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문계의 경우 진보적인 여성을 다른 계 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했다. 학년별 분포 역시 전체적인 성향과 별 차이 없이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학생이 아직도 「예쁘고 착한 여자」라는 기존의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여성의 음주와 흡연에 관한 인식을 물었다. 여성의 음주에 대해 가장 많은 남학생들이

(366명, 43.5%)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했고, 287명의 학생(34.1%)은 자리에 어 울릴 만큼 한잔만 마시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여성의 음주에 대해 절대 안된다는 남학생이 3.8% (32명)에 불과한 반면, 흡연에 대해서는 32.7%(271명)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에 음주와 흡연은 기호품이므로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의견은 비슷하게 나타났다(각각 18.5%, 19.8%). 특히 동아리 학생들의 경우 여성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 다른 계열의 학생보다 더 개방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32.7%(271명)가 여성의 흡연은 절대 안된다고 했으며, 또한 30.1%(250명)은 인정은 하지만 내 애인이려면 말린다고 하여 62.8%의 많은 학생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표 1>

(표 1) 여성의 흡연에 대하여
(괄호안은 명수)%

계열별	보기 절대 안된 다	기호품이 므로 상관 없다	인정하지만 내 애인이 라면 말린 다	피우되, 결 혼·임신후 에는 끊어 야 한다.
인문계	26.3(30)	28.1(32)	19.3(22)	26.3(30)
사회계	38.1(112)	14.6(43)	34.3(101)	12.9(38)
자연계	34.0(87)	17.6(45)	32.4(83)	15.6(40)
동아리	25.5(42)	26.7(44)	26.7(44)	20.0(33)
전 계	32.7(271)	19.8(164)	30.1(250)	17.0(141)

학년별로 볼 때 특이한 것은 1학년 남학생의 반 정도(44.4%, 115명)가 여성의 흡연을 절대 반 대하는 반면에 3학년 남학생들은 기호품이므로 상관없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32%).

여성이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62.3%의 남학생(511명)이 여성의 직업은 자아실현 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직장을 가져서는 안된다고나 결혼 또는 출산 후에는 그만 두 어야 한다는 부정적 견해는 전체의 24.8%(233명)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 경제의 공동부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실리주의적 의견도 9.1%(75명)가 되었다. <표 2>

(표 2) 여성의 취업에 대하여
(괄호안은 명수)%

	집안살림 만 하는 것 이 좋다	결혼후에 그만두는 여야 한다	출산 후에 그만두는 여야 한다	자아실현 을 위해 필 요하다	가정경제 의 공동부 담을 위해 필요하다
인문계	5.5(6)	3.6(4)	11.8(13)	62.7(69)	16.4(18)
사회계	5.5(16)	8.6(25)	15.4(45)	64.0(187)	6.5(19)
자연계	5.9(19)	12.6(32)	13.0(33)	60.6(154)	7.9(20)
동아리	3.7(6)	4.9(8)	18.4(30)	62.0(101)	11.0(18)
전 계	5.2(43)	8.4(69)	14.8(121)	62.3(511)	9.1(75)

그러면 대졸여성이 취업의사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 에 대한 남학생들의 의식은 어떠한가를 보자. 전체의 44.6%의 남학생(363명)이 잘못된 사회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313명(38.5%)은 현실적으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능력면에서 뒤지기 때문이라는 학생은 6.8%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인식은 줄어 들었다.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학생도 9.8%나 되었다. <표 3>

〈표 3〉 대졸 여성의 취업기회 불평등에 대하여

	능력면에서 뒤지므로	잘못된 사회 인식 때문에	가정과 직장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일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부족
인문계	4.5(5)	49.5(55)	40.5(45)	5.4(6)
사회계	8.6(25)	42.1(123)	38.4(112)	11.0(32)
자연계	6.0(15)	43.8(109)	39.8(99)	10.0(25)
동아리	6.3(10)	47.5(76)	35.6(57)	10.6(17)
전 계	6.8(55)	44.6(363)	38.5(313)	9.8(80)

결혼 후, 여성이 직업을 가져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의 역할 담당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전체의 7%, 556명)가 주로 아내가 하고 남편이 돕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사일은 아내가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진 학생은 53명에 불과했다.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남학생은 23.4%로 194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지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주된 흐름인 것 같다. 또한 친척이나 고용인, 사회기관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20여명의 극소수만이 찬성하여, 여성의 노동과정 참여의 현실적 조건이 되는 제3자를 통한 해결에는 상당히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별로 볼 때 인문계 남학생의 경우 공평하게 나누어한다는 남학생이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33.6%에 달한 것이 특이하다. 학년별로는 아내의 가사일 전담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은 분포를 나타냈고 대신 공평하게 나누어 하는 것이 더 선호되었다. 〈표 4〉

〈표 4-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하여

〈표 4-1〉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하여

계열	아내가 전담	주로 아내가 하고 남편이 돕는다	주로 아내가 하고 아내가 돕는다	공평하게 나누어 한다	타인에게 맡긴다
인문계	8(9)	54.3(63)	0.9(1)	33.6(39)	3.4(4)
사회계	4.8(14)	71.9(210)	0	20.5(60)	2.7(8)
자연계	82(21)	69.5(178)	0.4(1)	19.5(50)	2.3(6)
동아리	5.5(9)	63.6(105)	2.4(4)	27.3(45)	1.2(2)
전 계	6.4(53)		0.7(6)	23.4(194)	2.4(20)

학년	아내가 전담	주로 아내가 하고 남편이 돕는다	주로 아내가 하고 아내가 돕는다	공평하게 나누어 한다	타인에게 맡긴다
1	8.0(21)	72.1(189)	0.8(2)	18.3(48)	0.8(2)
2	4.7(11)	67.2(156)	0.4(1)	23.3(54)	4.3(10)
3	6.3(8)	58.3(74)	1.6(2)	31.5(40)	2.4(3)
4	3.5(5)	69.5(98)	0.7(1)	24.1(34)	2.1(3)
기타*	10.6(7)	59.1(39)	0	27.3(18)	3.0(2)
전 계	6.4(53)	67.0(556)	0.7(6)	23.4(194)	2.4(20)

*학년을 표기하지 않은 학생

3. 성에 대한 인식

우리대학교의 남학생 중에서 40.9%(329명)가 남녀 모두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남자는 상관없으나 여자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견해도 12.7%의 남학생(102명)이 가지고 있었다. 〈표 5〉

〈표 5〉 혼전성경험에 대하여

학년	남녀 모두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	남자는 상관없으나 여자는 꼭 지켜야 한다	여자는 상관없으나 남자는 꼭 지켜야 한다	과거의 일이므로 상관없다	사랑하므로 통수할 수 있다	순결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1	44.7(114)	12.5(32)	0.4(1)	6.7(17)	34.1(87)	1.6(4)
2	39.5(90)	15.4(35)	0.9(2)	9.2(21)	28.1(64)	7.0(16)
3	40.2(51)	7.1(9)	0.8(1)	11.8(15)	27.6(35)	12.6(16)
4	39.7(52)	10.7(14)	0.8(1)	12.2(16)	28.2(37)	8.4(11)
기타*	33.9(21)	19.4(12)	0	8.1(5)	27.4(17)	11.3(7)
전 계	40.9(329)	12.7(102)	0.6(5)	9.2(74)	29.8(240)	6.7(54)

*학년을 표기하지 않은 학생

과거의 일이므로 상관없다(9.2%)는 의견이나, 순결은 전혀 상관이 없다(6.7%)라고 하는 비교적 순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15.9%인데 이런 경향은 인문계와 동아리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에 남자는 상관없지만 여자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자연계의 저학년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순결은 중요시하는 견해가 아직도 지배적이었다. 또한 결혼 후 배우자의 혼외성관계에 대해서는 49%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33.1%가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으나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여 82.1%의 남학생이 혼외성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 15.9%가 개의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인데 비해 혼외성관계에 대해서는 4.1%(34명)만이 자유의사이므로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룬다. 이 견해 역시 저학년의 경우보다는 고학년의 경우에서 더 두드러진다.

성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계열보다 사회·자연계열의 남학생들이 더 보수적이고, 남성이기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동아리에 속한 남학생들은 성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또한 저학년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고학년일수록 개방적이었다.

매춘에 대해서 47%의 많은 학생들(394명)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40.9%의 남학생(329명)은 본능이므로 어쩔 수 없거나,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옹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이것은 남성의 무절제한 성적 욕구의 발산을 정당화하는 미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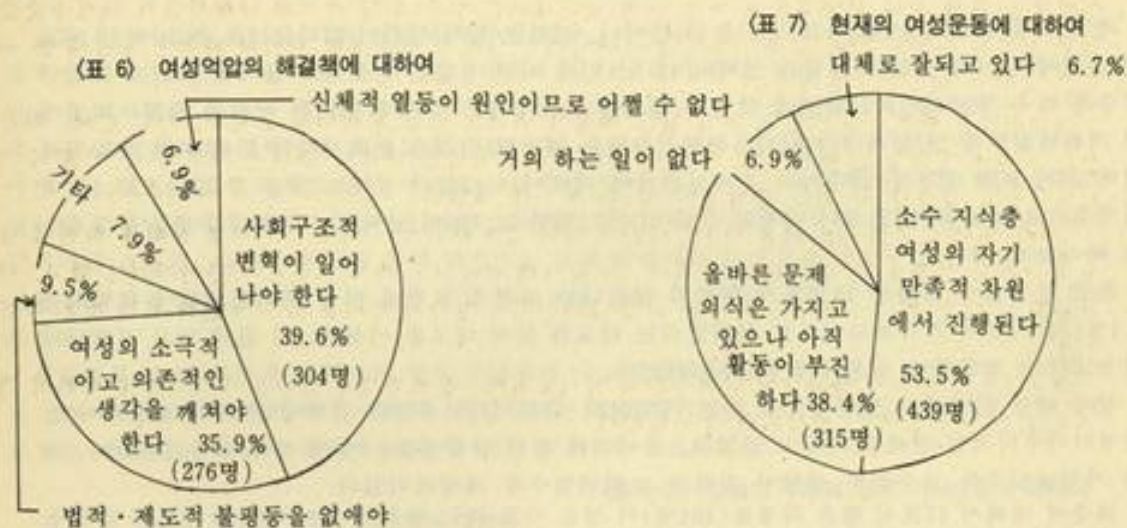
4. 여성 불평등과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남학생이 남성으로서 여성불평등의 존재함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 86.9%의 남학생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9.9%의 남학생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그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전체의 반이 넘었고(430명, 57.1%), 26.4%는 여성의 소극성·의존성 때문임을 지적했으며 법적·제도적 불평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에는 각각 10% 미만의 학생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성 불평등의 원인이 여성의 소극성·의존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남학생이 전체의 1/4이

넘는다는 것이다. 여성은 출생 이래로 '여성다움'이라는 틀에 재단되어 사회화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능동성과 진취성은 개발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여성의 주체적인 의지도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여성불평등의 문제는 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심화되어 왔다.

여성억압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여성의 주체적인 의식개혁과 사회구조적 변혁이 거의 같은 수의 남학생에게 지지받고 있다(각각 35.9%, 39.6%). 이밖에 법적·제도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9.5%가 그렇다고 했고, 신체적 열등이 원인이므로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6.8%나 되었다. <표 6>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여성운동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 남학생의 53.5%는 소수 지식층 여성의 자기만족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38.4%)의 의견은 여성운동이 올바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활동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대체로 잘되고 있다는 학생은 각각 6.9%와 6.7%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7>

설문의 조사대상이 협소하여, 이 결과가 모든 남학생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계열별, 학년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분포를 볼때, 남학생의 의견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여성 불평등과 이의 해결에 대해서 1/3에 해당하는 적지않은 남학생이 여성의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을 문제제기한 것은 성차별 모순의 해결주체인 여성으로서 적극적인 의식개혁과 주체적인 실천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여성해방은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생각해 볼때 많은 남학생의 왜곡된 여성상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광범위한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5. 맺으면서

남학우를 대상으로 여성문제를 조사한 것이라 문제를 만들면서 많이 생각했었다. 문항들이 남학우의 감수성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였다. 그래서 문제를 만든 뒤에 예비조사를 하여 문제를 고치기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 문제 내용에 문제(?)가 많음이 나타나 당황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결과분석을 하려 노력하였다.

처음 설문조사를 준비한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대학생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전체 남성들의 의식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해방을 위해 우리 여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우리 주위의 남학생들의 의식수준을 알고 잘못된 부분을 같이 고쳐나가는 것이 아닐까? 남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의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이 주체로 떨쳐 일어서야 하지만, 이로 인해,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남성도 함께 일어서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이를 우리 남학우들도 공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서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엔,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남·녀학우가 서로 상의를 하면서 답을 하다가는 연정을 벌이게 된 일이 있다. 각 동아리 방에서는 즉석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 결과를 다 읽은 우리 여학우들은 지금 당장 남자친구를 찾아가 조사를 하고 토론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끝까지 답해주신 남학우들께 감사드리며, 결과분석에 도움을 주신 <연세 서베이 연구회>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지

연세 남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잉태 편집부에서 마련한 여성문제에 대한 연세 남학우의 의식조사입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설문지의 결과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여학생회지 잉태 2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속: (과와 씨클
학년:)

1. 여성에게 바라는 특질을 세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1) 침착하다 | 2) 지식이 많다 |
| 3) 명랑하다 | 4) 아름답다 |
| 5) 활동적이다 | 6) 용기있다 |
| 7) 통솔력이 있다 | 8) 진보적이다 |
| 9) 가치관이 올바르다 | 10) 유머가 있다 |
| 11) 온화하다 | 12) 성취욕이 강하다 |
| 13) 이해심이 많다 | 14) 지혜롭다 |
| 15) 기타() | |

2. 여성의 음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절대안된다 | 3) 취하지 않을만큼 마시는 것이 좋다 |
| 2) 기호품이므로 상관없다 | |
| 4) 자리에 어울릴만큼 한잔만 마시는 것이 좋다. | |

3. 여성의 흡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절대안된다 | 3) 인정은 하지만 내 내인이라면 말린다 |
| 2) 기호품이므로 상관없다 | 4) 피우되 임신이나 결혼후는 끊어야 한다 |

4. 여성이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
- 2) 직장을 갖는 것은 좋으나 결혼 후에는 그만 두어야 한다.
- 3) 결혼후라도 좋으나 출산후에는 그만 두어야 한다.
- 4) 직장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 5) 직장은 가정경제의 공동부담을 위해 필요하다.

5. 대학을 졸업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능력면에서 뒤지므로 | 2) 잘못된 사회인식 때문에 |
| 3) 현실적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 |
| 4)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 |

6. 혼전 성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남녀 모두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 | 2) 남자는 상관없으나 여자는 지켜야 한다. |
| 3) 여자는 상관없으나 남자는 지켜야 한다 | 4) 과거의 일이므로 상관없다 |
| 5) 사랑하므로 용서할 수 있다 | 6) 순결은 전혀 상관이 없다 |

7. 결혼후 배우자가 혼외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양성 모두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 2) 남자는 가능하나 여자는 안된다 |
| 3) 여자는 가능하나 남자는 안된다 | 4) 자유의사이므로 상관없다 |
| 5)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으나 이해할 수도 있다. | |
| 6) 기타() | |

8. 당신은 '매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자연스러운 본능이므로 어쩔 수 없다
- 2) 강간등 사회문제를 막기위해 필요하다
- 3)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 4) 기타()

9. 결혼후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가사 노동과 육아를 어떻게 하실 생각하십니까?

- | | |
|------------------------------|----------------------|
| 1) 가사일은 아내가 해야 한다 | 2) 주로 아내가 하고 남편이 돕는다 |
| 3) 주로 남편이 하고 아내가 돕는다 | 4) 공평하게 나누어 한다 |
| 5) 타인에게 맡긴다(친척, 고용인, 사회기관 등) | |

10. 당신은 여성 불평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 | | |
|-------|--------|
| 1) 예 | 2) 아니오 |
| 3) 기타 | |

11. 여성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태어날때부터 여성은 신체적으로 열등하기 때문 | |
| 2) 법적 제도적 불평등 때문 | 3) 여성의 소극성 의존성 때문 |
| 4) 사회구조적 문제이다(구체적으로:) | |

1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하는 일이 없다
- 2) 소수지식층 여성의 자기 만족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 3) 올바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활동이 부진하다
- 4) 대체로 잘 되고 있다

13. 여성의 억압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신체적 열등이 원인이므로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
- 2) 법적, 제도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 3) 여성의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생각을 깨쳐야 한다
- 4) 사회 구조적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 5) 기타()

여성정치인-

박영숙님과 함께



정치는 우리의 생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 하지만 그 역량상 미숙성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바로서기엔 매우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하며, 실제로 여성의 정치참여수는 상당히 적고 참여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과 정치〉 가히 그 어려운 두 부분의 결합이라고나 할까. 우리 편집부는 여성정치인으로 알려진 박영숙씨. 지금은 평민당 부총재로서 소신껏 정치활동을 하고 계신 그분을 만나 정치에 관해 여성운동에 관해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기로 계획했다.

제 5 공화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도중이라 박영숙씨를 만나기는 꽤나 어려웠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려는 의도가 욕심이라든가 되는 듯 빠듯하게 낸 시간은 아침 7시회의와 지역감정특위가 열리기전까지의 아주 짧은 동안이었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이라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성실히 답변해 줄테니 걱정말아요.” 평안도 사투리 억양을 담은 웃음쉬인 말씨는 질문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여성정치인이래야 얼마되지 않아요. 내가 속한 당엔 당중진으로 부총재 한명. 그밖에 당직으로 여성국장·부국장, 환경국장, 여성특위위원장, 대외협력부위원장, 지구당위원장 등 실무직은 한 십여명 정도고 초당적으론 당중진에 있는 사람이 아홉(?)명쯤 되지요.”

정당의 부총재로서 뿐만 아니라 당내여성국 활동·기타 사회여성단체의 활동에의 참여등 적극적인 땅에 홀로선 개척자의 역할을 담당한 박의원의 활동은 대단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대정부질문자로서 박영숙씨의 모습을 보면서 야당의 여성국회의원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 있

다.

“정치에 처음부터 뜻이 있어서 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평민당에서 여성계로 여성정치인 추천의뢰가 왔어요.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문제 입법동의 가능성을 생각했고 그 중 유리한 정당이라는 판단을 했지요. 여성단체 현실상 많은 사람을 낼 수는 없고 나 한사람만 뽑아서 내 보냈지요.” 자발적이라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정당에 들어가기까지 갈등도 많았다고 털어놓는다.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을 한다기보다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일부터 성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박의원은 〈성실한 정치인〉으로 평판이 나 있었고 요사이 가족법등 4개법안을 입안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 차분한 설명을 시작했다.

“첫째는 90여개 단체가 한 30여년 전부터 YWCA중심으로 통과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족법」에 관한 사항이에요. 여기에는 중산층 여성중심운동과 기층여성중심의 운동 2가지 흐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의원들을 설득시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요.

둘째는 「AIDS」예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1차감염경로를 밝히고 있지 않은것이 나, 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격리수용하는 과정에서 판명이 올바른지 불명확한 지에 대해 그러한 것들이 올바를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두는것. 그리고 판명자에 대한 인권·취업문제에 관한 법률도 필요합니다.

셋째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이에요. 아직도 그 피해자가 2만여명이나 되는데 1세대에 대한 피해자 생계보장, 2,3세대까지 장학금지급이나 의료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특수직종 종사자 선대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중간매매자나 미성년 인신매매자에게 철폐가 가해지지 않고 윤락 여성에게만 철폐가 가해지고 있지요. 마약사범

동에 관한 법개정은 아직 연구나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부칙(경과규정)으로 설정해 경과조치규정시행기간으로 삼으려 합니다.”

정치활동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보람있었던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냐는 질문에 “가정주부 역할을 못하면서 겪는 갈등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항상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행동합니다. 지금은 정치일이 우선이고 집안식구들도 성실히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지요. 재야에 있을 때는 외치기만 했지만 원내에서는 입법하는 과정이 포함되니까 거기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을 하다가 그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질문자의 얘기에 “스스로 정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게 된 절실한 계기는 박종철고문치사사건과 성고문사건이었어요. 띠두르고 소리한번 크게 외쳐보지 못했던 내게 그들은 내아들 딸과 같이 다가왔어요.” 박영숙씨에게서 강한 어머니의 모습·인간해방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바라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한마디 덧붙인다. “기존의 정치행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에게서 배워야 할 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보다 국민들의 바람과 좀 더 참신한 생각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성정치인으로서는 여성의 정치무관심현상이나 여성억압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박의원의 답변은 짧고 굵었다.

“이번회기 여성정치인도 모두 전국구라서 문제가 많아요. 여성유권자도 의지나 결집력이 부족해 수준높은 정치인 배출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지요. 양자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다음 국회에는 유권자의 수준, 정치인의 자질이 모두 향상되어서 수준높은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억압은 〈힘이 진리다〉라는 물량적 발전 중시의 사회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여성 자신도 대다수가 안주하고 있고 헌신과 사랑이 가정의 테두리안에만 묶여서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고요. 〈모성의 사회화〉란 말도 나오는데 여성이 지닌 장점을 사회화해서 힘을 결집·지금의 잘못된 사회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여성이 발휘되어야 해요.”

『영태』는 여학생을 위한 글모음지이고 연대 여학생들이 이 글을 통해 박의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선도적이고 의식적으로 개인 학생에 대해서는 선망과 격려 지원하고픈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그러나 대다수의 여학생은 과거여성의 이기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일에 주저앉고 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전반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성차별교육 탓도 크겠고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겠지만 스스로 깨어나야 할 것이예요.” 따듯한 지적을 같이 받는 한 명의 여학우로서 머리를 숙여 새겨들어야 했다.

첫 애인을 만난 것처럼 일련단심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박의원. 국회앞에서 헤어지면서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다. “모두가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때 정치와도 연관되어 잘 되는것이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모두 그것을 명심하고 생활해 줬으면 좋겠어. 정치인 혼자 대표로 정치활동하는 것 가지고는 안돼요.”

서류 봉치를 쓴 보따리를 들고 바빠 국회가 열리고 있는 곳을 향하는 박영숙씨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발길을 돌렸다.

원고모집

잉태논단과 공동연구 공동발표란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내용과 소재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연구실적이라면
무엇이든지 환영합니다.

마감일 : 5월 30일

원고분량 : 원고지 60-100매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분단조국 44년

한반도

- 한반도의 객관정세 · 최성웅
- 88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 · 차영일

짜임글 II를 마련하며

1988년은, 87년 말 대통령 선거 부정의 실패와 민족민주운동세력·내부의 분열로 생긴 어두운 수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한 해였다. 4·26총선거로 다시금 입증된 온 국민의 강렬한 민주화 의지는, 실의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안겨주었고, 이 새로운 힘과 의지를 바탕으로 민족민주운동은 힘찬 전진을 다시 내딛었다.

독자는 여학생회지에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을 실을 필요가 있는가 반문한다. 그런 내용은 다른 책에 많이 있으니, 『인태』에는 다른 내용—여성문제에 관한—을 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바이다.

우리 여성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조국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야만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또한 사랑이 아닐 것이다. 이제, 여성도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굴욕적인 사회 인식을 스스로 깨뜨려야 한다.

먼 옛날, 사적인 소유가 인정되기 시작하고, 왕조 국가가 출현하고, 시민 국가가 건설되면서, 지금까지, 정치·경제·문화 일반을 남성이 장악하여 왔고, 여성은 소외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치와 민주화는 남자들의 일이거나 하는 생각을 여성 스스로 하고 있다. 이것은 깨뜨려져야만 한다. 여성 스스로가 이 땅의 주인으로 서야 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너무도 뿌리 깊은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이 개혁되고 사회 제도 전반이 개정되어야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차별의 해소—여성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짜임글 II는 마련되었다. 첫 글은 88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정세와 그에 연관되어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밝힌 글이다. 둘째 글은 88년 진행된 민족민주운동을 부분별로 평가해 놓은 글이다. 두 글 모두 한정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포괄해 놓은 것이라 그 깊이에 있어서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88년 정세와, 진행된 운동의 흐름을 짚어본다는 의의는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 호에 더 알찬 내용으로 실을 것을 약속하면서 부족하나마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반도의 객관정세

최 성 웅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신데탕트의 세계정세
- III. 동북아 정세
- IV. 한반도 정세
- V. 끝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최근들어 정세를 논함에 있어 포괄하는 범주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한편에 있어 민족민주의 실천적 영역이 민족 자주화와 조국통일의 문제까지 확대, 발전되어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올림픽'이나 '북방정책'에서 보여지듯 한반도정세와 세계정세가 밀접히 연관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정세는 우리에게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게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일차로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한계나 우리의 과학적 인식수준이 저급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외에 실제 세계정세 자체가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한 서방언론은 세가지 특징을 들고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국들에서의 민주화 바람이며 둘째는 시장경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들고 있고 셋째는 군사적 분쟁의 위험이 줄어들고 대신에 경제적인 차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나름대로의 감각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정세를 조정하는 대립되는 세력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세를 조성하고 있는 세 세력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최근 세계정세의 현상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 간의 모순이 해소되는 형태에 있어 평화적인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들간의 관계가 한차례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해명은
한반도 정세와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제3세계 나라들에 있어 민주화운동이 강화되면서 국사통치의 일반적 지배형태가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최근의 세계정세가 보여주는 현상적 특징은 일시적 경향일 수도 있고 장기적 변화의 조짐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과학적 합법칙성에 근거하여 이런 현상의 동인과 본질적 내용 등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해명이 있어야 세계정세와 한반도정세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규명이, 앞서 지적한바 있는 한정된 조건과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다만 객관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세계일반', '동북아', '한반도'라는 포괄범주의 형식적 구분을 기준으로 정세의 내용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분석과 소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한다.

II. 신데탕트의 세계정세

1. 신데탕트의 내용

최근의 세계정세를 일컬어 흔히 신데탕트체라고 한다. '신데탕트'라는 용어는 80년대 초반 미국의 레이건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

한 미국',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등을 부르짖으며 군비확장을 함에 따라 70년대의 데탕트체제가 무너지고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두차례의 미소 정상회담을 거친 후, 1987년 12월 미·소 양국간에 'INF(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이 합의되고 올해 5월 그 조약서가 교환되면서 현실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긴장완화를 의미하는 '신데탕트'체제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간의 경제, 문화학술 등의 교류가 이전보다 확대되어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소 양 군사강대국간의 군축협상은 '데탕트'라는 긴장완화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의 '신데탕트'의 흐름을 조성하는 동인으로서 소련의 평화외교 노선과 서구의 반전반핵 평화운동, 그리고 제3세계나 민중들의 민주화 혹은 민족해방운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데탕트의 핵심적 내용이 미·소간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라고 한다면 신데탕트의 주요한 동인은 소련의 평화외교노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의 평화운동이나 제3세계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소련의 평화외교노선이 신냉전체제로 야기했던 미국의 군축노선을 저지하고 '군축협상'으로 미국을 끌어내어 신데탕트국면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신데탕트'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님을 뜻한다. 70년대 데탕트시기에 베트남전이 있었듯이 신데탕트의 정세에 있어서도 제3세계에서의 내전이나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여지는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신데탕트의 주요동인을 서구의 평화운동이나 제3세계의 민주화운동까지 포함하여 인식할 경우 자칫 현재의 신데탕트는 마치 '전세계적인 평화구조의 정착', '분쟁의 동결'

제3세계의 민주화운동과 서구의 평화운동은 신데탕트국면의 객관적 조건이다.

처럼 이해되어 현실에 맞지않는 환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소련이 평화외교정책을 통해 신데탕트 국면을 창출하는 근거에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체제간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미국의 대응은 외부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군축노선을 포기한 상태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데탕트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일시적인 긴장완화이며 아닐 것인지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의 모순이 평화적 형태로 해소되는 장기적 경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다.

2. 소련의 평화외교정책

소련의 평화외교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 이해하는 것은 신데탕트의 조류가 갖는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85년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으로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의 정책이 표면화되고 소련 공산당의 공식적 정책으로 점차 확립되어 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방의 언론들은 소련의 이같은 움직임은 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국의 정치적 한계에 의한 변화이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도입이라고 떠들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얼마안가서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소련의 평화외교정책은 경제적 부담의 제거와 핵전쟁 위협의 제거에서 나타났다.

인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공산권과의 교역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주님과 평화제스처는 서방 국가들간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일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보도는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으로의 변화는 체제의 변화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주의체제의 발전과 정상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정치적 민주개혁으로서 공산당의 정치적 지도권을 축소하고 대중 스스로의 권한을 높여주는 점이다. 둘째, 서방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미국에 대한 군사전략에 있어 '공세적 방어'에서 '최소한의 방어'로 전환하고 군축을 통한 긴장 완화를 적극화 한다는 점이다.

첫번째, 정치적 민주개혁은 그간의 소련공산당이 지도적 권한에 있어 크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 타성에 의해 대중의 창조성을 발휘시키지 못하여 경제건설에 있어서도 생산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공산당의 권한을 축소·조정하고 대중 스스로 자신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계급모순이 해소된 사회주의국가에 있어 민주주의의 확대는 국가의 기능을 점차 소멸시켜가고 대중의 자주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번째의 경제개방정책은 양 측면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측면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상에서 자본주의국으로부터 자본, 기술을 도입하거나 상품교역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자체의 필요성이며, 다른 한 측면은 새로운 시장과 이용실현을 추구하는 독점자본의 필요성이다. 후자의 측면에

있어 독점자본은 식민지초과이익을 확보할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과잉자본의 새로운 출구로서 가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이 실효성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소련으로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축소하고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에 의한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제거해 간다는 포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세번째, 군축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평화외교정책은 두가지 차원의 필요성에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하나는 군비증강에 의한 경제적 부담의 제거라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다. 흔히들 전자의 필요성이 보다 주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필자의 견해는 후자가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핵전략은 단순한 위협용으로만 그치는게 아니었다. 'SDI계획'이나 '전역 핵전략' 등은 끊임없이 실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80년대 들어서면서 첨단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제적 모순의 격화에 따른 과잉자본의 과잉현상은 군수산업의 경우 전쟁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핵전쟁의 위험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체제간의 대립이 핵전쟁으로 나타날 경우,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증명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체제건 멸망을 의미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평화공존은 불가피한 것이며 역사의 합법적성에 따른 체제 내부의 변화에 의해 체제간의 모

순은 해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제간의 군사적 대립의 위험성을 축소시키고자 진행된 소련의 평화외교정책은 일차로 '최소한의 방어'에 필요한 핵무장 이외의 핵무기는 먼저 폐기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핵무기감축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며, 다음으로 '아프리카 주둔군 철수'처럼 사회주의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한 제3세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쐐기를 박고,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다각적 외교관계를 적극화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지위하락을 더욱 가속화하여 미국의 독자적 행동을 억제시켜 내는 한편 중국과의 화해 등을 통해 사회주의권을 결속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계속되는 미국의 군축노선

소련의 평화외교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단기적으로 끝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중적 모습 때문이다. 미국은 한편에서는 그 지위가 계속 몰락하여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그 지배력을 잃어 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지위가 몰락하는데 대한 위기감에서 그러한지 더욱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지위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과거의 영국을 대신하는 최강대국으로 등장했던 그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직후 IMF와 GATT체제를 통해 세계경제를 지배했던 미국의 경제는 1958년 유럽통화의 교환성이 회복되면서 그 절대적 지배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73년 변동환율제가 채택되면서 달러의 신용도는 무너지고 미국경제의 세계경제에 있어 압도적인 우위는 형식상 종결되었다. 그

미국의 세계적 지위 하락은
군비증강을 통한
지배력 유지와 외압에
의한 군축 동의라는
이중적 태도를 낳았다.

리고 85년도를 경과하면서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였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채무국이 되었다고 해서 세계경제체제의 전반적인 전환이 온 것은 아니다. 미국을 대신할 자본주의국이 등장하지 않는 한,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사용되고 있고 유일하게 자국의 통화로서 채무국이 된 미국은 경제적 파산의 염려는 없는 것이다. 80년대 들어 세계체제의 중요한 변화는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채무국이 되었다는 현상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 있어 과거 자신이 가졌던 지배력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며 미국의 채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의 주요한 원인은 미국의 경제가 79년의 공황을 거치면서 서비스업과 군수첨단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머지 산업에 있어서는 공동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최종소비재와 자본재에 있어서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거나 국내생산에 있어서도 일본의 자본이 합작이나 기타의 형태로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경제체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최대의 채무국의 통화가 국제기축통화로 여전히 작용한다는 것은 세계자본주의의 대단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대신할 자본주의 국가가 없는 상태인만큼 세계경제체제는 결국 몇몇 선진자본주의국을 중심으로한 경제불력화로 이행되게 되었다.

EC는 92년까지 '유럽공동시장'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연화를 중심으로 일본이 '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면서 추진

해 왔고 미국은 캐나다와는 자유무역지대협정(FTA)을 체결한 다음 멕시코를 이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 국제분업체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체제는 불력화되어 가면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 약화로 인한 불안정성을 메우고 있다. 이는 역으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의 약화는 정치적 지배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10월, 소련과 이태리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서독의 콜수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11월에 소련을 방문할 예정이며, 유럽과 소련이 유럽에 있어 재래식 무기의 감축에 대해 협의를 해도 미국이 이에 대해 노골적인 간섭을 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길은 스스로가 주장하듯,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군사력이라는 '힘'에 의한 것 밖에는 없다.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주둔군을 철수하기 힘든 것도 그것이 현재 미국이 세계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축협상에 쉽게 응하기 힘든 것도 미국이 현재 국제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첨단군수산업부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재 상태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소련은 다각적인 외교접촉을 통해 신태평양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며 미국은 신냉전체제를 지속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III. 동북아 정세

1. 한·미·일 삼각동맹

80년대초 일본에 의해 제기된 '태평양공동체'의 구상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결국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축으로 중국과의

한·미·일 관계는
군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분업체제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형성을 통해 소련을 봉쇄하는 아시아전선의 구축으로 결과되었다. 이것은 82년 중국이 '독립외교노선'을 채택하여 미·소동거리외교를 추진함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에 보다 주요한 역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레이건정부의 '동시다발보복전략'이 구상되면서 소련에게는 대단히 위협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으로 하여금 공동방위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여 왔다. 그리하여 일본은 86년을 경과하면서 군사지출비가 GNP의 1%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같은 한·미·일 동맹체제는 소련의 평화외교정책에 의해 잠시 주춤했으나 88년 1월 미국방성의 연구보고서의 '선택적 억지전략'이라 하여, 유럽, 중동, 태평양 등 '세계각지에서 동맹국과의 공동방위요구'와 특히 '우주첨단기술을 구사한 통상전략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아 지역 동맹체로서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미·일관계는 단순히 군사적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분업체제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의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군수 첨단 산업을 맡고 일본이 SDI의 일부에 참여하는 동시에 민수 첨단 산업의 최종 생산을 맡으며 한국이 전통 산업의 일부와 첨단 산업의 부품 생산을 맡아 이를 자유 무역 지대 협정에 의해 교환함으로써 하나의 경제통합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올해 11월 일본의 방위산업체는 미국 군수 산업체와 함께 'SDI'의 일환인 '서태평양 미사일 방위

연구'를 발주했다고 한다.

이렇듯 미국정부는 동북아에 있어 지역동맹체의 구성을 통해, 제정적자의 부담으로 오는 방위비 부담을 한국과 일본의 분담으로 넘기고 자국의 군수첨단산업은 경제 통합체 속에서 이윤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2. 소련의 동북아 평화외교

소련은 86년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시작으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외교적 열세를 극복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평화외교정책을 적극화 하였다. 소련은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비난하고 소련이 태평양국가임을 선언하였다. 이후 소련은 '아시아 비핵지대안'을 제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회의'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평화외교공세를 펼쳤고 87년 12월에는 재차 '아시아 국가회의'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88년 3월에는 '아-태 경제협력 위원회'를 신설하여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88년 9월 '아시아 7개 평화안'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아시아 비핵지대안'에서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핵동결'을 제안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5개국 회의'를 제안하였다.

아-태지역에 있어 한·미·일 삼각동맹을 중심으로한 미국의 대소봉쇄구도를 분쇄하기 위해 소련은 두가지 대응을 하였다. 하나는 중소화해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으로의 유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화해는 '국경문제', '아프간문제', '캄푸치아문제' 등의 3가지 장애요소를 점차 제거하여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고 89년 3월에는 중소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유도는 '시베리아개발에의 참여'를 제시하면서 밀접한 관계의 확보로 나타나고 있다. '시베리아개

소련의 동북아 평화외교는
일·남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매개로 하여
한·미·일 체계에
압박을 줄 것이다.

발 계획안'은 88년 11월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제 발표만 남았다고 한다.

82년 12전대회에서 중국은 '독립자주의외교노선'을 채택하고 미·소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취하게 됨에 따라 미-중-일의 대삼각구도로 소련을 포위하여 봉쇄하려 했던 미국의 구도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이 소련과 가까와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제공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중국이 이제 소련과 사회주의국으로서 우방적 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에 있어 미국의 큰 외교적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과 일본이 소련과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일본의 경우, 다케시다수상은 올 10월에 소련과의 정상회담의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블라디보스톡선언 이후 소련의 동북아에 있어 평화외교정책은 이렇듯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동북아에 있어 군축의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서방 최대의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소련과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하여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소련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일본, 남한과 경제협력의 관계를 지속시켜 가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의 요구를 계속할 것이며 이는 한·미·일의 군사협력체제에 정치적 압박을 주게 될 것이다.

IV. 한반도 정세

1. 통치방식의 변화

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정부는 제3세계에 있어서의 반미운동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카트패트릭 독트린'으로 표현된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입장은 '좌익(반미)보다는 우익(친미)독재가 낫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필리핀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여러나라에 있어 민주화열기가 높아감에 따라 우익(혹은 친미)독재정권에 대한 지지가 결코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익이든 좌익이든 전제주의체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그와 함께 소위 '저강도전쟁전략'이라는 제3세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있어, 민중의 저항에 대한 정부군의 물리적 진압종용, 미국의 군사적 개입, 좌익정권에 있어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 물리력에 의한 협소한 지배방식에서 심리전, 정보공작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총체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중의 저항 정도에 따라 형식적 민주화를 실시하게 하여 저항이 혁명으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제3세계전략은 남한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전 CIA요원으로 활약한 바 있던 공작정치의 명수 '윌리'미대사의 부임은 이런 움직임이 적극화되고 있다는 조짐이었다.

85년 2·12총선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민주화 열기는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어 민주개헌에 대한 요구로 솟구치게 되었다. 한국인의 민주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친미정권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미국이 시도한 것이 이민우구

노정권은
기반 안정화를 위해
북방정책과 대내적인
부분적 개량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으로 표현된 '내각제개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신민당 분당'과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로 무위로 끝났고 호헌조치는 87년 6월항쟁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15일 간에 걸쳐 수백만 국민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주장하며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따라 미국과 전두환정권은 또다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직선제의 수용을 통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민주화열기를 무마시킬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친미정권을 집권시키려면 '야권분열'과 '부정선거' 밖에는 길이 없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정치군부 간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엄청난 금권과 공권력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통해 노태우정권이 집권하게 되었다. 비록 이전의 전두환정권과는 틀리게 폭력적 방식이 아닌 형식상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었지만, 부정선거를 통해서도 36%의 지지를 밖에 얻지 못한 노태우정권은 지지기반이 취약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셈이었다. 더구나 4월총선에서 민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게 되었고 노태우정권은 의회에서조차 기반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반면, 대통령선거에서는 비록 바라던 바를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식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4월총선에서 대중의 민주화외지가 다시금 집약되어 발휘되었듯이 국민들의 민주화열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미 87년 6

월항쟁 그리고 7-9월 노동자투쟁을 겪으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사회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대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태우정권은 전두환정권처럼 노골적인 폭압으로 통치방식을 취할 수 없었다. 특히 1년 후 재선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노태우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지기반을 넓힐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노태우정권은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크게 두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대외관계에 있어의 북방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대내적인 부분적 개량화 조치이다.

2. 노태우의 북방정책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이 일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국과 경제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과의 교역은 비록 제3국을 통한 비공식적인 간접교역이었지만 과거에도 약간은 있어 왔다. 이것이 최근들어 사회주의국들의 개량정책과 맞물리면서 공식적인 직교역과 합작투자까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산권과의 교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의한 한국수출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해주고 상품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베리아개발에의 참여를 마치 중동건설처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주의국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의해 남한과의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투자협정'이나 '이윤보장'을 위한 외교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어서 민간기업의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과 사회주의경제와의 교역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에 의해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어떤 견해는 노태우의 북방정책이 갖는 주요한 내용을 이런 경제적 교류에 두고 이에 의해 한국경제의 독점자본이 상당한 잉여가치를

**북방정책의 의도는
사회주의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한 교차승인에
있다.**

확보할 것이고 이는 개량화의 물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공산권교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잉여를 일일이 예시하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필자의 견해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경제의 당면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해 주는 정도 이상으로 공산권교역이 개량의 물적 기반(그 정도에 논란이 있겠지만)을 확보해 주는 수준까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노태우의 북방정책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인 것이라기 보다 '사회주의국과의 외교관계개선을 통한 교차승인'에 있다고 보여진다. 공산권과의 경제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외교관계의 수립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경제교역의 발전을 통해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함으로써 노태우정권의 국제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북방정책의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들이 노태우정권과 일방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는 남북한 교차승인이 되는 것이다. 교차승인은 미·일·중·소 4대 강국에 의해 이루어지면 되고 남북한 UN동시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두개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태우의 북방정책이 지닌 궁극적 의도인 '교차승인'은 물론 북한에 의해 가장 크게 거부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정부당국의 정통성 여부를 떠나 이는 '한반도의 영구분단화'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반대입장에 의해 소련과 중국도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의 상태에서 '교차승인'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

**개량화 조치의 실시는
80년 이후의 소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주요 동력이다.**

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련과 중국의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관계도 있고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현재 경제교류에 있어서 소련보다 더 많이 남한과 관계를 맺고 있으나 보다 철저하게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면 소련의 경우는 중국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동북아에 있어 중국과 조건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즉 동북아에 있어 소련은 중국과는 달리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체제에 의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수천개가 되는 핵무기가 소련을 향해 있고 해마다 대규모의 군사훈련이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하고 행해지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소련이 '교차승인'을 받아 들일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거나 현격한 핵무기의 감축과 군사훈련의 중지 등에 의해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위협적인 수준 이하로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두개의 한국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어도 북한과 통일에 대한 방안의 합의 없이는 반대할 것이겠지만 말이다.

소련이 현실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이처럼 현 상태의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이며 이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와 대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남쪽에 미국의 안정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고자 제시한 '교차승인'은 그 현실적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역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포기여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자체 한계를 띠는 것이다.

3. 한국경제와 개량의 문제

노태우정권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취하는 또 하나의 정책은 개량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량화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그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 필자가 표현하는 개량화조치는 정치적 통치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적 기반과 연관성을 갖는 의미는 아니고 제도모순이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는 의미는 더욱 아니다. 다만 대중의 정치의식이 고양된 상태에서 정권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행하는 몇가지 조치들, 예를 들어 언론의 부분적 활성화, 평화적 집회에 대한 강제저지의 자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보장 등을 개량화 조치라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지속되는 한 이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란 개량화 조치는 대중의 정치적 요구가 체제를 뒤흔들 정도로 솟구치지 않는 한 철회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조치로 기층민중이 물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경제모순에 의해 민중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상황에의 자발적 대중투쟁은 이 조치를 중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와 개량화조치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개량화의 물적 기반은 어

는 정도가 되는가에 초점이 가 있는 데에 반대하며 정치적 개량화 조치가 봉착하게 될 자발적인 민중의 생존권투쟁은 어떤 한국경제의 모순에서 야기될 것인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두환정권의 폭압적 통치방식은 결코 한국경제의 물적인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며 노태우정권의 개량화조치는 한국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른 잉여의 상대적 축적에 의해 나타난 것 또한 아니다. 노태우정권의 개량화 조치를 가져오게 한 동력의 성격은 경제적 모순에 따른 기층민중의 변혁적 요구라기 보다는 80년 민주화의 봄이라는 정치적 경험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소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주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두환정권에서의 나타난 주요한 대중투쟁이 '민주제 개헌의 요구'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주로 '선거'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면에서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7-9월 노동자투쟁조차도 정치적 민주화의 외적 조건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던 것이고 침체한 경제적 모순의 내적 동인이 주요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저현상'에 의한 수출경제의 일시적 호황과 이에 따른 무역수지흑자의 증대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시장개방의 압박'과 '환율절상의 요구'로 인해 이미 판명이 났다. 단순히 외채의 정도를 한국경제의 모순에 대한 지표로 보았던 시각에서만 이것이 하나의 '질적인 변화'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경제의 외채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 발표로는 3백억달러가 넘는 외채는 2백억달러를 넘어서는 해외자산과 상쇄할 때 실제 부채는 90억달러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현지에서 조달한 부채가 계산되지 않았으며 해외자산의 내용에는 중동의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금액이 포함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근의 '산업구조조정'과 '해외시장의 다각화'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내포적

민중의 경제적 압박에 의한 대중투쟁을 개량화 조치를 중지시키고 정권과의 대결들을 낳는다.

발전의 요구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미·일경제의 재변에 따른 요구와 선진국경제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시장개방, 원화절상요구라는 외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층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마시킬 초과잉여가치분을 실현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농가경제의 파탄과 수출중소기업의 도산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전자, 기계, 첨단산업의 부품생산 등으로 중심적인 업종을 전환하고 있는 독점자본의 경우, 주로 미·일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중소기업 도산이나 농가 경제의 파탄으로 전반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일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이루어질 경우,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 미·일경제에 있어 과잉자본의 파괴현상이라고 할 공황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하기로 한다. 다만 향후 1-2년내에 농가경제의 급속한 파탄과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은 예측되는 바, 이에 따른 민중의 경제적 압박은 가중될 것이고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중의 자발적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노태우정권의 개량화 조치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권력과 민중화합의 일대 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4. 올림픽 이후 정치정세

7년 동안,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는 '환상적 구호'로써 하염없이 선전하던 서울올림픽은 그리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끝났다. '평화구역'이니 '정치휴전'이니 하면서 올림픽 기간동안 의식적으로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나 대중의 정치적 집회를 막아야 했다는 것은 올림픽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기대한 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 올림픽은 사상유례 없이 많은 나라에서 참여하고 한국선수들은 세계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지만 보다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선수와 미국 언론인들의 오만한 태도와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는 못된 행각에 의해 빚어진 '반미감정'이었다. 결국 올림픽의 효과는 정권축이 의도한 만큼 나타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올림픽이 끝난 지 몇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도가 온통 국정감사로 쏠리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올림픽이 끝난지 이틀 후인 10월5일부터 20일 간에 걸친 국정감사는 16년만에 처음으로 부활되어 정부기관 5백여개에 대해 실시되었다. 국민들은 20여일간의 국정감사와 이어서 행해지는 청문회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고 5공비리에 대한 격분은 고조되어 갔다. 때맞춰 불기 시작한 청년학생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의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 투쟁'은 88년 들어 가장 성공적인 대중투쟁을 이루었고 대중의 호응은 커져갔다.

이렇듯 '5공비리척결과 전·이부부 구속처벌'에 관한 국민적 여론이 커져가자 민정당과 노태우정권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올림픽의 효과가 적었던 만큼, '5공비리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 것이었다. 사실 '5공비리문제'는 전두환·이순자를 포함한 그 친일축에 대한 처벌이 핵심적인 관심사인 만큼 노태우정권으로서는 취약한

올림픽후 전·이구속처벌에 대한 대중적인 투쟁을 노정권의 정치적 기반 확대의 한계를 드러내 줄 것이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는 자신의 공범자에 대한 처벌의 요구를 명분있게 처리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반면 5공비리를 명분있게 처리한다면 노태우정권으로서는 과거의 이미지를 씻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새롭게 세워졌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국민의 여론을 보면서 전·이의 친일축과 장세동선까지 구속수사하고 10여명의 장관급 인사조치, 그리고 전두환 본인의 사죄, 해명, 재산반납, 낙향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전두환의 자발적 호응을 설득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국 전두환·이순자에 대한 처벌문제를 둘러싸고 민족민주운동을 중심으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여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태우정권의 줄다리기가 정세를 규정하는 측면이 되었고 야권은 처벌에 있어서 정치적 해결로 합의하려 했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적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V. 끝내는 말

이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세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상의 정세 동향의 흐름을 보건대 향후 한반도의 정세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는, 교차승인을 둘러싼 남북한관계의 문제이다. 앞서 보았듯이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

의 궁극적 의도인 '교차승인'은 일차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완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은 7·7선언, 국회연설, UN연설 등을 통해 공산권과의 교류 및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군사적 문제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이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는 당장에 어렵다고 보여지며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의 경제교류의 차원에서 머물 것 같다. 더욱이 최근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제의와 미국의 북한경제조치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미·일의 영구분단을 모라고 비난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북아에 있어 군축협상의 용의를 보이지 않는 한 노태우의 북방정책은 경제교류 외에는 정치 선전의 차원에서 머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는, '5공비리'와 관련한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의 문제와 한국경제와 관련한 개량적 조치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5공비리'에 관한 노태우정권의 처리는 전두환 측근 세력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척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솟구치는 대중의 '전·이처별요구'를 받아들이는 선까지는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5공비리 청산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재신임의 형식은 보다 안전한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며 정치적 기반의 확대는 계속 한계를 보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야권과의 보수연정에 관한 구도가 다시 등장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업경제의 파탄과 중소기업도산에 따른 민중들의 경제적 불만의 표출에 의한 압박이 장기적으로 볼 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개량화 조치에 가장 큰 부담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될수록 북방정책의 실현 또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오히려 북방정책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의 완화는 대중투쟁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대시킬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정세의 변화는 한국 민중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서 글을 맺는다.

88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

차 영 일(민청련 회원)

—차 례—

1. 노동운동
2. 농민운동
3. 청년학생 운동
4. 연합 운동에 대한 평가

87년의 정치적 격변기를 감동과 실의 속에서 보내고 88년을 맞이했던 민족민주운동은 패배감과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 단결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내적으로 단결을 도모하고 승리의 관점을 세우는 데 노력을 경주했던 88년의 민족민주운동은 투쟁과 조직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첫째, 4·19혁명 이래 새로운 통일운동의 불길을 지닌 상반기 조국통일촉진투쟁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의 자주, 민주, 통일의 대의를 실천적으로 확립했다는 것과 둘째,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광범한 자발적 대중투쟁의 성장과 그 성과로서의 다양한 자주적 대중조직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88년 한 해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에 있어 뜻 깊은 해였다고 할 수 있다. 88년,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 앞서 이처럼 전체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이유는 이하의 평가와 반성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로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부문과 지역에 따라 운동의 발전 정도나 폭이 불균등하고 복잡다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된 지면과 다루어야 할 운동영역의 방대함에 의해 이 글은 몇가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을 사전에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이 지닌 한계는 첫째, 각 부문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일관성이 없거나 개별적 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둘째, 다루는 범주를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학생운동, 그리고 전체적인 연합운동으로 국한하며 기타 빈민운동, 문화운동, 종교운동 등은 생략한다는 점, 셋째, 각 부문운동의 조직을 통한 공식적인 평가와 반성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편적일 수 있다는 점, 넷째, 조직과 투쟁을 중심으로 하며 정치노선이나 정세인식상의 쟁점이나 차이에 관해서는 가급적 회피했다는 점이다.

이상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보기 바란다.

1. 노동운동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7~9월 노동투쟁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이 80년, 5·17을 거치면서 파쇼적 탄압을 받게 되어 82년 원봉노조를 끝으로 각개격파 당하게 됨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나 노동운동은 사실상 절멸되었다. 원래부터 한계를 갖고 있던 한국노총은 80년 5월, '노총민주화'라는 내부변화를 부분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으나 5·17쿠데타와 이후 계엄당국의 평화조치 등으로 노총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모두 숙청되고 '노총'은 그야말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국보위'에 의해 개악된 노동악법은 산업별 노조를 해체시키고 '단위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만 인정'함에 따라 노총의 힘은 거의 상실되었고 '제3자 개입금지'에 의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80년 이후, 전두환정권 하에서의 합법적 노동운동의 조건은 이와 같이 열악한 상태였다. 한편 5·17이후 정치적 상황은 파쇼적 강압이 지배적으로 행해졌던 시기였지만 이 시기 청년학생운동은 암흑기의 상황을 돌파해 내면서 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을 계속 기해 왔다. 80년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학생운동의 과학적 이론은 심화되어 갔고 양산되어 나오는 진보적 의식의 학생운동 출신자들은 대거 노동현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사회변혁의 기본동력으로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면서부터 이러한 움직임은 주요하게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83,4년을 전후하면서부터 지식인 출신의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소규모비합법 씨를 중심으로 전개한 이들의 노동운동은 85년 '대우자동차 파업', '구로동

맹파업' 등 팔복한 투쟁과 성과를 보였고 85년 하반기에는 '서노련'과 같이 씨를의 수준을 넘어 조직운동으로까지 발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노선 상의 차이에 의한 분파성과 정권의 탄압에 의해 광범한 노동대중을 지도해내지 못한 가운데 조직이 파괴되고 개별화 되어 갔으며 많은 지식인 출신 노동운동가들은 현장에서 탈락되어 나오거나 노동대중 속에 개인, 혹은 소그룹형태로 산개하게 되었다.

87년 7~9월 노동투쟁은 바로 이러한 노동운동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 졌다. 6월 항쟁으로 솟구친 광범한 민주화투쟁이 6·29라는 기만적 유화조치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갈 때, 7월 5일 현대연진 노동조합 결성식으로부터 시작된 7~9월 노동투쟁은 전국에 걸쳐 2백여 만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3천2백여 건의 노동쟁의를 발생시키면서 광범하게 터져 나와 6·29이후의 정국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7~9월 노동투쟁은 경제적 위기의 심화에 따른 생존조건에 대한 열악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 6월항쟁 이후의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따라 그간 억눌렸던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표출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비록 요구의 수준은 정치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결성',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이라는 경제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투쟁의 중심이 '대기업 노동자'이고 '남성' 중심의 사업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점 등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 단결과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한 노동대중의 지각이 급격히 앙양되었으며 투쟁을 위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88년의 노동운동은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에 있어 주체역량의 전반적 변화, 발전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투쟁의 과정과 특징

88년 노동투쟁은 서울의 메스텍 위장폐업

상반기

조국통일촉진투쟁은

민족민주운동의

자주·민주·통일의 대의를

실천적으로 확립시켰다.

철회투쟁에서 시작하여 울산의 현대연진 노조 탄압에 대한 연대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투쟁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4~6월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7월 현재 1295건의 쟁의 중 4월에 226건, 5월에 410건, 6월에 280건이 발생한 사실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투쟁의 이슈는 '임금인상'이 57.1%로 가장 많고 '단체협약'이 14.6%로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전체 투쟁의 83%가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올 해의 투쟁은 작년 7~9월 투쟁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투쟁을 보면 6월 27일 현재 천명 이상의 사업체에서 87건이 발생하여 전체 발생건수에서는 비율이 작지만 대기업의 총 사업체 수에서 비교해 보면 25.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작년 7~9월 노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개된 올 해 노동투쟁은 임무를 중심으로 7~8월까지 지속되다가 올림피기간의 평화구역설정에 따라 상당부분 격감되게 된다. 그리고 10월에 들어서면서 정기국회가 개최됨에 따라 이에 맞춰 노동운동단체와 지역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노동법개정투쟁'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외에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자정치씨를 동의 조직들은 '메스텍', '현대연진' 등에서의 노조지원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메이대

이 투쟁', '구속노동자 석방촉구투쟁', '방위 산업체 지정 반대투쟁', '노동자통일선봉대 구성과 조국통일촉진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경과한 88년 노동투쟁은 다음의 몇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작년 7~9월 투쟁의 성과를 재정립해 갔던 투쟁이었다는 점이다. 즉 작년 7~9월 투쟁 이래 1700여개의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88년 투쟁을 거치면서 각 노조의 역할들이 재점검되게 되었다. 이는 투쟁과정에서 노조집행부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고, 노조가 강화되거나 혹은 약화되면서 이루어 졌다.

둘째, 투쟁의 전술이 다양화 되어 갔다는 점이다. 작년의 경우는 '노조'라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의 투쟁이었고 일시적이고 폭발적인 투쟁이어서 농성, 가두투쟁으로 이어지면서 격한 양상을 보였는데 반해 올해는 많은 경우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었고 작년의 투쟁경험이 있어서 역량에 따라 투쟁의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준법투쟁과 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투쟁을 세련되게 배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냉각기간 동안 공동외출, 공동식사 등) 그렇지만 언론의 공세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시위나 가두투쟁을 의식적으로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투쟁으로 포괄하는 내용의 폭이 커졌다는 점이다. 즉 투쟁의 주요한 내용은 '임금 인상요구'였지만, 이외에 '문송면군의 죽음', '안양 그린힐 참사' 등에서 나타난 '산업재해 문제', 리비아, 이란 등지에 나가있는 '해외 건설 근로자 문제', '구사대의 폭력'과 같은 '노동운동단합문제' 등 이전에는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 전반에 걸쳐 정당한 권리의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넷째, 정권과 자본가측의 노동운동에 대한 합법적 탄압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자본가측의 합법적 대응은 주로 '직장폐쇄'와 '파업기간 임금 미지급'

의 형태였고 정권측에서는 '71개 주요 방위산업체'를 지정하고 여기에 속하는 사업장에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물론 자본측의 일반적 대응이 이런 식만은 아니었다. 아직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구사대의 폭력, 부당해고, 단체교섭의 지연 및 기피 등 부당노동행위였으며 때로는 현대연진의 '칼빈소 총사건'이나 보양산업의 '가스총 사용' 성남에서의 '권총난사' 등 무장대응의 형태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올해의 노동투쟁은 투쟁주체로서 노동조합이 중심을 이루었고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투쟁경험을 쌓게 하였으며 자신들에게 부당한 모든 문제를 투쟁을 통해 제기하는 전반적인 권리의식의 양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2) 조직의 확대와 문제점

87년의 급격한 신규노조의 증가에 이어서 88년에도 신규노조가 계속 증가하였다. 88년에 새롭게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은 5월말 현재 757개로 예년의 4~5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결성의 확대추세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결과 조직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88년 노동운동에 있어 조직의 확대, 강화는 비단 신규노조의 증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직의 강화, 발전은 다음의 몇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노조협의회 결성을 들 수 있다. 87년, 12월의 전북민주노조연합회와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회 출범을 시발로 서울, 인천, 성남, 부산, 구미, 울산 등 민주노조들이 지역차원에서 노조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위노조를 넘어서는 지역연대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둘째, 업종별 노조연합의 결성을 들 수가 있다. 전국병원노조협의회, 연구전문기관노조협의회, 언론사노조협의회, 그리고 자유금융노조연합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제조

올해의 노동투쟁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투쟁경험을 쌓았으며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권리의식 양상을 가져왔다.

업에서 산업별 노조연합의 구성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지만 업종별 노조연합의 결성은 경제적 결속력의 증대에 있어 유효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런 업종별 노조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기반으로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생산직노동자 외에 사무직, 기술·연구직, 판매서비스직에서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인식이 높아져 간 배경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지역노조의 결성을 들 수가 있다. 합법성쟁취를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 온 청계피복노조가 신고필증을 받게 되면서 서울제화공노조, 인천의 협진협동화노조, 서울남부지역 기계금속노조 등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지역차원에서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외에 현대, 대우, 대림 등 재벌그룹에 있어서 그룹별 노조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산업재해노동자연맹과 같은 조직이 결성되어 노동자의 삶 전반에 걸쳐 권익을 보장받으려 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처럼 투쟁의 성과를 다양하게 조직의 강화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내실있게 전개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고 현재 한국노총에 형식적이거나 소속된 단위노조의 수와 조직원의 숫자에 비해 민주노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조의 수는 매우 적다는 양적인 차원에서의 현상적 비교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 이보다 큰 문제점은 민주노조로서 조직을 결성하였지만 일상적으로 조직원들을 교육, 훈련하고 이들의 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신규노조들이라서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원인도 있겠지만 노조간부의 노동운동가로서 보다 철저한 자세가 부족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치의식이 높은 노동운동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현재 노동운동에는 자발적인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이외

에 다양한 노동운동단체와 정치세력들이 있다. 이들 조직들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지역별 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상 통합일 뿐 내용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대기구로만 역할을 할뿐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운동단체나 세력들은 별도로 노조들과 연관을 갖거나 가지려고 한다. 이런 상태는 노조중심의 단일한 대중조직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정치적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노조협의회와 노동운동단체들은 하반기 들어 노동법개정투쟁에 총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이 다시 한번 있을 것 같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의 노동법개정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조건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조직강화에 있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개정이 저절로 조직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을 줄을 주지해야 한다.

(3) 총괄평가

87년 7~9월 노동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이 땅의 노동자계급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변혁의 기본 동력으로 등장하였다. 88년 노동운동은 이러한 87년 노동투쟁의 연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조를 확대·강화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88년 노동운동에 대해 간략히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자.

88년 노동운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 노조협의회'의 구성에 있을 것이다. 87, 88년을 거치면서 노동대중의 권리의식은 급격히 고양되었고 이로 인해 무수한 신규단위노조들이 생겨 났다. '지역별 노조협의회'(이하 지노협)는 단위노조를 뛰어 넘는 노동자계급 내의 연대의식에 기초하는 만큼 이는 노동자들의 한 단계 높은 의식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노협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지역별의 구성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연대사업과 강력한 경제투쟁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의 연대사업을 보아도 '문화행사'나 '노동법개정투쟁'으로서 아주 정서적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법개정'과 같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높은 투쟁이었다. 물론 강력한 산업별 조직을 결성하려면 현재의 단위노조 중심의 형태를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의 변화와 조직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에 조직의 변화를 기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지역별 형태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의 문제점으로 현재 지노협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수가 적다는 점과 강력한 지도력의 단위노조가 중심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역별의 경우 강력한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주위에 여타 노조들이 포진하는 형태를 띠어야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하며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대기업의 노조집행부가 어용화되는 경향이 있어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가되어야 할 점은 노동운동의 확대라는 점이다. 사무직, 기술·연구직, 판매서비스직 등 임금받는 모든 근로대중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고무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적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고히 노동운동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노동운동의 영역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 노동자계급의식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대중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 조직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투쟁으로 결집해내는 문제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즉 전위조직이 아니면 별도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에서부터 현재의 정치적 대중조직이 노동자의 대중조직을 지도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관해 정치적 의식이 높은 활동가 내부에서도 통일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분명 현재의 노동조합이 정치적 투쟁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조직의 지도성은 그 조직의 실천성에 의해 확보되는 문제이며 해야 할 역할은 현 시기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과제 속에서 설정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88년 노동운동은 광범한 노동대중이 직장민주화에서부터 사회민주화로의 의식을 각성하면서 전체 변혁운동의 주력으로서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한 초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사회경제적 모순의 심화과정에 따른 각성된 노동대중의 급격한 진출이 예고되고 있다.

2. 농민운동

농민운동은 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서 그리고 노동운동과 함께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80년대 들어서면서 농업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농민의 생존권이 광범하게 박탈당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농업경제의 파탄은 첫째

노동자계급내의
연대의식에 기초한
지역별노조협의회가 구성되어
노동운동의 일 성장을
보여주었다.

80년대 들어서 정권측이 '개방농정'과 같은 독점자본을 위한 농업정책 외에는 농민의 생존권을 확보해 주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과 둘째,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농민의 피해에 의한 것이다. 지난 6월 8일,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농어촌개발과 구조개선방향'의 내용을 보면 '농업은 몰락해 가는 사양산업이며 국가경제발전에 비추어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보아도 향후에도 정권차원에서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고려치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업경제의 파탄에 따른 농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85년 7-9월의 '최고기 수입'에 따른 '소싸움'은 전국 30여개 군에서 연인원 2만여명이 넘는 농민들의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었고 이후 농민운동은 대중운동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87년 하반기 농민운동의 방향에 관한 내부논쟁을 거치면서 88년 들어 대중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게 되었다.

여기서는 88년 농민운동에 대해 투쟁내용별 평가와 같으로 조직과 관련한 총괄적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

(1) 수세페지 및 농지개량조합해체투쟁

작년 말 전남, 전북지역에서 시작된 수세거부투쟁은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올해 초 농민투쟁의 서두를 장식했다. 나주, 해남, 순창 등지에서 연인원 1만명에서 3만명까지 동원되어 4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투쟁이 전개되었고 9월에는 마을, 면, 군, 도단위에서 전국단위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대책위는 대중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농민들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밑에서부터 구성되어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세징수는 소작세와 함께 봉건적인 수탈의 대표적인 사안으로서 농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현재 840여개 농조지구에 약 80만명(가족포함하면 400만)의 농민이 조합원으로 되

어 있어 수세의 부담을 안고 있다. 87년 말 수세거부투쟁이 커져가자 88년에는 10a 당 10kg 일률적용을 하여 수세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농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88년 추수기가 되면서 수세징수철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40여개 군에서는 '수세폐지', '농조해체', '수리청신설', '적립금 반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걸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 농산물가격보장투쟁

외국농축산물수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 낙농업자, 축산업자들의 '수입개방반대시위'가 올해 상반기 '과천종합청사'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몇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고 지방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양담배 수입'에 따른 업초농가들의 피해가 고추값하락으로 터져나오면서 경북의 안동, 봉화, 청송 등지에서 수만명이 동원된 투쟁으로 불붙었다. 그리고 '고추'를 중심으로 '수입개방반대투쟁'은 '농산물가격받기투쟁'으로 연결되면서 한층 발전된 투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농산물가격보장투쟁'은 정부의 추곡가 결정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쌀값보장의 요구'가 중심적인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정부의 저농산물가격정책에 의한 '비싼 비료, 싼 농산물'이라는 가격구조에 의해 농가부채는 늘어났고 농민들의 부담은 날로 커져갔다. 그런 상태에서 6백여가치가 넘는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게 됨에 따라 그나마 쌀농사의 손해를 대체해보려고 지은 농민들의 몇 안되는

상품작물은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조차 나오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저임금을 위한 저농산물가격정책이 이제는 외국농산물수입에 따라 더욱 가속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각종 농산물 재값 받기 투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민들의 토지문제와 함께 농민운동이 풀어야 할 2대 과제라고 하겠다.

(3) 토지무상양도투쟁

올 해 들어 토지관련 투쟁이 커져가고 있으며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평택군 평성읍의 토지양도투쟁', '부안군 대토보상투쟁', '서산군 현대 간척지투쟁', '해미면 공군비행기지 설치 반대투쟁' '영암읍 학파농장 소유권쟁취 및 소작료거부투쟁' 등 5월 이후 토지관련 투쟁이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토지관련투쟁을 보면 첫째, 요구조건이 무상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띄며 투쟁양태도 경운기동원, 무석전, 지주에 대한 규탄시위 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점과 둘째, 지소작관계에 따른 분쟁은 빈농을 중심으로 보다 강고한 조직적 대항이 있었고(평택, 서산, 영암 등), 자본의 토지수탈 저지 및 토지수호투쟁은 지역대중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전개(서산, 해미, 제주)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토지무상양도 전국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투쟁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가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런 토지관련문제는 토지문제에 관한 민족민주운동 내부의 보다 깊은 연구와 통일된 전선의 정립이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4) 각종 악법 개폐 투쟁

88년 초부터 각 군 단위에서 의료보험제도 개선투쟁이 농민대중의 자발적인 보험료납부 거부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군단위 대책위 결성과 서명운동, 보험료고지서 반납대회, 의료보험조합 해체투쟁 등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6월 28일 농민, 도시빈민, 의료인들이 연대하여 '전국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농·어·민과 도시빈민을 수탈하는 현행 조합방식 의료보험을 해체하고 국민 모두의 통합일원화된 의료보험제도 정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 외에도 농협의 '임시조치법', '토지임대차 관리법' 등 개선되어야 할 법이나 제도가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노동법개정운동과 함께 농민악법폐기투쟁으로 전체 국민과 함께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5) 총괄적 평가와 조직적 통일의 방향

현재 농민운동조직으로는 카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전국농민협회 등 3개단체가 있으며 이들 조직은 전국에 걸쳐 80여개군에 군단위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운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은 군단위의 통일된 대중조직이며 이 속에서 지도·대중노선의 올바른 결합이야말로 향후 농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군단위의 통일된 대중조직의 형성은 나주군의 농민회처럼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농민회를 형성하는 모습을 띄기도 하고 충북지역처럼 군단위를 중심으로 기농, 가농, 전농의 조직이 통합되어 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88년 농민투쟁이 대중투쟁으로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군단위투쟁과 전국단위투쟁이 유기적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미흡한 점을 보였다. 이는 군단위의 조직적 통일만이 아니라 전국단위차원에서 3개의 단체가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88년 농민운동은 농업경제의 모순심화와 함께 본격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로 인한 조직적 성과도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투쟁을 기반으로 조직적 통일을 이루어 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농협민주화투쟁과 함께 자주적 대중조직의 결성을 원만농민들을 변혁운동의 대열에 확고히 전취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진다.

3. 청년학생운동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는 대학생중심의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으로서 청년대중운동을 편의상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양자는 청년운동이라는 범주에서 포괄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기 사업의 특성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총괄적 평가를 하지 않고 조직과 투쟁의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1) 학생운동

① 투쟁사업평가

88년 학생운동의 투쟁은 4월의 총선투쟁, 5월의 광주학살원흉처단투쟁, 6월부터 8월까지 조국통일촉진과 공동올림픽 정취투쟁, 9월의 단독올림픽반대투쟁 그리고 10월부터 계속되는 5공비리척결과 전·이구속처벌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만중지원투쟁은 사안에 따라 일상적으로 지역, 지구별로 전개되었다.

총선시기의 투쟁은 일차로 야당의 통합촉진운동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나 이것이 실패함에 따라 후보와 결합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었고 최소한의 합의로써 '반민정당투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5월투쟁은 총선시기 대중의 자발적 투쟁의 결과로서 형성된 '여소야대'라는 유리한 정국의 흐름을 타고 형성되었으며 '광주학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대중투쟁을 격발시켜 갔다. 그러나 '광주문제'를 중심으로 한 광범한 대중투쟁이 성과있게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투쟁역량의 중심이 6·10남북학생회담을 매개로 한 조국통일촉진투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조국통일촉진투쟁'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군의 '남·북학생체육대회와 국토

군단위의
통일된 대중조직과
그 속에서 지도·대중노선의
올바른 결합이
향후 농민운동의 주요 과제이다.

순례대행진'에 대한 제안에서 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4월 28일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식'을 거치면서 투쟁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6·10남북한 학생회담'과 8월의 국토순례대행진 및 8·15학생회담을 중심으로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었으며 광범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조통촉진투쟁의 일환으로 '공동올림픽정취투쟁'이 7~8월 전개되었으며 9월, 단독올림픽이 확정되자 '단독올림픽반대투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러나 올림픽에 대한 정권측의 대대적인 선전공세와 평화구역설정에 따른 탄압조치로 올림픽기간의 투쟁은 상당히 위축되게 되었다.

이후 10월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국회 5공비리특위와 국정감사활동을 통해 조성된 5공청산과 비리책임자처벌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기반을 허물어 드린다는 방향 하에 '전·이구속처벌투쟁'을 중심적인 투쟁으로 설정하고 투쟁역량을 집중시켜 가게 되었다.

이상의 투쟁과정은 다음의 몇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조국통일촉진투쟁을 선도적으로 제기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자주, 민주, 통일의 대의를 실천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이것이 '광주학살원흉처단투쟁'과 올바르게 결합된 선상에서 제기되지 못하고 분리된 채 제기되어 투쟁의 맥이 끊겨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쟁의 뚜렷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조통촉진투쟁도 '체육회담'

'국토순례대행진'과 같은 정서적 차원에서 머물러 '통일'에 있어 보다 핵심적인 정치, 군사적 문제의 제기가 미흡했으며 대중의 왜곡된 반복, 반공의식의 타파를 위한 사전적 노력이 결여된 관계로 광범한 대중적 호응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둘째, 상반기 조총련투쟁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하반기에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대중의 왜곡된 반복, 반공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일상적으로 광범하게 확산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불가침선언,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철수 등)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면서, 중심적인 투쟁은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전·이구속처벌투쟁'에 맞춰 '체포결사대'를 중심으로 투쟁역량을 집중시켰다는 점은 대중의 요구에 기반하며 정세에 조응하는 투쟁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대중의 공분이 높아져 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광범한 대중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고 노태우정권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지만 '전·이구속처벌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두환정권의 연장으로서 노태우정권의 본질을 밝히고 이에 의해 노정권의 기반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던 만큼, 전·이구속처벌투쟁과 함께 공범자인 노태우에 대한 의식적인 공격이 병행되어야 했다. 이는 '12·12루테타', '광주학살',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요구를 부각시키면서 이루어 질 수 있었으리라 보는데 하반기 투쟁은 이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88년학생운동의 투쟁은 대통령선거시기투쟁 이후 패배감에서 벗어나 전·이구속처벌투쟁을 매개로 새롭게 대중투쟁을 촉발시키면서 투쟁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운동의 방향을 실천적으로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② 조직사업평가

88년 여름, 제2기 '전대협'이 발족되면서 현재의 조직적 수준을 다음의 몇가지로 자체평가하였다. 첫째, 사상의지적 통일은 대중적인 공유를 확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며 총학생회간부간의 사상의지적 결합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둘째, 정서적 연대의식은 각 단위학교를 넘어서 지구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연대투쟁의 측면에서는 항시적 조직화는 어렵고 계기적 단발적 투쟁의 수준이다. 넷째, 향후 지구대학생협의회의차원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단위 투쟁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국 총학생회 연합'을 건설하는 준비를 촉구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학생운동의 발전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의 학생운동은 87년의 '서대협'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서총련'을 건설하였다. 88년 2월 29일 '학간 연대조직제편위'를 구성하여 서대협의성과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다가 5월 13일 드디어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을 발족하기에 이르며 7월에는 '서울지역 학생연합건설추진위'(서건추)가 '서총련'으로 통합됨에 따라 명실공히 서울지역에서는 단일한 전투적인 '학생대중조직'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항시적인 투쟁조직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10월 28일, 서총련의 지도하에 중단기적 투쟁을 담당하는 '학생투쟁연합'을 발족하였고 상반기 '통일선봉대'와 같은 '전투돌격대'로서 '체포결사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상의 88년 학생운동이 전개한 조직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88년 학생운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총련'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국학생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학생운동이 단일한 조직으로 통일됨으로써 그간 분열된 학생운동의 발전적인 자기변화를 했을 뿐아니라 전체 민족민주운동

88년 학생운동은
운동의 방향을
실천적으로 정립하면서
전·이구속처벌투쟁을 매개로
투쟁의지를 회복해갔다.

의 통일과 단결에 있어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서총련'이라는 조직적 통합이 내부의 모든 견해차이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이란 견해의 차이를 단일한 조직 속에서, 조직의 규율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해소시켜 가려는 노력을 경주하는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직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일한 통합체로서 '서총련'의 건설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10월 중순에 있었던 '서총련 대의원 총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관료적 타성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대학→지구대협→서울지역이라는 종적인 체계는 사실상 기동력을 갖기가 힘들다. 전체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투적 총학생회'가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지만 급격한 정세의 변화에 따른 투쟁의 제기는 '서총련' 전체조직의 가동으로 이루어 지기는 기동력의 한계를 지닌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당면투쟁에 있어 하부대중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간부들이 관료적 타성은 커져가지만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단기적 투쟁체'로서 '학투련'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학투련이 '전체적인 투쟁의 지도체'나, 아니면 '단순한 투쟁돌격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서총련차원에서 결정된 전체적인 투쟁의 방향하에서 대중들에게 투쟁의 의미를 고취하고 일상적으로 그들의 투쟁의지를 불러 일으키며 이에 따라 투쟁의 배열을 적절히 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서총련'과 '전대협'의 향후 조직적 발전에 관해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서총련은 서학련의 건설을 위해 '계열별 조직'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법대, 의대, 교대 등의 차원에서 계열조직들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대협은 전총련의 건설을 위

해 지구차원에서 발전된 지역차원의 연대조직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서총련의 사례를 경험삼아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향후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좀 더 발전된 조직역량을 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 학생대중 전체의 호응과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창조적인 조직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법대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이나 의대의 '통일의료단'과 같은 사례는 매우 좋았다. 이와 같이 계열별조직의 특성과 현 정세와 결부된 내용을 포착하고 그에 따른 창조적인 의식화, 조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열조직의 강화로 귀결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전체적으로 88년 학생운동의 조직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높은 질의 조직건설을 위한 시발이라고 하겠다.

(2) 청년대중운동

88년 들어서면서 청년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 자리잡아 가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학생운동출신의 선진적 지식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수행해 왔던 청년운동이 새롭게 대중운동론을 정립하면서 대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87년의 대선시기를 거치며 청년들의 특성에 따른 일차적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청년대중조직이 다양하게 건설되었다. 그리하여 전국에는 총12개의 청년단체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이들 청년단체의 내용과 수준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노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민청련'과 같은 정치투쟁체로서의 역할을 계속 견지하는 가운데 각 지부를 구성하여 대중운동을 결합하려는 흐름과 '나라사랑청년회'처럼 일상적인 청년대중의 요구에 따른 조직화와 장기적인 정치적 내용의 담보를 기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종교청년단체나 정당청년조직 등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앞서 살핀 일반청년운동에 대한 평가만 간략히 하는 것으로 한다.

첫째, 청년대중조직화에 있어 아직 조직방식의 전형이 창출되어 있지 못하다. 대체로 지역별, 직업별, 취미별 조직체계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단체의 성격에 따라 중심되는 체계는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학교'개설과 같은 교육사업을 통해 조직화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하튼 대중조직화의 방도에 있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대중운동으로서의 청년운동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청년의 일차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대중조직의 경우, 정치적 내용성을 어떻게 담보해 내는가와 관련적인 문제로 놓여지고 있다. 이는 청년의 진취적 특성을 실천적으로 구현시켜 내는 문제인 것이다.

셋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청년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정립되려면 조직화의 중심은 근로청년에 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런 근로청년을 조직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청년운동과 계급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료한 정리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88년의 청년운동은 대중운동으로 전화되는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당면한 투쟁에 있어서는 학생운동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대중조직화에 있어서는 모색이라고 하겠다. 향후

실천적인 작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여러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운동론에 있어서도 심화·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청년조직의 전망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당장에는 선전·교육의 연대사업에서부터 실천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4. 연합운동에 대한 평가

지난 대통령선거시기에서의 민족민주운동의 분열은 선거투쟁의 실패라는 사실 보다도 더 큰 문제였다. 사실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된 것은 미국과 정치군부의 부정선거와 야당분열공작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만큼 힘의 관계에 있어 아직은 지배세력의 힘이 우세하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예초부터 민족민주운동의 대의가 한판의 대통령선거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분열은 선거를 둘러싼 투쟁의 결과에서 오는 실패의 충격보다 더욱 크게, 정도 이상으로 민족민주운동에의 악화로 귀결된 것이다. 대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양당은 총선을 통해 재기하고 있고 대통령에 노태우가 당선되었어도 국민대중의 직장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열기는 식지않았건만, 유독 민족민주운동세력만 선거시기투쟁에서 빚어진 분열의 앙금을 씻지 못한 채 스스로 손해보는 분열의 양상을 지속시켜 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적 통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족민주운동이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노력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매시기 당면투쟁을 위한 공동투쟁조직의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지속적인 연합조직체의 건설을 위한 노력이다. 전자는 총선시기의 '반민정당 총선투쟁연합', 5월투쟁의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 그리고 '조국통일촉진투쟁을 위한 민주

현시기 민민운의
통일된 틀형성의 의의는
자발적 대중운동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단체협의회', 10월의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전·이 구속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로 사안별 공동투쟁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작년 말 '서울지역민중운동연합의 준비'를 위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 민중·운동·연합', '서울 민중·운동·연합'의 건설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후 '상설공동투쟁체' 그리고 최근의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하 전국민협)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후자의 문제에 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을 단일한 틀로 묶는 문제에 있어 그 간, 논의는 무성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시기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초기 논의의 쟁점이 민통련을 해체하는가 하지않는가의 문제에 있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외에도 통일된 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많았음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시각 중에 대중적 조직기반이 없는 단체들을 묶어봐야 그게 그게 아니냐는 식의 사고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현재 시기의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된 틀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광범한 대중조직을 묶어서 전선을 형성하려는 수준을 당장에 내오기 위함이 아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커져간 보수야권과 자발적으로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고 그 성과로서 무수히 형성되어가고 있는 대중조직에 대해 민족민주운동은 자신의 대의를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해 갈 것인가? 아직도 보수야권을 견인하여 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자발적 대중운동이 올바르게 모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정치적 방향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는데 말이다. 공개적인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분열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를 위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겠는가? 따라서 시급히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된 틀을 형성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조직적 통일

이 시급히 요청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그 요구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조직의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 통일된 조직적 틀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합의와 이에 대한 책임있는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직적 통일은 아무리 시급히 요청되어도 무의미한 것이다. 대통령선거시기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노선의 차이라기보다 민주적인 합의와 이를 책임 있게 수행하려는 규율의 파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중적 확인과 결의 없이는 곧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협'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사상적 통일은 말이나 이론으로 보장되는게 아니다. 잣구 몇 개의 수정으로 사상이 통일될 수는 없다. 합의와 책임을 수반하는 실천 속에서 그릇된 사상이 배척되고 올바른 사상이 정립되는 과정이 사상적 통일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연합운동이 합의와 책임이 수반되는 가운데 단일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성과있게 진행되려면 각 부문의 조직적 통일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층의 정치적 통합은 하층의 대중적 통합을 기반으로 되어야 힘을 갖는 것이다.

이상으로 88년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많은 영역의 운동이 빠져 있다. 이는 그런 운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그리고 각 운동의 한 해 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누락된 것도 많

을 것이다. 이 평가가 추후 보다 깊이 있는 평가의 참고로서만 가치를 가질 수 있어도 고마울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88년 한 해의 민족민주운동은 분열과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 단결과 승리의 기운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향후 노태우의 개량적 전술은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민족민주운동에게 광범한 대중집속의 조건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함정이기도 함을 잊어서

는 안될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궁극적 내용을 담은 높은 차원의 정치적 문제의 제기를 통해 이념적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구체적 이해에 근거한 대중운동의 역량집중 또한 중요한 것이다. 향후 민족민주운동은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창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는다.

태극기가 바람에 콜록 입니다





골록!

뭐라고 좀 얘기해봐

넌 내심정 알지?

그렇게 침묵만

지키지 말고

뭐라고 좀

얘기해봐

골록!

난 정말 잘부름수 있었다구!

태극기야 골록!

시원하게 한마디 해보라구!

골록 골록



쾅.



퍼펑!

쾅.



보고서

제 목 교수님 레포트

과 목 명 :

담당교수 :

제 출 일 : 198 년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

• 김찬국 부총장

학과 학부 • 조혜정 교수

성명 :

연세의 딸들에게

김 찬 국(연세대학교 부총장)

이번 학기(88년 9월)가 시작될 때 총학생회의 발대식에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간적이 있다. 중앙 도서관 앞 광장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자, 손이 떨리기에 “마이크를 잡으니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서두를 끌어내니, 학생들로부터 웃음이 터져나오고 노래를 불러 달라는 함성이 잇달아 나왔다. 격려사라고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당황했었지만, 대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부르짖고 마이크를 놓았다.

일제 시대부터 일본 군국주의로 학교의 자유가 유린당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후에도 독재 정권의 군사 문화가 대학 캠퍼스를 군화로 짓밟았던 쓰라렸던 과거를 회고하면서 대학인으로서 자유와 진리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이바지해야 한다는 연설이란 권유를 한 것이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각각 임원들을 소개하는 차례가 되었다. 대학의 대자보 문화와 구호 문화가 합해진 외침과 호소가 남녀 학생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자 모여있던 학생들도 공감하는 구호로 회답하였다. 여학생들도 모두 입을 모아 함께 외쳤다. 한국의 민주화를 가로 막는 모든 비리와 불법과 탄압을 고발하고 항의하는 개혁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남녀 공학에서 남학생 주도의 학생 활동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남녀 학생들의 소리와 활동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어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의 여성 해방을 위한 여성 신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신학적 성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동안의 학생 운동에서 수배와 구속등, 수난의 여학생들이 이어져 나온 것을 보면 남녀 학생의 분리가 없이, 용기와 신념을 가진 여학생들이 민주화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80년대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기에 여성, 여학생들의 사회 참여 의지는 곧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와 동등권 쟁취를 비롯한 한국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고난을 당한 권양의 사건은 권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정권이 저지른 가장 파렴치한 인권유린이었다. 권력형 구조악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일으킨 권양의 옥

중 탄원서에는 이런 한 맺힌 고발의 항변이 담겨져 있다.

“저는 저 검은 정권에 의해 단 한 번의 강간을 당한 느낌이었읍니다. 운동하는 이들의 가장 소중한 생명인 정의감과 진실에 대한 순결성을 더럽히려는 저들! 검은 정권이 국민의 진실과 진리를 원하는 함성에 정화될 때까지 저는 끝내 싸울 것이고, 그리고 꼭 그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읍니다.”*

검은 정권의 비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벗겨지고 있지만 위증으로 인해서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연세의 딸들에게 주는 첫 글을 이런 굴어지는 이야기로 쓰게되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 글을 통해 연세의 밝은 역사에서 호흡하는 생기 넘치는 여학생들에게 더 용기와 활기를 북돋아주어, 보람있고 즐거운 학원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사회 의식을 높이고 각기 전공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활발하게 대학 생활에서 얻은 꿈을 실현해 나가는 진정 아름다운 연세의 딸들이 되기를 바란다.

* (우리들의 딸 권양, 민중사, N.C.C. 인권위원회, 1987)

다리 놓는 작업을 시작할 때

조 혜 정 (사회학과 부교수 문화인류학 전공)

I. 4인방

이 글을 쓰려고, 백양로를 오르내리던 20년 전 생각을 해보았다. 교수로서보다 선배로서 만날 때 보다 가깝게 느끼게 되고, 보다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워낙 과거에 집착을 안하는 성격인데다가 그 이후 또 워낙 많은 곳을 옮겨다니며 지나온 터라 실상 그리 생각나는 것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대학원에 입학한 동기가 그 당시 생각을 일깨워 주었는데 그 때 얘기로 부터 시작해보자.

당시 우리 사학과에는 네명의 괴짜 여학생이 있었다. 절을 찾아다니며 동양 철학을 터득하려던 영이는 여자가 바지 입는 것이 드물던 시절에 한 번도 치마를 입은 적이 없어서 다리에 부스럼이 났나보다는 썩덕거림을 들었다. 소위 운동권 학생과 연애를 하며 늘 너무나 심각했던 숙이, 무시 시한 사자머리에 도사같은 실눈을 뜨고 "애 관(觀)이 서지도 않는 네가 공부하러 가서 뭘하나? 관이 서야 답을 수가 있지." 하며 나의 유학길을 말리던 선이, 그리고 그리 분명치는 않지만 항상 뭔가 딱히 틀에 맞추어지지 않는 내가 그에 속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 네명의 '괴짜' 여학생들은 모두 현재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의 '정상적'이던 여학생들은 모두 '정상적' 비취업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최근들어 부쩍 더욱 일상 통념에 순종하고(특히 남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여학생들이 캠퍼스에 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세상 의미있게 던져본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꽤 뚜렷하게 알고 있고 남의 이목에 무딘 네 여자. 그들도 모두 몸이 고되다는 얘기를 되뇌이면서도 한편 '가정'과 '사회'를 오가며 많은 남남속에서 그 자신을 확인하고 나날이 변화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에만 있어온 친구들은 만나지 못

한지 오래라 소식을 잘 듣지 못했지만 경제가 급성장할 시기에 이래저래 모두 다 큰 아파트를 장만해 한 두명의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들이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 또는 남편이 바람피울까봐 꽤 신경을 쓰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것이었다고 날마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서 실은 마음속 깊이 공허함을 느끼는 그러한 가정 주부가 되어 있지 않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될 일일까? 가정주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아닌가?

II. 가정주부·의미있는 이차집단을 박탈당한 이들

벽

강 은 교

벽이 젖고 있다
벽에 걸린 액자에도 이제
거뿔거뿔 곰팡이가 피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젖어온 것이다
그래서 젖음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 벽을 고치지 못한다
젖고 있음을 알면서도
문득문득 벽이 무너지는 공포에 떨면서도
그럼에도 왜 나는 저 벽을 고치려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저 벽을 의심하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는 모두
저 벽에 등을 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갑자기 무너지거나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등도 무너지리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의 등도 젖어 있다
거뿔거뿔 곰팡이가 핀 채.

모든 인간은 감정적 욕구를 갖고 태어난다. 감정적 욕구란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안정성을 찾고 자기 존중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런 면에서 가정과 이차 집단은 이 욕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단위이며, 전통 사회에서 우리 선조들은 일차 집단인 가족과 이차 집단인 이웃 및 친족 집단을 통해서 이 감정적 욕구를 무리없이 충족시켜 온 편이다. 여성들의 세 계인 '안채'나 노동의 터가 머느리 구박하는 비인간적 공간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서로의 사회성, 안정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주요한 '사회'적 공간이 되어

왔던 것이다.

현대의 가정 주부는 이 면에서 볼 때 문제상황에 있는 집단이다. "생산 노동으로 불리우는 지불 노동이 현장에서 배제되어있으므로 인해 생기는 경제 의존의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바이나, 의미 있는 이차 집단적 관계를 맺어갈 토대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은 아직 부각되지 못한 것 같다. 현대 사회가 직장·학교·행정·대중 매체 등 제도화된 공식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의미있는 관계란 이 현장을 통해서만 맺어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정 주부는 이차 집단 형성이 어렵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 한 마디로 다양한 인간 관계망, 그리고 집단화의 사회에서 유독 '가정'에만 머물러 있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주부의 처지는 병리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주부는 해도해도 끝이 없는 가사일을 말 없이 즐겁게 혼자 도맡아서 항상 알뜰한 상태에서 가족을 맞아들이고, 무공해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최대로 보호하며 동시에 '사회'에 나간(또 나갈) 산업 역군들, 즉 남편과 자녀들이 뱉아놓는 감정을 혼자 속으로 삭혀가는 사람인 것이다.

여기서 주부의 감정적 욕구가 완전 무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에의 심취라든가 극단적인 소비경쟁 풍조들은 주부들이 자신의 감정의 찌꺼기를 요리해가는 한 방법이며 아내의 '바가지' '잔소리' 또한 주부들의 교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일터'에서 지친 또는 이미 아내에게서 신선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느낀 남편들을 애초의 암묵적 약속과는 달리 아내와 의미깊은 대화를 가질 노력을 중단하게 되고, 남편을 통해 유일하게 사회와 연결을 갖던 아내는 이로써 사회인이 될 중간적(이차 집단적) 지위를 상실한다. 주부들이 자녀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개인주의화하면서 모자녀 관계 역시 크게 변하고 있다. 현대 주부들은 친척 관계, 집 장만, 노부모와 병약자 간호등으로 비록 고달픈 삶을 살았으나 자기 존경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어머니시대와는 달리 의미있는 이차 집단을 상실함으로써 정체성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강은교의 시에서처럼 모두가 등을 기대고있던 벽이 젖고 색어 등에도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Ⅲ. 도장찍는 남자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가? 남자 동창생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김혜순의 시를 가끔 생각하게 된다.

도장찍는 남자

아침마다 그는
정장을 하고 책상에 앉아
도장을 찍는다
늘 도장을 찍어야 할
네모난 칸이 병정들처럼
그 앞에 도열해 있다
그는 하루종일 빈 칸에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집이 한 채씩 늘어나고
부하가 한 명씩 늘어나고
자동차가 한 번씩 바뀌고
그는 돈 찍어 제 주머니에 넣는 사람처럼
신나게 도장을 찍는다
찍으면서 그는 <다음> 난을 가끔
노려보기도 한다.
그는 <금지>를 특히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지 말라
그는 도장을 광 찍는다
그림 그리지 말라
노래 하지 말라
그것을 마시지 말라
외치지 말라
그는 신나게 도장을 광광광 내리 누른다
아들의 이마 위에도 도장을 광
아내의 입술에도 도장을 광
그는 잠 속의 꿈 속에도 도장을 광
그의 문 앞에 늘 깨어 있는
개들에게도 도장을 광
그는 언제나 결재를 한다 광.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노래를 부르며 지냈던 만큼 나는 그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도장찍는 남자" 일 수 없음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불행히도 그들이 "도장찍는 남자"들 속에서 억압을 느끼며, 시간에 쫓기며 별로 자유롭지 못 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도장찍는 것에 오염되어서 말이다. 그래도 우리 동기생들 가운데 조금 자유롭게 사는 것은 결국 4인방인가?

Ⅳ. 다리놓는 작업

말씀에 가위눌린 한 여자를 위해

김 혜 순

S#1. 남자

넥타이를 매듯
무엇이든 매는 걸 좋아하고
수염을 자르듯
무엇이든 자라는 것, 자르는 걸 좋아하고
관청에 들어가는 걸
인생에 뛰어드는 것이라 여기고
여자와 아이들을 콘크리트 벽속에 넣어 두고
말이 육신이 되라
끝없이 율가미를 짜내고
확실한 것! 확실한 것! 말하며
제 가슴 속 바다를 열리는.

S#2. 여자

머리카락을 기르듯
몸속에 무엇이든 기르는.
율가미 속에서도 꽃을 심고
새를 날리며 밀물 썰물 따라 몸속 깊이
달을 띄워 올리며
몇 세기 전의 감옥을 아직도
속 깊이 품고
밤마다 그 말쑤의 감옥 안에서 가위 놀리다
바다로 투신하는.

S#3.

그 남자는 죽어서 말쑤의
조국이 되고
그 여자는 죽어서 말쑤의
대지가 되어
서로 만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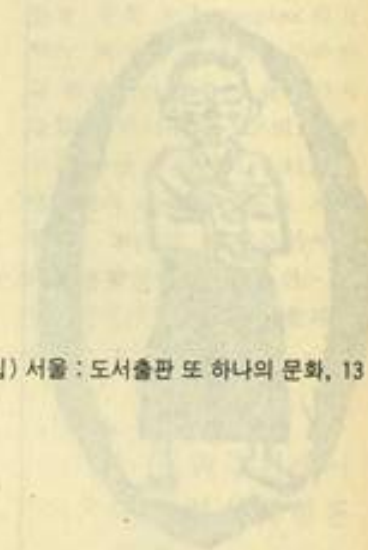
4인방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들이 어느 한 영역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대의 한 거대한 비극은 가정과 사회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고, 또 매우 불균형적 관계를 이룬다는 데서 비롯된다. '일터'의 원리가 지나치게 커져서 '일터'에 참여한 인간을 도구로 부리고 '일터'에 참여가 불허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동 시민'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았다.

이러한 구조적 여건속에 그나마 양영역을 넘나들며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들은 두 영역을 잘 알아야 하는, 일하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전문 기술인이 되기 위해서도,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끝없는 물질적 축적과 경쟁을 삼음으로 해서 인간성을 분열시키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였으며, 가정과 사회를 분리시켜온 거대한 사회 구조물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함이다.

여성들이 대다수의 남성들이 겪어온 고된 일터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따라서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이다. 남성들의 수고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풀어나감으로 '일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남성들은 여성의 참여를 탐탁지 않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깊어진 역사의식을 토대로 여성들은 보다 신중하게 자신의 몫을 담당해야 할 결심을 해야 한다. 우리가 분리된 가정과 사회 사이에 다리를 놓아 그 양 영역을 변화시키고, 노동과 삶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규정해 나갈때 이중의 부담속에 시달리는, 또 가정에 왜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매들의 삶 역시 생기를 갖게 될 것이다. 가정을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다리놓는 작업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중심을 잡고 '사회'에 굳건히 참여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인용시 출처

- 강은교 1988 "백"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여성해방시모음집)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3쪽
- 김혜순 1988 「말쑤에 가위놀린 한 여자를 위해」 32~33쪽
1988 "도장찍는 남자"
같은 책 86~87쪽



대	자
보	보



사회주의에서의 여성 해방되었는가

—지연된 혁명—

사회학과 「성과사회」(북한여성 공동연구 모임)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사회주의에서의 여성해방론 일반
 1. 여성해방 투쟁에서의 두 측면
 2. 계급운동과 여성운동
- III. 각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1. 소련
 2. 중국
 3. 북한
- IV. 맺음말—제기되는 문제들—

대	자
보	보

통일논의 물꼬차단 사전 포석
‘북한여성’ 대자보 관련
이은희씨 구속 배경

대자보 사이사이에 평양 시내 전경, 건축일을 하고 있는 여성, 평양 지하철, 소풍 나온 가족 등 10여 장의 사진이 곁들여 있다. (……) 대자보의 끝에는 큰 백지를 마련, 읽고 난 느낌을 적도록 해 열면 지상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좋은 여성친국이라면 총학생회부터 북으로 가라.”는 거부반응이 있었고, 이어 “민족분열주의자는 이 땅을 떠나라”는 역공이 뒤따랐다. “어두운 면은 숨기고 밝은 면만 부각시킨 것 같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두운 면은 10여년 동안 듣고 배웠는데 또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우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은 원래 하나이며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겨레신문』 1988년 5월 28일자 기사—

I. 들어가는 말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라고 한다. ‘동토의 왕국’이라고 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세시킨 머리로

살아왔다. 쉽게 저쪽, 다른 편이라고 부르면서…….

올림픽 기간에 공산권 국가들이 조금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북과의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당혹스러워 하고 침묵하지는 않는다. 단일민족·반만년 유구한 역사등등 두고 쓰는 표현이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가.

여성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동시에 대학 4학년이 된 여학생은 좁은 취직문에 난감해한다. ‘여성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성해방’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이같은 이런 두가지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쓰여졌다. 타인은 자신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를 들여다 봄으로써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한반도 한편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북한의 예는 환상과, 무조건 배경이라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이분법을 ‘바로 알려는’ 노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적 여성해방론에 기초해서 혁명의 과정,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들의 노력을 하나의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이 글을 소련, 중국, 북한등의 나라에서 혁명을 거치면서

어떻게 여성문제를 해결하려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실의 모습을 덧붙이고, 상호비교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특히나 가사노동의 사회화, 성별분업, 보육, 가족구조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려 했다.

또 한가지 일러둘 말은 객관적이고자 했음에도, 자세하고 많은 자료가 없었다는 점과 흔히 red-complex 라고 하는 의식의 굴절로, 부족하고 편파적인 모습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제도를 통한 분석이어서 다소간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도 시인한다. 그러면 사회주의에서의 여성해방론, 소련·중국·북한의 순서로 고찰해보자.

II. 사회주의에서의 여성해방론 일반

—여성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

여성해방론의 역사는 19세기 자유주의적 여권론이 서구와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후 그 사회적 변화 및 의식의 변천에 따라 급진적 여성해방론, 정통적 마르크스주의론 그리고 최근에는 서독을 중심으로 여성의 생활세계에

추진에 맞춘 평화운동 등이 등장해오고 있다.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여성 해방을 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격렬한 토론과 논쟁의 주제로 되어왔다. 선진국가에서 독점자본은 가사나 육아의 사회화도, 그리고 사회생활 및 가정에 있어서의 성별분업의 변화도 거의 시도하지 않은 채, 많은 여성들을 지불 노동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항하여 기존의 여성운동과는 그 기원에서부터 다른 '여성운동'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운동의 요구는 혁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노동계급 여성들 가운데서 실제적이고도 잠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평등한 권리'를 요구했던 초기의 운동과는 달리, 이러한 운동은 공적 생활이나 사적 생활에 있어서 계급사회 자체의 기본을 이루는 성별 분업을 언제나 공격한다.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투쟁과 해방을 위한 조직적 투쟁과 지도력의 문제는, 위와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서 제국주의의 수탈에 대하여 여성들이 대응하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여성들의 잠재적인 역할을 이제 의식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계급투쟁에 여성을 가담

시킬 수 있는 전면적 이론 및 전략과 전술의 정교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 억압의 역사적 뿌리와 함께 이 시대 모순의 특수 해방 둘째, 여성들의 참여와 '여성문제'의 모든 요소들과 관계된 사회주의 여성 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개발하는 것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1. 여성해방 투쟁에서의 두 측면

여성해방 투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을 위해 혹은 그 일부로서 여성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의 문제와 사회주의 운동의 촉진 방향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여성들이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사회주의가 여성해방을 필연적으로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이 두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거론될 성질의 것이다.

두 측면 중 한 측면만이 인정되고 옹호된다면 해방을 위해 운동하는 여성들의 잠재력을 결코 충분히 실현시킬 수 없다. 이제까지 이에 대한 두가지 편향이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자유주의 혹은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전 인민 해방의 맥락에서

여성해방을 보지 못하고 계급 운동이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여성해방을 위한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두번째, 편향은 교조적이고 경제주의적인 맑시스트에게서 발견되는데, 그들은 '당'이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착취 뿐만 아니라 그 착취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의 여러 측면(예를 들어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 투쟁할 필요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여성은 노동자 계급의 남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할 따름이며 이것은 결국 "성은 계급사회에서의 부차적인 모순"이라는 명제를 "부차적 문제"로 변형시키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편향으로서 경제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된 역할을 노동대중의 주도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수단과 기술적인 축적에 두는 것"(베를하임, 1976)이라는 견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적 생산과 사회화된 가사노동으로 여성들을 충분히 통합시킬 수 있을 때까지 해방을 향한 여성들의 투쟁을 지연시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제주의는 독일사회민주당 내의 수정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내의 노동귀족주의와 연결된 역사에서 드러

나고 있다.

2. 계급운동과 여성운동

1) 여성 운동의 독자성 문제

여성 운동은 한 사회가 계급 사회인 이상 계급과 무관할 수도, 계급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도 없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의 전략적 필요로서 혹은 원칙의 문제로서의 독자적 여성 운동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여성운동은 주로 계급운동의 일반적 과정 속에서 나타났

다. 60년대의 미국 여권투쟁은 시민권 투쟁과 학생운동의 과정에서 등장했고 분리투쟁으로의 전화를 전체운동에서 여성 대중조직 건설의 과제가 무시될 때 일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여성 운동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고 해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전자본주의적인 법과 관습에 대항하는 것(이혼의 자유, 사실혼 인정, 여성 노동자 보호 등)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로부터 구제되어 모든 분야의 생산과 정치적 생활에의 참여, 가족에서의 종속적 관계 청산, 또는 가족 관계 자체의 변화 및 새로운 평등주의 문화와 같은 내용의 운동인 것이다.

2) 당과 여성운동

사회적 관계의 변혁은 사회주의 건설기간 동안 수행되는 물적 조건의 완전한 변혁 이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혁명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와 당의 역할 사이의 문제는 지도조직이 여성 대중 스스로가 자신의 해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지도조직이 여성 억압의 근본을 인식하고 실천의 계획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당 또는 조직을 맡은 집단들이 여성을 억압받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을 몇가지 유형으로 조직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여성억압이 혁명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여 여성을 전체적인 요구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만 조직하며 양성 사이에 내재된 모순을 다루는 것을 거부한다면, 또한 여성의 전선을 전적으로 당의 정치적 목표에 종속시킨다면 '여성운동'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Omvedt, 1976)

혁명의 과정이란 물질적 조건, 사회관계, 사상의 변화과정이다. 또한 그것은 혁명 이전 단계에서 시작되어 국가권력의 획득과 함께 격렬해지면

서 사회주의 변혁의 시기에 심화되는 과정이다. 혁명의 첫 단계에서의 변화가 끝난 후의 성과도 더욱 빠르게 획득된다. 성(性)에 기초하여 변화된 관계는 일반적인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 계급 사이의 변화된 관계의 한 척도이자 사회주의로의 진전의 가늠자다.

여성의 해방은 혁명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자 혁명의 지속을 보장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Pamora Machel, 1974)

III. 각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여성

1. 소련

러시아혁명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혁명이었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사회에서보다 치열하고, 광범하게 혁명에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세기 중엽에 시작하여 혁명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 여성해방의 흐름과 그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서의 상황을 살펴본다.

1) 제1 단계(1880년대 이전)

—여성문제의 대두

짜르 지배시기 및 모스크바 시대를 거치는 동안 국가 권력의 강화를 위해 다른 일체의 가치체계를 희생시키다시피 했던 러시아 절대주의와 그리스 정교의 극심한 여성 경시 풍조로 인해 제정시대를 통해 여성의 지위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도 각 사회마다, 계급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봉건사회에서의 농민층은, 주생산노동에 참여했고, 여성의 경우, 거기에 대해 가사노동과 출산, 육아까지 전담하였다. 특히, 농촌사회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여성들은 매해 아이를 낳아야 했다. 농민층을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한 점에서는 같지만, 촌락 공동체에서의 토지보유권에 서조차 여성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반면, 귀족층의 여성들은, 생산노동은 물론 양육, 가사노동을 전담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교무대에 나와 누군가로부터 구혼받고 팔려가게 되기만을 기다리는 존재였다. 이혼이 불가능한 사회였으므로 가문대 가문으로 결혼을 한 이들 귀족사이에는 매춘과 농노여성의 성착취가 성행하였다.

이런 양극단적 상황에서, 여성문제가 제기된 것은 교육

을 받은 귀족과 부르조아 출신들로부터였다. 이들은 교육기회, 취업기회등의 주장을 펴며 프랑스등의 자유주의 여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또한 당시 급진적 지식인 여성들도, 부부의 독립적 생활, 윤락여성구출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일어났다.

반면, 인민주의 혁명에 참여한 여성들은 다른 각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문제에 대한 자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집단적 전체로서의 '인민'의 혁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공헌은, 여성도 혁명가, 정치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후 그러한 정신적 영향은 어떤 여권론자의 설교보다도 강력한 것이었다.

초기 여성운동은, 소수 교육기회가 부여되었던 귀족, 부르조아계급이었으나,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여성노동 계급의 형성에 따라 여성운동도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2) 제2 단계(1880~1905))

—여성노동운동

대규모 기계공업의 자본주의 발달과 폴로테리아라는 새로운 계급의 형성으로 러시아 혁명운동은 질적 전환기를 맞게 된다. 여성노동인구도 증가하여 1914년에는 공장노동자의 1/5, 1914년에는 1/3

에 달하였다.

이들 여성노동자는 미숙련, 반숙련, 저임금노동에 종사하였고, 직종도 섬유, 제지, 담배제조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초기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노동자 일반이 겪는 어려움, 곧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 및 거주조건, 산업재해 그리고 가혹한 노동규율외에도 여성노동자는 남성 동료, 작업반장, 관리자로부터 가해지는 성적폭행을 감수해야했고, 임신, 출산, 양육등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이들은 가중된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남성노동자들보다 순응적 수동적이어서 노동운동을 오히려 가로막는 존재였다.

1880년에 이르러, 자연발생적으로 비조직적 경제투쟁을 하게되었는데 이때의 주요 주장은,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등이었다. 1905년에는 사회전체의 혁명적 열기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자발적 파업을 시작했고 특히, 이들은 모성보호, 남녀 최저임금등 새로운 주장을 폈다.

3) 제3 단계(1905~1917)—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여권운동가들은, 서유럽 및 미국에서 일어난 참정권운동과 입헌제정에 대한 기대가 증가된 러시아의

혁명적 상황의 요구, 그리고 여성의 고등교육의 확대등을 배경으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계급에 관계없는 여성공통의 문제를 여성의 단결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는 부르조아계급 뿐만 아니라 농민, 하녀층에까지 전파 되었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이러한 자유주의 여권운동에 도전하여 일어났다. 즉, 여성 문제의 본질은 사유재산제이며, 이것의 소멸로만이 여성은 해방된다고 믿었다. 계급을 초월한 독자적 여성문제란 있을 수 없으며, 남성노동자와 함께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이 곧 여성해방의 열쇠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여성운동의 대립은 1908년 전러시아 여성회의에서 첨예화되었다. 여권론자들과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두개의 정점에서 매달수 없는 간격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즉, 계급에 상관없이 전여성의 공동문제가 있는가와 이것이 현재제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두 입장이 달랐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여성이 독자적으로 세력화하자, 사회주의 혁명당(볼셰비키, 댄세비키)에서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당정책으로 모성보호, 양육시설등을 정했다. 레닌은 여성해방을 여성의 정치참여, 가사노동의 문제등

여성의 특수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혁명수행과정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4) 제4 단계(1917~1930)—여성부 활동기.

1917년의 2월혁명은 여성의 날 행사가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다. 이러한 여성의 움직임은 볼셰비키는 여성위원회로 흡수하였다. 이들은 혁명직후 봉건적, 가부장제적 가족법의 전면적 개정에 착수하여, 이혼법과 가족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사실혼의 인정, 혼외관계의 자녀 법적 인정, 낙태의 합법화 무료화 등으로 당시의 불행하고 억압적인 결혼생활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1919년에 여성위원회는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 여성부(Zhenotdel)로 승격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주도적으로 하였던 알렉산더 콜론타이가 여성부장이 되어, 여성의 동원, '대표자 회합'을 통한 여성 정치교육, 탁아소, 거주공동체, 공동 취사 및 식사장 확보등의 일을 실행하였다. 또한 농촌여성일반, 회교도여성을 비롯한 동부지방, 중앙아시아지방 여성들을 전통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여성부의 주 활동방법은 선전과 선동, 활자매체등이었다.

혁명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요구로 당이 이것을 수용하고 실행하면서, 여성의 해방은 매우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나, 여성부의 설치 및 활동이 곧 그대로 공적 생활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를 대폭 개선시킨 것은 아니었다. 당, 정부조직에 있어 여성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여성해방을 꾀해하여 젊은층에서는 성적 허무주의내지 방종이 유행되기도 하였다.

여성부 활동의 성격도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달라지게 된다. 신경계정책(NET)의 시작과 더불어 여성노동자들이 제1작으로 해고당했고, 당내에서도 여성부를 선동·선전부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국 1930년에는 당 중앙위원회 여성부는 촌락부와 함께 폐지되었다.

혁명이후에도 공산주의 사회가 아직 완전히 건설되지 못했음을 각인하고,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이, 자녀에게는 경제능력이 없는 부모의 부양책임이 주어지는 등, 가족이 사회성원의 재정적 부양을 책임지는 단위로 인정받았다.

이것을 스탈린때에 더욱 강화하였다. 스탈린은 사회의 기초는 가족이며, 모성을 찬양하는 정책을 폈다. 즉, 부르조아적 가족규범이 강조되고, 1936년 개정된 가족법에

서는 이혼이 극도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여성해방의 차원에서 볼때, 다시금 회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스탈린 이후에는 결국 여성운동에 단절이 왔다.

5) 70년대 이후

혁명을 실현하면서 여러 법적, 정치적 평등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평등은 그렇지 못했다.

우선 전반적 경제 상황이, 평균임금이 160루블인데, 이것으로는 3인 가족의 생계유지도 힘든 액수이다. 남성의 문화는 주로 술로 대표된다.

특히, 가족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맡은 책임에 있어 불평등하다.

남성의 경우 사회적 노동에만 참여하는데, 여성의 경우 사회적 노동과 출산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에 참여한다.

주로 탁아소를 이용하지만, 탁아소의 시설이나 위생이 미비하고, 교사의 대우도 평균임금의 절반인 80-90루블을 받는 조건이다. 보통 25-35명의 아동을 2명의 교사가 돌보아 어머니들은 말기기를 꺼려한다.

가족구조도, 아버지의 가족에의 참여가 거의 없어 이혼한 어머니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가족으로 바뀌어가는 실정이다.

최근에 다시, 이러한 여성

문제를 제기하여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2. 중 국

중국의 혁명은 반(半)봉건, 반(半)식민지적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혁명의 주체가 매관부르조아 및 지주층 제외된 광범한 중국 인민에 기반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농민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토지 개혁을 근간으로 하여 농촌에 해방구를 설치하고 확대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갖게 된다. 중국의 여성해방 운동과 현 사회주의에서의 여성 생활은 이러한 혁명의 성격과 그에서 비롯한 중국의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1) 혁명 이전의 중국 여성의 생활

유교적인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동양에서의 보편적 이데올로기인 '삼종지도'의 원리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의 의무였다. 정절의 이데올로기, 육아와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 및 전족, 매매혼, 측첩, 동양식(민머느리제) 등이 전통적인 억압의 내용이었다.

남성 입장에서 본 중국 여성은 인간 관계의 세세한 측면을 이해할 수 없는 우둔하

고 무지한 존재였고, 질투가 많고 말다툼만 하며 성적 욕구가 무한하여 남성의 정력을 모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은, 성공적인 어머니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자신이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여인 공동체를 만들어 시어머니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기반을 가지는 것과 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궁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즉 여성에게 씌어진 '삼종지도'라는 굴레 속에서도 유교의 기본 원리인 '효(孝)'사상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여성들이 취한 최선의 생활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고부간의 갈등을 첨예화될 수 밖에 없으며 남아선호사상 또한 여성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농촌 가족 내에서 여성이 자궁 가족을 통해 권력을 획득한다고 해도 결국 부계 집단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극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궁 가족은 가부장적인 가족의 공급 수단인 것이며 권력의 실질적인 척도인 재산은 여전히 남자의 손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2) 여성 운동의 역사(신문화 운동기)

신문화 운동기에 배출된 여성 지식인들은 여성의 참정권, 상속권, 결혼 및 이혼의 자유, 교육과 취업의 기회 균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시켜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소수의 지식여성과 상류층 여성에 한정된 것으로서 대가족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그 당시 여성들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아무런 호응도 얻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게 된다. 국민혁명기에 이르러 전반적 노동운동의 고양 속에서 여성노동자도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여성운동의 슬로건 가운데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同工同酬), 모성보호 등의 요구가 주요한 항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산주의 여성운동가들은 법적 평등을 일차적 목표로 했던 그때까지 여성운동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며 노동자, 농민 여성 운동의 활성화에 주력했다. 이러한 균열은 제1차 국공합작의 붕괴와 더불어 뚜렷한 분화를 보이게 되었고 힘준한 산악지대에 공산당에 의해 해방지구가 건설되면서 두개의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성운동도 국·공 양당의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당 통치 지역에서의 여성운동은 여성을 파시즘 정책의 주요 지주의 하나로 설정

하고 보건, 위생, 문자 등의 교육과 모성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강요하는 오히려 반여성적인 어용적 여성운동과 이러한 체제 내에서도 항일구국운동에 참여하여 민족 현실의 타개에 참여코자 한 여성지식인 중심의 진보적 여성운동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는 민족문제와 여성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못했으며, 전자를 후자가 운데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공산당은 변경의 농촌지역에 해방구를 설치하고 정권을 수립하여 내부에서 본격적인 사회변혁 작업을 진행시켜나가는 한편 해방구의 방어와 혁명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혁명운동 속에서 여성의 억압적 현실의 극복 전망을 내다본 여성들은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의 요구들을 제반 입법조치들을 통해서 현실 속에 구현해내기 시작했으며, 당의 지원하에 존락단위까지 내려가는 여성대중 조직 기반의 구축에 힘썼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중국여성운동 가운데 체제 내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여성운동, 어용적 여성운동, 근본적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세 가지

유형을 가려낼 수 있다. 먼저 어용적 여성운동은 파쇼적 지배체제를 보다 더 강고히할 목적으로 여성상을 왜곡시키면서 진행된 것으로서 공산당 통치지역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의 한 방편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고, 다음으로 기존의 사회체제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대시키려는 여성운동은 중국여성의 억압의 근원인 중국의 사회체제 자체의 변화가 선결 요건이었기 때문에 자주 한계에 부딪혔다. 마지막으로 대중운동의 에너지를 혁명 수행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중국공산당은 여성해방의 법적 근거를 혼인법, 토지법, 노동법 가운데 명시하고, 여성의 사회적 생산노동에의 참여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모토하에 노동력이 부족한 전시생산작업에 여성들을 광범히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국혁명운동의 선상에서 수행되어진 여성해방의 문제는 이론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 "공산당이 여성해방을 외치기는 하나 여성은 당내 위계 질서에조차 들지 못하며 여성은 활동가인 동시에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당간부들은 농부들의 충성을 잃을까봐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당시 덩링의 말이 그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50년 혼인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토지개혁에서는 남자가 평등하게 분배받지만 혼인법의 실패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56년 농촌집단화가 실시되면서 여성의 고용과 참여의 기회는 생산증대와 사회봉사의 맥락에서 확대된다. 이 농촌 집단화를 통해 여성은 경제권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을 지니게 되고 대가족내에서의 가부장제의 권력도 지역내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당과 연결된 국가로 대체됨으로써 여성 억압의 봉건적 토대는 상당히 붕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여성성의 문제가 계속 존속하여 공사의 두 영역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니게 된다.

3) 현재의 중국 여성

사회주의 국가인 지금의 중국에서는 생산력 증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매우 크고 그 생활의 원리도 다르다. 도시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되었지만 경제력이 그것을 완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성별분업의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성과 연령에 따른 연평균 수입이다.

이상에서 보면 농촌의 경우

(표 1) 성과 연령에 따른 연평균 수입도시

연령 배 이 정	여 성		남 성	
	명 수	수 입	명 수	수 입
22~29	20	¥460.20	16	¥462.00
30~39	11	600	9	632.04
40~49	13	697.80	12	924.00
50~59	7	646.32	6	999.96
60+	8	531.22	3	1,128.00
전 계	59	587.06	46	829.20
사 오 성				
20~29	24	¥506.96	19	¥526.68
30~39	19	537.48	21	689.76
40~49	8	604.56	14	858.84
50~59	6	482.04	8	871.56
60+	3	392.04	9	517.20
전 계	60	504.62	71	692.81

임금 사이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해도 성별 분업과 작업 능력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을 짐으로써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들어 농촌의 경우 집단농장이 쇠퇴하고 가족단위의 책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생산수단과의 관련에 있어 여성들을 혁명 이전의 위치로 돌려놓게 될 위험에 놓여있다. 이는 성적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지배요인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부장제적 성격이 단지 관념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을 가지고 존속하고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중국 혁명 지도자들이 가부장제로 말미암은 여성과 젊은 세대의 억압된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그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적 장벽 때문에 정책에 실패하였고 현대 중국은 가부장제와 사회주의가 안정된 조화 속에 공존하고 있다. 중국 여성들의 생활은 여전히 남자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83년 9월 제 5차 전국 여성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간의(4차회의 이후) 여성들의 업적은 1) 여성 노동참여율의 3.3%증가 및 운동 시합 부분에서의 성과 2) 자연과학 부분에 종사하는 여성 고급 인력수의 증가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더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남존여비의 봉건적 사상이 다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여성 간부선출 및 승진 및 연구와 직업 활동 제한의 미묘한 차별, 생산부분에서의 여성에 대한 노동보호 무시가 존재하고 중매혼은 여성들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를 잠식한다. 또한 여아살해, 여성학대 및 딸을 낳은 어머니에 대한 박대가 다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문화적, 과학적, 기술적 교육수준이 다소 낮으며 과중한 가사일을 책임져야 한다."

4. 북한의 여성

북한 또한 맑시즘의 사적유물론, 계급투쟁관을 적용하여 사회변혁을 수행하였고, 그 각각의 혁명단계에 따라서 여성해방투쟁을 전개해왔다. 북한의 사회혁명과정과 함께 여성정책의 변화도 크게 3단계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 제1단계

1945에서 53년까지의 기간으로,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족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토지개혁과 봉건적 유습의 청산으로, 여성해방을 위한 남녀평등법령 실시를 통한 전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첫째, 사유재산제

도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타파하고 사회주의적 사회체제의 한 단위로서의 가족을 만들고, 둘째로 남성우위의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가 되는 법적 근거들을 폐지하고, 셋째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법령에서 우선 가족성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며, 부부는 상호간의 권리·의무에서 역시 평등하며,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부친과 모친·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딸과 아들 또한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혼인에 있어서는 자유결혼과 동등혼주의를 표방하고 완전한 일부일처제의 성립을 주장했다. 재혼에 대해서

는 아무런 규제도 없게 했다. 부부의 재산관계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결혼후에도 혼인 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남녀 모두 자기의 주소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서 부부가 반드시 동일한 주소를 갖을 의무는 없다고 한다. 이외도 이혼의 자유보장과 친권에 대한 부모의 공동 행사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2) 제2단계

1954년에서 1960년까지의 기간으로, 여성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선의 '노동계급'에 진

표2 수입의 출처와 성별에 따른 연평균 임금: 농촌

	사 계	생산소대 및 생산대대		
		여성임금	남성임금	남성에 대한 여성임금비율
후 전	25	¥122	¥276	44%
장 수	108	283	327	87%
산 동	278	389	558	70%
산 시	285	279	420	66%
쓰 환	138	142	235	60%
	사 계	인민공사 및 국가		
		여성임금	남성임금	남성에 대한 여성임금비율
후 전	30	¥331	¥525	63%
장 수	205	337	482	70%
산 동	31	414	524	79%
산 시	18	407	570	71%
쓰 환	36	252	855	30%
배 이 정	105	570	729	78%
사 오 성	131	538	679	79%

(표 3) 산업 부분별 여성의
구성비율(1980년 현재)

농업부문	55.5%
단장부문	20%
임업부문	30%
공업부문	중 공 업 15%
	경 공 업 70%
교육부문	인 민 학 교 80%
	고 등 중 학 교 35%
	기 술 학 교 30%
	대 학 교 15%

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한편, 모든 노동의 집단체제를 완성하고 모든 영역에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는 여성 노동력 중장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80년 현재 산업 부분별 여성의 구성비율은 위표와 같다. 참고로 노동관계법규를 살펴보면 하루의 노동시간은 8시간이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다. 또한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 지방 정권 기관과 해당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 단체 등은 여성들이 노동할 수 있는 여러 편의 시설(탁아소, 유치원, 아동병원)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 제37조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성, 연령, 민족에

관계없이 동질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의 임신부 및 산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여성 노동자들은 정기 및 보충 휴가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휴가를 받는다고 하며,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는 1일 2일 30분씩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3) 제3단계

이 시기는 1961년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국가는 '가정의 혁명화'를 부르짖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공산주의적 모성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에게 사회주의적 인간생산, 즉 '새형의 인간'을 양육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여성의 현재적 생활을 살펴보면, 먼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부부는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자적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사회적 부부관계에 힘입어 부부관계는 협동과 단합이 강조되며, 남편이 권위만을 주장하거나 부인을 학대하면 여성동맹의 정치단체로부터 비판과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부부관계에서 매우 뿌리깊은 성별분업의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 정책에 있어서 60년대에는 산아 장려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70년대에는 산아 제한 정책으로 바뀌었다. 또한 부계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남자가 여자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댓가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출산은 조산원의 도움을 받으며, 도시에서의 출산은 해당산업병원에서 이루어진다. 태어난 아이는 출산후 90일이 지나면 탁아소에 맡겨진다. 탁아소는 일일 탁아소와 주간탁아소가 있으며, 탁아소에서 양육된 어린이는 만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에 보내진다. 북한에는 현재 63만여개의 탁아소가 존재하며, 약 350만명의 어린이가 수용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이 있다. 다음으로 북한 여성의 이혼 및 재혼 실태를 살펴보면 56년 이후 재판상의 이혼만이 허락되며, 부부쌍방이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사유를 밝혀 승락을 얻은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이혼율은 그리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적 배려 및 당원의 경우는 이혼시, 무능력하다는 평을 받으며 또 비당원의 경우 당의 승인 및 소모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결혼관은 매우 보수적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재혼, 이혼이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사회적 현실과 경직된 윤리관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재혼은 남, 여를 불문하고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북한 여성에 있어서 70년대 중반까지도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사회개혁이 실질적인 여성해방의 실현이라 보고 가정의 기술혁명화를 추진하였다. 전 군중적으로 농촌 수도화, 농촌탁아소, 유치원 건설 운동을 전개하여, 전체 농촌 세대의 60%가 수도가설이 되었으며, 85%가 바스가 가설되었고, 각도마다 농촌 진료소와 병원화가 완성되었고, 팔공장, 옷공장이 완성되었다. 자녀 양육 역시도 사회화되어 여성을 가정일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집단주의적 인간을 기르려는 교육적 목적을 갖는다. 이때 주된 교육내용은 가족중심의 언어교육, 걸음걸이, 노래, 춤, 사상교육이다. 마지막으로 고부문제와 노후생활을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노동능력을 가진 며느리가 가정의 한 성원으로서 가정 밖의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시어머니와의 갈등관계는 사실상 약화된다. 정년 퇴직 제도는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이며 여성에 대한 조기정년제가 실시되고, 정년 퇴직이후에는 연금

이 지급된다.

이상에서 북한에서의 여성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과 현재 모습을 고찰해 보았다. 앞서 밝혔듯이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포장을 해서 보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덧붙여 남녀 부동성이라 표현되는 북한에서의 교육종교와 가부장제의 문제를 보면, 우선 북한에서의 교육은 인민학교에서 고등학교 11년 동안 철저한 성별 분리 학제를 편성하고 있다. 양성교육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비판 거리가 되겠지만, 분리 학제의 이유를 북한에서는 첫째로 남녀의 특성을 살리고 두번째로 생리적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의 여성」을 쓴 이태영씨는 북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새로운 가부장제의 출현'을 들고 있다. 1946년부터 사회주의적 가족개혁을 단행하고, 유교 가부장제의 전통인 대가족 제도를 폐격하고 집단주의적 가족개념을 전통 가족의 자리에 대치시켰다. 그러나 신적권위와 유일적 존엄성으로 우상화되고 있는 이어지는 세습정권으로 새로운 가부장권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이씨는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정도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이태영씨는 정권의 상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가부장

권을, 그것이 사회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논리의 비약으로 사회전체·북한의 가족전체로 연결시킨다는 사실이 그 하나이다. 다음 문제는 가부장제의 출현을 이념적으로는 같은 소련과 비교해서 본다면 북한 특유의 모순인지, 그보다는 동양적인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분리해 낼 수 없다. 가사노동에 대한 설문에서 북한여성은 남성이 참여하는 것을 좋게보지 않는다는 결과를 봐도 유교전통으로 고착된 남성은 청사, 여성은 가사라는 사고방식이 남아있음은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부장권의 출현 문제는 재고해보아야 하겠다.

IV. 맺음말

-제기되는 문제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의 과정은 단지 권력과 제도의 변화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준비하며 참여하는 한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 모두가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영역으로만 축소되었고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사회적 영역으로의 참여는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볼 때 크나큰 진일보이다. 또한 과학체계급과 지배계급 사이 즉 계급사회에서의 사회

적 관계 및 생산수단의 사유간의 물질 토대의 변혁은 여성해방이 계급해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보고자 했던 네가지 기본틀에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여성 현실을 비교·고찰해보자.

가족구조의 측면에서는 동양인 중국과 북한, 서양인 소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정도나 봉건성의 잔존 여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하겠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중심되어온 혈연과 효(孝)의 원리 그리고 가족성원간의 긴밀도는 문화적인 충돌이 거의없이 사회주의 변혁기나 현 사회주의 생활에서도 잘 융합되어 존재한다. 반면 소련에서는 이혼법과 낙태입법화로, 기존의 그리스정교에 기초한 여성경시는 어느정도 타파됐고, 서구사회와 같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원리가 지배적이다. 정통 맑스주의에서 말했던 Engels의 연속적인 일부일처제로의 지향점은 동·서양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공적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의 노동과 동일 임금의 조건으로서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진해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소련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했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특히 전체 인구의 80%가 농민인 중국의 경우 도·농 격차는 심각한 문제이다. 탁아소 시설의 미비는 여성의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며 그에 따른 사회적 노동에서 평등한 경쟁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북한의 경우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장 잘 돼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기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문제는 곧 성별분업과 교육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있다. 북한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성별 분리교육을 통한 남녀 역할을 고수하고 있다. 의식의 차원에서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려는 노력보다는 체제를 위한 그때마다의 지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가부장권이 출현하여, 가족중심의 사회를 강조하고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계급문제와 여성문제의 관계에서 사회변혁의 모델의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행과정의 착오인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속에서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사

회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재현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로 결론을 대신한다.

1) 사회주의적 가부장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2) 동양 사회주의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유교적인 남녀 구별의 교육은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3) 사회주의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있는 성별 분업의(공적 영역에서는 사적 영역에서는) 문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4) 그렇다면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회주의 권에서의 현실을 사회혁명 모델 자체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로 볼 것인가?

참고문헌

- 「북한여성」, 이 태영, 1988, 실천문학사.
- 「북한교육 발달사」, 김 영권, 1988, 한백사.
- 「여성2」 여성사연구회, 1988, 창작사.
- 「Woman and Russia」, 1979, Sheba Feminist Publishers.
- 「지연된 혁명」, 마저리 울프, 1988, 한울.
- 「세계여성운동2」 김지해역, 1988, 동녘.

- 「여성해방론」, 조금안옮김, 1988, 동녘.
- 「세계여성운동1」, 1987, 동녘.
- 「하늘의 절반」, 클로디 브로이엘, 동녘.
- 「한국의 여성과 남성」, 조 해경, 1988, 문학과지성.
- 「성, 최후의 식민지」, 멜로프, 1987, 한마당.



강간에 대한 일연구

손애리의 8명

HO	HO
HO	HO



HO	HO
HO	HO

강간자는 영혼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강간에 의해 침해되고 사회에 의해 배척받으며 나아가 스스로에게서 소외되어지는 강간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는 여성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게 가두어놓았다. 지금까지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은 행동상의 제약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사회의 성관계 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강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강간이란 여성의 동의없이 남성이 사기, 폭력, 협박을 사용하여 여성과 불법적인 육체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간을 여성의 의지와는 반대로 여성에게 강요되는 정당하지 않은 성적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강간이고 무엇이 강간이 아닌지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강간이 뒷골목에서 이루어지거나 낯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물리적 폭력에 의한 상처나 표시가 있으면 강간이지만, 강간이 침대에서 이루어졌거나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혹은 육체적으로 상처입은 것이 없다면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간이

란 후자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간이 인간의 존재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은 6천년간의 소송사건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부장 사회의 역사적 경향이 확립한, 지위·인종·성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진 가치와 법률을 반영하는 고정된 태도와 근거없는 믿음에 연결된 강간의 행위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종족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결혼이란 제도가 생겨났을 때에야 강제적 강간은 범죄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이 재산이나 어떤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지 여성이 개인으로서 지각되거나 고려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결혼에는 '막대한 거래'가 뒤따랐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성은 결혼전에도 결혼후에도 그 자신의 소유권을 소유하지 못했다. 결혼전에는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남편이 종족의 법률에 의해 그녀를 산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남편에게 소속되어 이 '재산'에 대한 손상인 강간은 남편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또 지역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 범죄가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은 개인적 권리가 없었고 그녀의 감정은 무시되었으며 오직 남성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식의 사고는 현대에

와서도 또다른 방식으로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간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자기혐오로 또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으며(그녀는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강간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등의 것들이 그렇다.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중의 하나가 '남자는 억제할 수 없는 성욕에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성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차이의 바탕이 되는 것 같다. 이 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자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난자는 수동적으로 정자가 침입하기를 기다린다. 추적과 침입이라는 원시적인 욕구 때문에 남자의 성욕은 공격성을 중요한 요소로서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것은 굴복하고 복종하는 여성들에 의해 확인되고 반응을 나타낸다. 이런 극단적인 남성의 지배 및 여성으로서 성관계를 가질때 남성은 가학적 환상을 가지며 여성은 자학적 환상을 갖는다는 것이 있다. 여성은 자신의 성적의지를 강제하려는 무지막지한 남성에게 사로잡힌 채 나약한 희생물이 되어 그에 의해 육

신이 불살려진다는 상상을 하며, 위압적인 남성으로부터 느끼는 공포의 전율은 여성에게 있어 예로부터 충동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여성에게 문학작품속의 레트 버틀러나 영화속의 킵핑 같은 주인공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통념(공격은 남자의 성관계에 있어서 필요부분이다)들은 매우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대부분은 인정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사고는 강간을 가능하게 하고 강간에 가까운 남자의 성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자는 성적으로 수동적인 대상이고 여자는 오히려 강간을 요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고를 낳는다.

'누가 강간을 당하는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성 모두가 강간을 당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6개월짜리 아기에서부터 93세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강간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강간은 어리거나 늙었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어떤 여자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괜찮다,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소녀조차도 강간의 위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몇가지 사례를 들

어보겠다.

① 19세의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남녀공학대학의 여자 기숙사에 기숙하고 있었다. 오후 2시쯤 학교 건물에서 멀어져 있는 곳에서 강간당했는데 강간자는 결혼한 젊은 남자로서 대학강사였다. ② 17세의 여고생이었다. 오후 4시쯤 그녀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차에 태워서 그 사람의 집앞 차고에서 강간했다. 그는 35세였다. ③ 39세의 이혼녀였다. 그녀는 5자녀의 어머니였는데 대낮에 남편의 친구라면서 방문한 남자가 강간했다. 강간자는 7자녀를 둔 아버지였다. ④ 20세의 여직원이었다. 그녀의 사장이 공휴일에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그녀는 출근했다. 그녀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사장은 30세의 남자였다.

위의 예처럼 강간은 늦은밤 어두운 골목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Washington D.C. Rape Crisis Center의 통계에 따르면 모든 강간의 50%가 집에서 일어난다. 강간은 도로, 거리, 지하도, Campus, 공공빌딩 어디에서고 일어날 수 있다. 희미한 불빛과 으스스한 곳이 그 위험을 더하기는 하지만 강간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대낮에 이루어지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강간자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강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풍조는 강간을 유지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 보고의 숫자는 실제 강간당한 사람의 10-2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숫자로 대학 추정해보면 미국 여자 3명중 1명이 강간을 당한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현재의 '가정'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놀라운 통계치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분명히 강간은 한 개인의 심각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요 이슈로 되고 있다.

누가 강간을 하는가? 대부분의 강간자들은 결혼하였고 일정한 성대상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강간 대상자를 잘 알고 있었고 보통은 강간을 계획하고 있었다(즉 그들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충동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강간의 60-70%는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 심리학적인 검증에 따르면 강간자들은 보통 남자보다 보다 폭력적이고 화를 잘 내는 편이었지만 그들의 성적인 특성은 보통남자와 다르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자는 강간자를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강간자들은 여러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예로서 한 강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왜 강간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내가 여자를 무시위하고 그들과의 성적 관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간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특별한 여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 방출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머니에 대한 복수로서 내가 강간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하는 강간을 정당화시키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의견을 이용한다. 그러나 내가 강간을 하는 진짜 이유는 강간이 아주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강간을 하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오히려 강간을 정당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예가 되겠다.

이쯤에서 강간을 다룬 논문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성관계 개념의 여성억압성」이라는 제목의 정대현씨 논문이다. 그는 잠을 자다가 강간을 당한 한 여공의 예를 들고 있다. 그녀는 '불면증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구로공단에서 투신자살했다. 강간의 이중적 피해를 단적으로

로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여공은 강간을 당하였으면서도(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더러워졌다는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정대현씨는 세가지로 압축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여성은 강간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라도 죽음으로써 끝까지 저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간이 이루어진 '저항 미수'는 저항이 아니게 되고 그 여성은 도덕적으로 더럽다고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선정적인 옷차림과 말투, 몸놀림, 그리고 '프로이트적 부주의'라고 할 수 있는 문단속의 소홀, 발거리를 다니는 것등이 강간을 유발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즉 그러한 요소들을 방지하지 않았다고하여 여성이 강간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신이 밝히는 언어적 의사표현은 무시되어지고 애매모호한 무언의 암시라는것이 더 중요시된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셋째, 성관계 개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입장의 고려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성은 두 의지가 만날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의지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남성은 자신의 의지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란 불가능하므로 여

성에게만 억압적인 것이다.

그러면 강간법들을 제재하는 법률을 살펴보고 이러한 여성 억압적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형법 제 32 장 '정조에 관한 죄' 제 297 조에서부터 306 조에 강간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다. ① 강간은 남성만이 여성에게 행할 수 있다. ② 강간의 법적 규정은 여성의 질 속에 남성 성기의 삽입만을 간음으로 본다. ③ 강간의 법적 규정은 다소의 폭력이 사용된 간음행위는 강간이 아니라고 본다. ④ 피해자인 여성은 범죄자인 남성이 무기 내지 형기를 소지하지 않은 이상 참된 반항을 표시해야 한다. ⑤ 어떤 여성의 반항은 반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서 ①은 생물학적 규정이므로 논외로하고 ②와 ③에서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수동성을 전제로 한 남성위주적 관점이 채택된 법률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④와 ⑤에서 우리는 강간죄의 실제적인 쫓점이 범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강간의 법적 규정은 강간이 일어나는 현실에서의 여성의 경험보다는 그 경험을 해석하는 규정으로서의 남성적 관점을 선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여성의 차별적 상황은 실제 통계 관행에서 강간신화와 가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확실해진다. 강간신화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완벽한 강간이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여 사전에 고도로 계획되어 큰 물리적 상해라는 결과를 낳는다. ; 강간의 발생시 쌍방이 만약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면 형량이 줄어든다. 직장동료, 친족, 연인사이일때 그것은 이전 관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② 피해자의 유발에 의한 남성의 성충동의 폭발이 강간이다. ; 사건의 발생시 피해자인 여성의 상태와 개인적 정황에 관심을 둔다. 음주여부, 정조의 준수여부, 가정내의 불화여부, 여성의 행실의 단정 여부등이 그것이다.

③ 강간범과 피해자는 모두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는 다르다. ; 강간범은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 내지는 사회법적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피해자는 순결성 여부를 의심받게 된다. 즉 피해자가 과연 보호받을만한 여성인가 아닌가를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행위 그 자체보다는 피해자의 상황적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를 말해준다.

④ 여성의 'NO'는 성행위의 쾌락극대화에 이용되는데 그리하여 강간당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도 보인다. ; 그러므로 강간이라는 행위자체보다

여성의 반항의 흔적을 찾는 것을 중시한다.

⑤ 여성의 개인적 이기심에서 잘못된 고발을 한다. ; 처음에는 화간의 성격으로 간음을 행하였으나 그후 여성의 입장변화와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고소를 함으로써 남성에게 피해를 입히고자한다는 것이다.

⑥ 어떤 피해자는 합법적 피해자이므로 진정한 강간피해자가 아니다. ; 부부사이의 강간이나 윤락여성에 대한 강간은 범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서 재판과정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신화가 사회속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런 결과에 의해 진정한 강간은 은폐되거나 정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의 사회구조적 지위우월성에 승복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그러한 차별적 상황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 이러한 강간신화의 내용과 성격은 여성의 지위를 격하하고 남성의 우월적 및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며 여성 스스로에 대한 소극성 고무와 함께 자기비하에 빠지게 한다.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은 우리 사회의 성개념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보여진다. 다음의 인용으로 법률 속에서 성차별 상황을 간단하게 마무리짓겠다.

—집안에 받아들인 남자친구가 급변하여 당신을 강간하

는 경우 그는 법원에서 기소될 수 없다. 법정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남자를 집안에 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그와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동의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법정은 당신이 현관문을 남성에게 개방하는 것은, 남성에게 개방은 그의 남근을 향한 당신의 자궁의 개방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야하고 서투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 사회와 법정의 사고방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시 바 책)—

우리 나라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 포악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강간등 이른바 성폭력 범죄가 다른 범죄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법무부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도, 강간을 포함한 강력사건의 경우 80년대 급격히 증가, 77년 5천3백3건이었던 것이 87년에는 8천9백45건으로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 강간사건은 이 기간동안 58% 증가, 전체 범죄발생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승용차 소유가 늘어나 범죄가 기동성을 띠면서 차량으로 납치, 폭행하는 경우와 강도사건과 연루된 강간,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강간, 밤늦게 학교나 도서관에서 귀가하는

여학생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경우, 판매원, 선도위원, 방범, 심지어 교사라고 사칭하여 성범죄는 횡행하고 있다. 성폭행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늦은 밤시간대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지만 최근에는 백주대낮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욱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어린이 대상의 성폭행이다. 어린이 성폭행은 피해어린이는 물론 부모에게도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주며 당사자는 공통적으로 자기혐오, 소외감과 함께 피해의식, 반항등이 나타나며 갖가지 사회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법무부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 강도범은 50% 이상이 재범을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라는 점과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수치실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범죄특성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은

이외 몇 배에 달하리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성관계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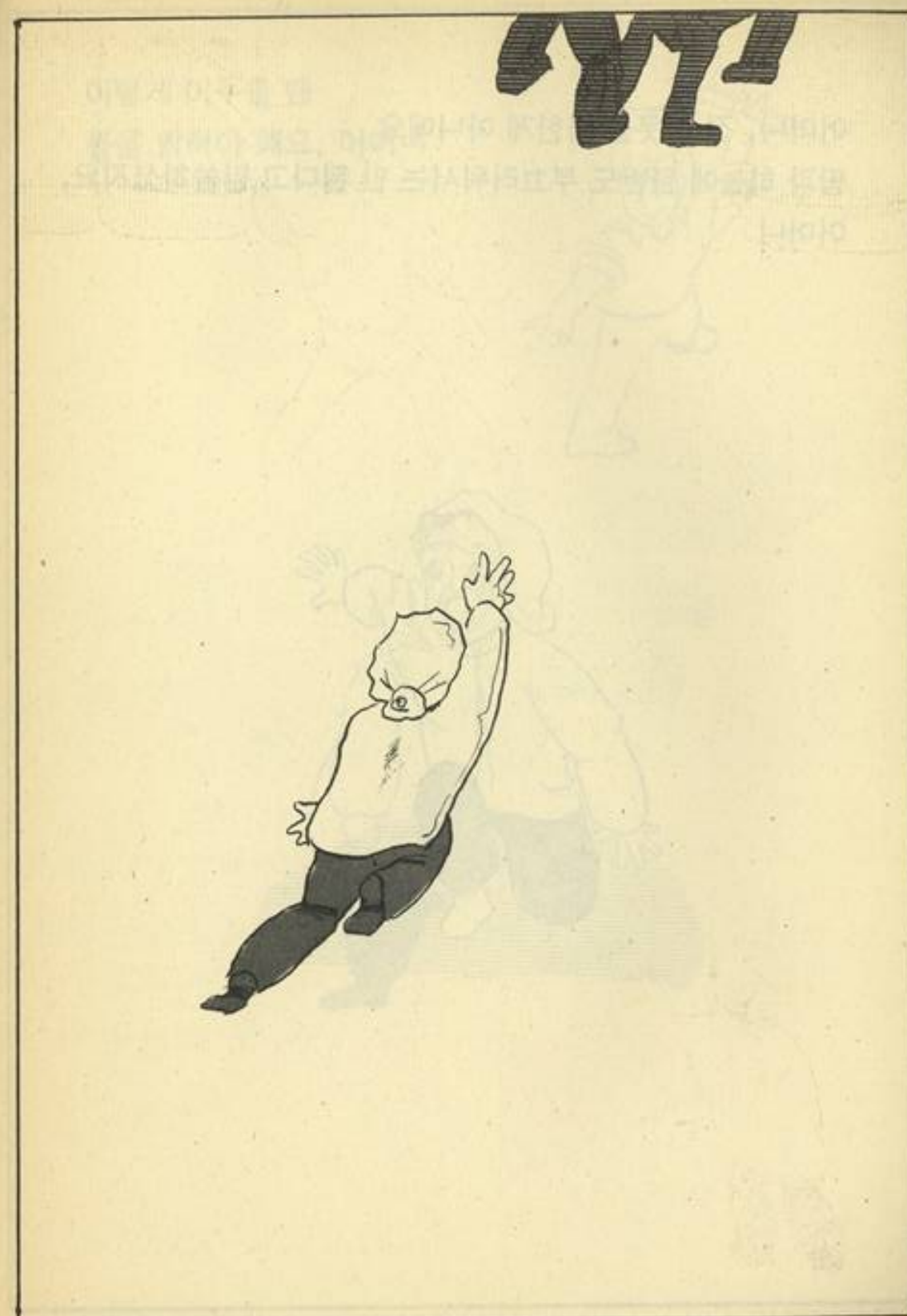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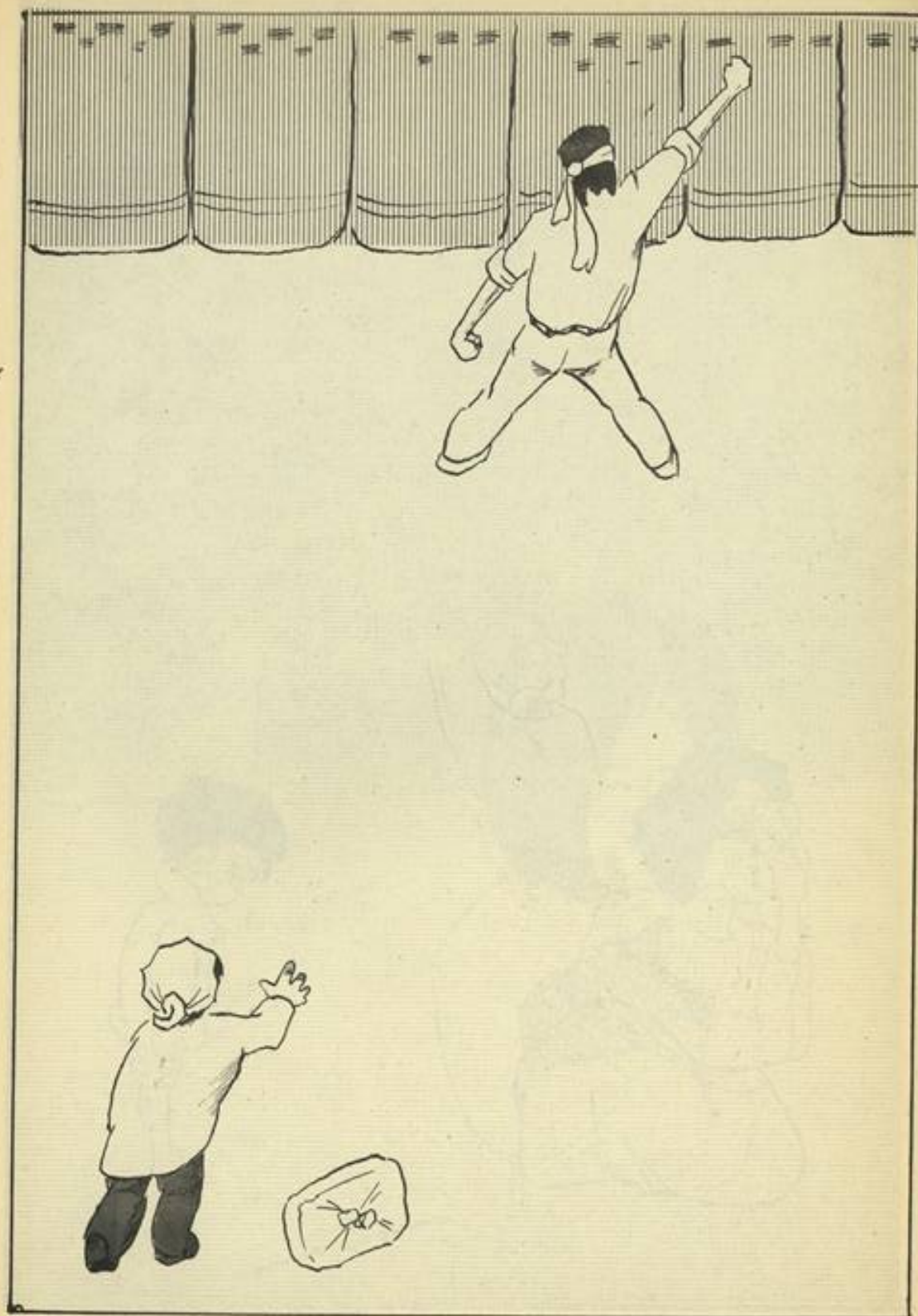
이런 성관계의 구조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우리는 가부장제 남성위주의 성행위로 부터 강간이란 개념의 원천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성이 물상화되어지는 성기 중심적 사고에서 강간의 증가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이 강간을 당했을 때 인생의 좌절의 고통에 비해 남성은 쉽게 강간하는 것 같다. 그것은 성관계가 특정의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합쳐된다는 본질에서 떠나,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일 것이며, 남성과 남성의 성기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의 발산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문화에서 가능해지는 것 같다. 이런

근원적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논의되어야 하며 성을 인격화시키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보는 성의 상품화의 근절, 평등한 남녀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도 논의되어야 한다.

남녀간의 성관계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구조적 총체물이다. 강간이라는 개념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여러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며 간접적이고 느리지만 점진적 의식의 변화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생각된다. 강간당한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가려한 피해자일 뿐이다. 또 여성의 문제는 그것에 대처하지 못한 개인적인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하는 사회구조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

어머니





어머니, 전 잘못을 범한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에 한번도 부끄러워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머니



이렇게 어두울 땐
불을 밝혀야 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식에게 젖꼭지를 물린다.
산이라면 산을 넘어
강이라면 강을 건너
아, 우리들의 어머니!

강박기

○나우정밀노조를 다녀와서
○탁아소 <사랑터>를 다녀와서

— 편집부 —



나우정밀노조를 다녀와서

-편집부-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50호에 나우정밀 주식회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 회사는 전화기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고 사원은 약 800여 명 정도이다. 지난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기에 나우정밀사원들도 뜻과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지금까지 '구로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활동을 해오고 있다. 회사에는 기사직에 남자사원이 있지만, 노조는 모두 여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주부 사원도 있어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비율은 6:4정도이다.

나우정밀노동조합은 1987년 8월 20일에 결성식을 가졌다. 22일 노조 설립 신고서를 구로구청에 접수시킨 후, 바로 결성보고대회를 갖고 임금인상 투쟁에 돌입하였다. 28-29양일간의 파업농성을 통하여 임금 12.5%의 인상을 쟁취해내었다. 9월5일에 노조헌관식을 갖고 이후 몇차례의 단체협약과 금년 3월의 임금인상 싸움을 주도하였다.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의가 있고 총무

부, 교육부, 홍보부, 조직부, 생의부, 법규부, 조사부, 여성부, 문화부, 체육부, 복지후생부의 부서가 있어 각각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합원은 총 460여명 정도로 이들이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내는 3000원의 회비로 조합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무릇, 노조는 이 사회 생산의 주체이면서 가장 억눌려 살아온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건설한 조직으로, 우리가 특별히 '나우노조'를 방문한 이유는 여성들로만 구성되어있는 나우노조가 하는 일반적 노조활동과, 여성으로서만 이루어졌다는 특수한 조건속에서 벌이는 활동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방문 날짜는 미리 전화로 약속을 했고, 위치와 가는 방법은 그 쪽에서 상세히 알려주셨으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다. 처음 방문한 날은 날씨도 스산하고, 경비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았을 때는 제법 비장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그러나 사무실에 들어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사무장님을 뵈었을

때, 그때까지의 긴장감이 무색해졌다. 노조 사무실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의 한 가운데는 태극기가, 좌우로는 금속노동조합연맹기와 대한노동조합총연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자리를 잡고 음료수 대접까지 받은 우리는 마치 기자라도 된 듯한 기분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이 회사에는 남자사원들도 있는 것으로 하는데 왜 노조엔 여자들만 가입했나요?

비의 사상이 여기까지 미쳐 남자사원의 가입을 막았나 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번 3월 싸움에서는 남자사원들이 전부 구사대가 되어 조합원들을 탄압했다 한다. 그래서 남자사원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는데.

=남자들도 회사에 불만은 많은데 팔린 가족이 있으니 아무래도 회사 눈치를 많이 보나 봐요. 그래도 앞으로 같이 해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같이 해야죠.



=결성초기에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노조설립을 준비하셨던 부위원장님 한 분이 남자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위장취업자'로 몰리면서 강제사직서를 쓰신후 모두 탈퇴했어요.

-그 뒤에 가입한 사람은?

=없어요. 조합원이 모두 여자고, 또 집행부전원과 위원장님이 여자이니까 그런데서 오는 위화감도 있나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나 뿌기깊은 남존여

사부장님 나름대로는 노동법이 개정되어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남자사원들도 노조를 세우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싸움을 하시나요?

=여성문제가 그리 전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생리휴가 같은 것은 전부 보장되어 있고, 남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남자들은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리 많은 것은 아

니죠.

사무장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이 수준이 낮아서 여성차별이 싸움의 주제가 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남성노동자들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남성들과 동등한 임금을 쟁취하는 것보다는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획득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여자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는가하고 물었다.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싸울 때…….”

—참, 싸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막 싸워요. 남자들은 목을 조르며 달려들기도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잘 싸우세요. 우리가 힘을 합해 달려들면 남자들도 어찌지 못해요.”

조합원 모두가 여성이어서 여성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성을 떠나서 인간으로 서로가 하는 의지로 이해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마치고서는 사무장님 개인의 이야기를 물었다. 사무장님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 1년은 너무도 고역스러웠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시작한 사회생활이란 것이, 학창시절에 꿈 꾸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고, 여가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을 뿐더러 몸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데도 강제잔업을 해야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가 노동운동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집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반대는 안하시는지?

“처음엔 회사쪽에서 시골집에 찾아가 당신 말이 회사를 망하게 하니 데려가라는 등, 불순

세력에게 잡혀 있다는 등 하면서 협박도 하고, 노조에서 나오면 사무실에 넣어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오시고 많이 우셨는데, 당신께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오셨으니 이해를 해주시더군요. 저는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노동운동을 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이번 추석에 내려갔을 때는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시다. 자식만은 편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나 어머니 역시 이 땅의 고통받는 민중이시므로 운동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격려해주셨다. 어머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잔뜩 심각해져 있는데, 작업이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다쳤다. 시끌시끌 북적북적 ‘떠드는 것은 어디나 같구나’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일단 발걸음을 돌렸다.

두번째 방문에서는 위원장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단발 머리,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를 한 위원장님은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계셨다.

—저번에 오실 때는 계시지 않던데…….

“네, 노동악법개정을 위해 서울지역 노조 위원장들이 모여 단식투쟁을 했어요.”

—조합원들이 위원장님을 모셔와야 한다고 많이들 하시더군요.

“네, 많이 왔었어요. 가기전에 조합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만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단식까지 하면 우리 조합원들도 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조합원들이 많이 왔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스레 웃으셨다.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도 여러 회사를 다녔으나 노동 운동은 이번이 처음이시라는 데,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찌 그리 커다란 용기와 힘이 솟아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도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각오를 저는 물론 집행부 모두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니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노조가 생기고 난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아주머니들은 강제잔업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시던데.

“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잔업이 일반적이었는데 싸움을 하고 난 뒤에는 5시 30분이면 정상근무가 끝나요. 대신에 임금은 좀 적죠. 전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임금 인상도 임금 인상이지만, 전에는 남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꼼짝도 못 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으며, 전에는 한 라인(작업대)에서 일했어도 얼굴만 알고 말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이야기 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다는 위원장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듯 튼튼한 노조를 꾸려내셨다는 우리들의 말에 “노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속에서, 겸손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해나가려는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었다.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마치고는, 조사부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사부장님은 우리 대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시다가, 동생의 주민등록증으로 취업을 한 소위 ‘위장취업자’로서, 그러다 얼마 안 있어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밝히시, 경찰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보호와 도움으로 지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다.

—조사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단체협약준비를 위한 설문조사와 조합원 의식조사등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

조.

-이 회사에 입사하신 동기는?

=학교에 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물론 학생운동을 좀 했었어요. 고민 끝에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하는 길을 택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반대는 안하시는가 물으니 집에선 이젠 포기하고 뜻대로 하라고 한다며 히히 웃는 그 분의 얼굴에 삶에 대한 강한 애정이 엿보였다.

조사부장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끝났던 두 번의 탐방을 마감했다. 노동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이도 우리 또래이다. 길에서, 버스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우리 동무한 생각이 절로 들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우린 아쉬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떠났다. 나오면서, 나우노동조합이

〈사랑터〉를 다녀와서

-편집부-

이제는 겨울인듯 조금은 차가운 날씨. 처음 해보는 탐방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 저것 챙겨가며 신촌 로타리에서 118번 버스에 올랐다. 버스로 한시간을 가, 구로 시장 앞에 내려 조그마한 골목을 두어번 돌아보니 조그만 집의 〈사랑터〉가 나온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에서 탁아소 활동을 했지만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보니 '탁아소'하면 어느새 머릿속에서는 유치원쯤되는 건물을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곳과는 좀 틀린 조그마한 집이랄까. 대문을 열면 바로 현관에 아이들의 신발이 차곡차곡 놓여있고 문을 열면 넓은 방.

아이들이 방금 낮잠을 자기 시작한 듯하다.

자는 아이, 자기가 싫은지 눈이 동그래서는 우리를 쳐다보는 아이, 선생님 두 분도 함께 누워서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주고 계시다. 2시에서 4시까지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오기는 했지만 막상 와보니 아이들이 자지 않으면 선생님들과 얘기도 나누지 못할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꾸그리고 반쯤 누

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몇분쯤 지났을까 "이제 편히 앉아도 되요" 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앉기는 했지만 왜 이리 졸려올까—.

새근새근 자는 아이들을 보니 문득 나도 저 맘때로 돌아가 낮잠이랑 밤잠이랑 많이 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께서 타주신 커피랑 사과를 먹으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사랑터〉는 84년 9월 1일 사랑 교회 김광훈 목사님이 구로구 가리봉동에 만드신 것으로 그 당시 아이들은 6명, 선생님은 한 분이셨다. 목사님의 설립 목적은 민중 교회를 뿌리 박음으로 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함을 느끼고, 그들의 신뢰를 탁아소를 통해서 더욱 깊게 하는 것과, 여성 해방 운동의 전제 조건인 육아 활동의 사회화, 즉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나, 그러한 여성의 취업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



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의 전제 조건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의 머릿 속에도 남아 있는 '탁아소'에 대한 이미지. 마치 북한에서 못 할 것을 하는 곳처럼 박혀있는 탁아소의 이미지를 개선하느라 처음 몇 년간은 아이들 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금이나 교사 문제, 그리고 부모님이 막노동을 하시는 경우 거울에는 부모님이 쉬시므로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88년 11월.

아이들은 만 2세부터 6세까지 20명이 있다.

하루의 일과를 보면 7시 30분부터 하나 둘씩 모여들어 자유 놀이 시간(주로 책을 보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9시 20분부터는 아침밥을 먹고 3~4세 어린이와 5~6세 어린이를 나누어서 단어 익히기, 이야기 나누기, 동화 읽

기, 그림 그리기, 모형 만들기 등을 하며 공부하다가 12시 20분에 점심을 먹고 뛰어 놀다. 드디어 2시가 되면 낮잠을 자고 4시 20분에는 오후 간식. 그 후에는 오후 놀이(함께 노래 부르기, 율동, 게임 등). 6시가 되면 집에 갈 준비를 하고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터>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 곳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하나 차차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노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친근해진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있다가 이곳에 오면, 무엇이든 나누어 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특히 부족한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아야 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은, 뚜렷한 교육 목표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순간 순간 재미있게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놀이,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정해야 하는데, 탁아소로서는 취학전 아동의 취학 준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자연스레 이어져야 할 탁아소→유치원의 교육이 시설의 미비등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역내 공부방등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탁아소에 아이들을 보냄으로써 서로 연계를 맺는 부모회의 상황에 대해서 여쭙보았다.

부모님들의 직업을 보면 어머님들은 주로 노동, 아버님들은 노동, 막노동, 말단 사무직 등으로, 어머님들의 경우는, 물론 생계가 어려워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으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보람과 노동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분들 역시 처음에는 탁아소에 대해 조금은 꺼려하시지만, <사랑터>에 나가면서 아이들의 성격이 밝아지고, 공부한 내용을 자랑하고, 건강해지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탁아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임에 자발적으로 나오신다.

어머님들의 모임은 월 1회로 규정되어 있고 탁아소 운영의 세부적 내용이나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삶(어떤 때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내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상의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아버님들의 모임은 후원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지역내 서로의 신뢰감을 쌓아 지역 운동의 발판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교사와 자원 봉사자에 대해 여쭙 보았다.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신념과 보람이 있기에 이러한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었는가 무척 궁금했는데 선생님들은 많이 웃기만 하신다.

이 곳의 선생님은, 29세와 30세의(그러나 아직 처녀이시고 젊어보이는) 두 여성으로, 탁아소 운동은(작년부터 '운동'의 수준으로 올라

섰다) 여성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일을 시작 하셨다. 이 세상의 절반이며 또한 변혁의 주체로서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지금까지 몸매에 온 의존성, 소극성을 깨치고 변혁 과정속에서 자신이 주체라는 것을 깨닫는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속에서 가장 착취 받고 있는 기존 여성 노동자들이(기혼인 경우에는 미혼 여성보다 더 많은 착취와 불이익을 당한다) 자녀들을 탁아소에 맡기면서 이를 계기로 서로 만나고 교육 받으면서 의식화, 조직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 이것이 탁아소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하셨다.

아!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모든 어느 순간의 결정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지 이처럼 변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을 하루의 절반 이상을 바쳐가며 하려 하지는 않는데...

자원 봉사자들은 대부분 서울 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여대협)와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랑터>에는, 현재 연세대와 숙명여대에서, 7명이 1주일에 1~2회 나오고 있다.

자원 봉사자를 받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탁아소 활동을 단순히 '봉사'의 차원으로 보고 오는 경우이다.

이 활동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알고 '함께 함'을 아는 어린이를 만드는 것, 부모님을 변혁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의식화, 조직화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없이 활동을 할 경우 자원 봉사자들은 힘든 일, 단순한 일의 반복인 첫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어려워한다고 한다. 그러나 꼭 이렇게 거창한 생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여성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성과물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탁아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지역내의 탁아소를 이후 유아원, 유치원 또는 공부방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교회내 대중 사업의 하나로 지역 운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지역의 활동으로는 지탁연(지역 사회 탁아소 연합회)의 변화, 발전을 들 수 있다.

지탁연은 탁아소 운동의 전국적인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탁아소 활동이 거의 그러했듯이, 빈민 탁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빈민 탁아소란 말 그대로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함으로 해서 부모의 직업이 상업이나 일당 막노동으로, 노동자처럼 일정한 연계를 통한 조직화가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빈민 탁아소의 운영은 거의 몇몇 단체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므로 탁아소 활동을 봉사의 하나로 생각하게 하고, 부모들은 매우 작은 보육비를 지불하

므로 탁아소가 자신의 기관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스스로의 주체적 참여가 부족하며, 부모의 직업이 막노동인 경우 여름과 겨울의 잠재 실업으로 인해 탁아소 활동이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빈민 탁아소가 중심이 되고 있는 지탁연이 올바른 서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지역별 탁아소의 연계 속에,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탁아소끼리의 연계속에(노동자 탁아소끼리 혹은 빈민 탁아소끼리) 지탁연이 그 구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탁아소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여쭙 보았다.

지금까지 얘기해온 탁아소 운동은 모든 부문 운동이 그러하겠지만 그 자체 하나만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노동 운동, 여성 운동, 지역 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리라 생각에 여타 부문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었다.

탁아소 운동은 물론 올바른 노동관, 공동체 의식을 갖는 어린이 교육의 의미도 있지만 그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노동 운동, 특히 어머니인 여성 노동자에게 주체 의식을 심어주어 변혁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여성 운동, 그리고 그 지역내 운동 단체들(지역내 공부방, 노동 단체, 의료 단체)과의 연계, 주민들과의 연계를 탄탄히 함으로써 지역 운동의 밀거름이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 김장, 공동 빨래 등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얘기가 끝날 무렵이 되니 아이들이 하나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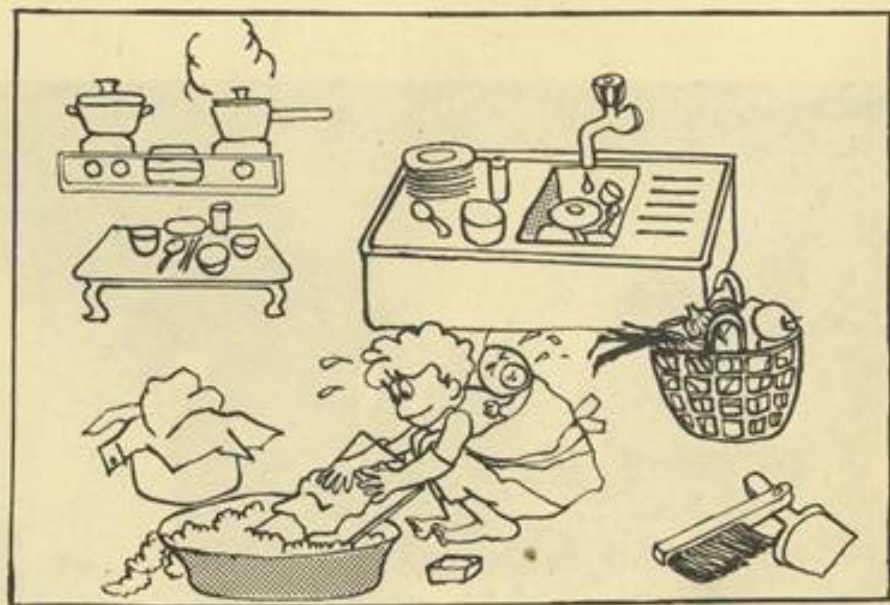
씩 깨어나기 시작한다.

“선생님 쉬 마려워요.” “선생님 배 고파요”, “선생님 다영이 보래요”…….

잠에서 마약 깨어난 아이들의 표정이 참 맑다.

오늘의 간식은 소세지 튀김이라면서 같이 먹자는 선생님의 권유를 뒤로 하고 떠나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다. 처음에는 별 생각없이 하계된 탁아소 탐방이 탁아소 운동의 중요성과 이 활동을 하게될 때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알게 했고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좀 더 친근한 말로 우리 연세 오친 여학우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 곳에 오기전의 멀림보다 더욱 나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밥지

잉태논단



우리시대의 손

1977 특필

- 한국에 있어 장애인 소외와 극복방향
- 다시 반봉건문제에 대하여

한국에 있어 장애인 소외와 극복방향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회 연구부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의 개념과 정의
 2. 한국 장애인의 원인분석과 현황분포
- III. 한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전망
- IV. 한국에 있어 장애인 소외와 극복방향
 1. 왜곡된 장애인관
 2. 유효 노동력의 장애인
 3. 자본제적 생산관계와 장애인
 4. 장애인 운동의 성격
5. 한국 장애인 운동의 과제
- V.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장애인 대다수의 실업상태, 취업장애자의 저임금상태, 특수교육의 미흡, 교육 수용시설의 절대적 부족, 중증장애자의 절대적 빈곤 등의 사실이 한국장애인의 생존권과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의욕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자각은 매우 둔감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장애인 문제가 신체적 한계에 의해 파생되는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문제로 왜곡 인식되어 문제의 본질적인 발생구조를 간파하지 못하고 편협적인 이해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장애인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장애인 스스로 문제의 '본질적인 전체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접근이 불가능하여 장애자는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입자가 아니라 주변인 또는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정부 건의가 청원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책마련의 진척이 미진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장애자의 인식제고와 그와 동반한 역동적인 투쟁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자명한 사실이다.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라는 최고의 호전된 상황에서조차 허구 투성이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얻어낸(사실은 주어진 것이다)데 불과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88년의 상황이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기권리를 위한 투쟁에 소홀했던 한국장애자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한국 장애인운동의 정립을 위한 결연한 각오가 요망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초에 입각하여, 장애인 복지 실현의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의 부재와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조직력이 미약하다는 전제하에 장애자의 일반적 성격을 소고하고, 그것을 한국의 실정에 현실화 시키는데 있어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장애인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구상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II. 한국 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의 개념과 정의

우리나라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음성·언어기능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정신적 결함으로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장애자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의 결과, 적절한 직업을 확보·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받은 개인을 말한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장애자의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자란 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간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해 일반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자신으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나 기능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다.

상기 3개의 장애자의 정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장애자는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장애를 가지며, 둘째는 이러한 장애는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영속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장애자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서 의학적·심리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장애, 사회생활 곤란의 장애의 양면을 중시해야 하겠다.

1979년 제34회 UN 총회가 승인한 '국제장애자의 해 행동계획' 62항에 "생리적·의학적 장애를 impairment(신체적·정신적 결함)라 하고 이에서 문제되는 기능적 장애를 disability(능력·기능장애)라고 하며 또 이에서 문제되는 사회적 불리를 handicap(불리)이라고 한다." 즉 impairment(결함), disability(무능력), handicap(불리)등의 문제상태를 정상상태로 전환키 위해 재활(rehabilitation),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rgration)등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겠다. UN(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추정(약 5억 추정-1980년)하지만 지역·경제·문화·환경적 차이로 인하여 확실히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전 장애인 인구의 70%(약 3

(표1) 국제장애분류(ICIDH)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Language(언어)	Speaking(말하는것)	Orientation(순용)
Hearing(청각)	Listening(듣는것)	Physical Independence(신체적자립)
Vision(시각)	Seeing(보는것)	Mobility(이동)
Skeletal(지체)	Pressing(입는것)	Social integration(사회통합)
Psychological(정신)	Feeding(먹는것)	
	Walking(걷는것)	
	Behaving(행동하는것)	

억5천만명 추정)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적인 장애의 원인은 구미 선진 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마약·알콜중독등과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 능력 만능주의·산업재해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장애의 원인의 질적인 차이는 있을 지라도 질병의 퇴치·핵의 공포·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장애문제에는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리라 하겠다.

2. 한국 장애자의 원인분석과 현황분포

(1) 지체부자유

수족의 부자유를 지체부자유라고 한다. 부자유란 "뼈·관절·근육 및 신경등에 장애를 지니고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지·운동기능이 지속적으로 방해되는 상태"이다. 사람의 몸은 골조가 되는 골격과 골격의 마디마디, 즉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어 여러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신경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체라는 것은 주로 이와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며,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의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을때, 대체로 운동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지체부자유라고 한다.

(2)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눈의 여러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며, 시각장애를 가진

자를 시각장애자라고 한다.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눈의 본질적 기능이라 하겠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조명할 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光覺), 눈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때 이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를 手動,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指數로 표현한다. 그리고 일반 활자를 읽을 수 없으나,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弱視라고 한다.

(3) 청각장애

말을 이루는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들은 소리를 뜻 있는 말로 해석하는 중추기관에 이상이생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청각장애라고 한다.

주로 큰 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경우와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난청(難聽)이라 하고, 청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농(聾)이라 한다.

(4) 음성·언어기능장애

음성·언어기능 장애자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음성이나 언어에 장애를 갖게 되는데, 그 원인은, 뇌성마비등 언어중추손상 구개파열장애, 말더듬, 농이나 난청등에 의해 언어습득이 곤란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지능 지체가 심해

언어능력 장애를 갖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언어장애는 주로 청력장애적인 것을 제외한 장애 즉 언어전통기관인 치아, 혀, 입술, 턱, 인두, 후두에 장애가 있는것과 신경계통의 장애 및 환경적·정서적 요인으로 오는 장애 등을 의미한다.

(5) 정신박약자

정신박약이란 정신발달의 지체로 인해서 지적 기능이 평균 이하이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적응은 할 수 있으나, 많은 사회활동, 교육이나 직업면에서 완전히 독립적 위치에 서기에는 곤란한 자들을 말한다. 정신박약을 진단하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측정된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대개 그표준편차 이하의 낮은 지능지수 70이하를 말한다. 둘째는 지능지수 70이하라고

해서 모두 정신박약자라 할 수 없고 이들 중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자성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즉 적응능력에 문제점이 있을때 정신박약이라고 말한다. 세째, 이러한 지능과 적응상의 문제를 겪은 것이 18세 이전 미성숙시기, 즉 발달시기에 일어났을 때 정신박약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의 원인은 시대와 사회·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립적으로 규정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간다운 삶'의 달성을 위한 사회 일반인의 의식개선과 제반 국가 행정의 노력, 그리고 각 국가간의 협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는 사전적인 분석과 사후적인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사전적인 분석에는 사회 일반 생활상에서 분석을 중심으로

(표2) 장애의 원인분석과 실태(1985년 인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장 애 유 형		총 수 자	발 생 원 인	
		91만5천(100%)		
지 체 부 자 유	수 자	53만3천	선천성 출산 장애	2.4%
	마 비	46.9%	난산·미숙아→	
	관절 운동 장애	16.8%	출생시 장애	1.4%
	기 형·변 형	16.1%	교통사고·산업재해·노령화등→	
	통 증	14.4%	후천성 장애	96.2%
시 각 장 애	수 자	5만9천	출산전 장애	7.4%
			출산중 장애	4.9%
청 각 언 어 장 애	수 자	24만4천	출생후(외상·약물중독·영양실조) 장애	87.7%
	청 각	10만8천	출산전 장애	4.3%
정 신 박 약	언 어	10만6천	출생시 장애	0.6%
	중 복 장 애	2만9천	출생후 장애	95.1%
			노령 장애	36.5%
			중이염 장애	16.7%
			고막파열 장애	10.2%
			뇌졸중 장애	1.4%
			기 타	22.4%
		7만9천		

하는 의식의 면이고, 사후적인 분석은 질병등의 발생에 기인된 질병치료의 면에서 바로 볼 수 있다. 사전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인간 생활상에서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장애라는 결과의 발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 일반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장애인 숫자의 정확한 파악과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물질만능주의의 절대적 지향으로 인한 안전보장등의 결핍이 있다 하겠다.

III.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전망

지금 우리사회의 400만이 넘는 장애인들은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이유로 빈곤계층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인간 소외의 방향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전시행정적이고 안일한 장애인 정책 탓이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시혜적, 전시적 차원이 아닌 면밀하게 연구되고 계획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사부는 우리나라 장애인 수를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91만 5천명 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 유럽, 북미,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집계한 통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어떠한 나라를 보더라도 인구의 7~8%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5~7%는 매우 심한 정신박약 및 질환자 들이다." 또한, 국제재활협회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는 5억이상의 장애자가 있고 어느 나라든 적어도 10인 중 1인은 심신장애자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통계와 세계의 통계와의 현격한 격차는 장애인에 대한 낮은 정

책적 관심을 드러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1988년도 보사부 '심신장애자 복지시책'에 의하면 그 예산이 179억 6천6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다시 112개의 장애인보호시설과 단체,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2354명의 인건비 등으로 지원되며, 시설과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 숫자는 1만2천명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모두 제도권 밖에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에 즈음하여 정부에서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조항이 대부분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있는 유보조항으로 되어있어 장애인들의 생존권내지 생활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장애인복지가 '시혜적 대우'로 부터 '당연한 권리'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은 하루속히 전면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 복지를 위해 행정업무들이 18세이하의 장애아동의 보호의무는 보사부 재활과에서 특수교육, 특수학급대상아동의 관리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문교부 의무교육과에서, 상이용사와 국가유공자의 지원, 관리, 보호는 국가보훈처에서, 산재장애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노동부 근로복지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각기 분산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시책을 펼칠 일원화된 전담행정부서의 설치가 크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4백만이 넘는 심신장애자 복지를 전문적 종합적으로 다루며, 그 대책을 입안, 시행, 조정, 감독하는 권위있는 국가기관이 성립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장애인 복지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용및 취업문제에 의무고용제를 실시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4백만이 넘는 장애자들 중에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즉 장애를 입었다 하여 의료법, 약사법, 위생법,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명인및 약시자의 입시시험 등등에서 불이익을 받게하는 제반악법은 반드시 철폐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전무한 한국 장애인 복지정

책은 앞으로, 장애예방, 의료보장, 교육보장, 직업재활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한국에 있어 장애인소외와 극복방향

1. 왜곡된 장애인관

노동의 실현과 직·간접으로 있는 모든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교통수단, 공공시설의 이용,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사회구조가 비장애자의 심신적인 구조와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됨으로써 장애자는 거의 모든 사회적 생활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 사회제반 권력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비장애자들에 의해 장악, 유지, 발전되어 왔다는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의 최대 관심사는 고용된 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자본가의 수중에 얼마나 많은 이윤을 극대화 시켜 줄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극대이윤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고있는 자본가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으로 노동능력이 저하된 장애인(전체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낮은 장애자는 소수다)을 고용하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이다. 지배계급(소수의 자본가및 그들의 대리인)의 이러한 이해 관계를 본질로 하는 장애인관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수의 무소유자인 비장애자에게 파급, 전파함으로써 장애자는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며 그 결과 노동력이 극히 낮아 사회적 부를 축내고 있는 기생적 존재라는 왜곡된 고정관념이 확대재생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장

애자의 존재 그 자체가 부정되었던 시기도 있다. 플라톤은 그의 '이상국가'에서 "인구와 재산의 균형을 위해 허약아와 불구아는 유기 혹은 살해해도 된다"고 주장 했으며, 고대 스파르타인들은 냉엄한 생태학적 방법으로 장애자를 처우하여 생존권을 박탈하기도 하였고 법전에서도 백치를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장애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정되었던 존재이며 실사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발전되었다하더라도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한 장애자는 생산적 측면에서 노동력이 낮아 자신의 노동만으로는 생산수단을 확보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대상화된 존재에 불과 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같이 왜곡된 논리의 배경에는 최대이윤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자본의 비인간적인 운동법칙이 숨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장애자는 그들의 심신적 조건에 의해 생산력이 극히 저하되어 생활자료를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비주체적인 피지배 계급이다. 이것은 극대이윤의 확보를 추진적 동기로 하고있는 자본의 논리가 저하된 운동능력의 지속이라는 인간존재의 특수성을 전면으로 부각시킨 결과 심신의 결함은 곧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단순 논리를 성립케 하였으며, 이러한 논리의 확대 재생산에 의해 장애자의 빈곤은 필연적인 것으로 왜곡된 결과이다.

2. 유효 노동력의 장애인

장애정도가 다양하다는 장애인 나름의 특성은 자신의 노동만으로는 생존수단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장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운동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누워서 살아가는 소위 식물인간도 있으며, 얼마간의 반

복된 훈련에 의해 단순노동만이 가능한 정신박약자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국가나 사회의 보호가 없는 한 당연히 그들의 생존권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일정한 범주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이 곧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논리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심신의 장애는 곧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지배계급의 통일적 논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이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다수의 장애자는 노동력이 결코 열등하지 않다. 예를들면 1910년 포드형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그 공정은 7882개로 이 중 670개의 공정은 두다리가 없는 근로자도 충분하며 2637개 공정은 한쪽다리가 없는 근로자도 할 수 있다. 두 팔이 없는 직공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으며 715개의 공정은 한팔만 직공도 가능하다. 눈 먼 직공도 10개의 공정을 할 수 있다고 포드는 자서전에 쓰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생산의 51% 이상되는 공정에서 장애라는 조건을 갖고서도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의 정도가 감안된 노동의 경우에 있어서 비장애자인 노동자와 비교 했을 때 과연 장애자의 노동생산성이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또한 상식적으로 이와 반대의 경우를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다양한 노동과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반영된 일정한 조건을 전제한다면 오히려 비장애자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유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청각장애자는 집중력이 비장애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곧 잉여가치의 생산량에 의해 연결 될 것이다. 청각장애자 뿐만 아니라 장애자 일반이 자신의 심신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면 장애정도가 감안된 노동에 있어서는 최소한 사회적 평균의 노동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포드자동차 생산공정에 있어서 노동환경이 비장애자 중심의 구조일 경우 두 다리나 두 팔이 없는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는 자신의 신체적 구조에 적합한 노동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력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 혹은 엘리베이터의 시설 그리고 노동과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두 팔이 수행해야 하는 일상적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시각장애가 고려된 물리적시설의 보완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의 성립하에서 장애정도가 반영된 노동형태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애자의 심신적 조건에 따른 물리적 환경이 수반되어야만 자신의 노동으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자는 생물학적인 조건에 반드시 물리적 환경이 수반되어야만 노동력의 실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경증장애자의 경우에는 비장애자 중심의 노동환경하에서도 일반 노동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상적으로는 위의 포드자동차 생산공정에서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자와 한쪽 팔을 상실한 장애자(전체노동과정의 42.5%) 및 이보다 장애정도가 약한 다수의 지체장애자는 굳이 장애정도가 감안된 노동형태에의 접근과 이에 수반되는 물리적 환경이라는 전제조건 없이도 일반노동자와 경쟁적으로 노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장애정도가 감안된 노동에의 접근(포드 자동차의 예)과 각 장애별 특성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의 전체조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저하된 노동능력의 지속이라는 조건하에서도 다다수의 장애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실현하여 국가나 사회의 특별한 보호 없이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합은 곧 노동능력의 상실이라는 획일적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 받을 수 없으며 대다수의 장애자는 장애라는 조건하에서 일정한 형태로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실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나 사회 혹은 가족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비주체적인 장애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3. 자본제적 생산관계와 장애자

이상은 주로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에 의해 저하된 장애자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왜곡된 장애자관을 반박한 것이다. 단적으로 "심신장애자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받는 자" 혹은 "신체장애자라 함은 몸의 사용에 장애가 있어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상업능력이 뚜렷이 저해 되는 자" 등의 일방적이고 비주체적이며 대상화된 기존의 장애자관을 논박한 것이며 동시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장애자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 했듯이 장애자는 특수성이 고려됨과 동시에 자본의 비인간적인 운동법칙이 관철되는 자본제적 생산관계에 흡수된 사회적 존재로서 장애자를 파악할 때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자가 집단적으로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한 극점(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된 무산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보편적인 사회관계를 무시하고는 장애자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도시빈민 그리고 대다수가 실업자로 존재하는 4백만 장애자는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된 무산자이다. 한국자본주의 무산자인 4백만 장애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이라는 심신적 조건하에서 거의 대다수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생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다. 한편 극대이윤을 목표로 하는 생산수단 소유자인 자본가가 장애

정도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이 수반되어야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장애자를 고용한다는 것(여기서 물리적 환경의 전제 없이도 노동력의 실현이 가능한 경우는 배제한다)은 비장애자인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에 추가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장애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잉여가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도 않는 불변자본의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이윤의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자본의 논리와 상반되는 것으로 장애자 대다수가 실업자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법칙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당연한 연장에서 비장애자인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하에서 장애자가 어렵게 노동의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저임금의 강요, 승진, 차별, 불황시 우선해고 등 자본의 강도 높은 노동력 착취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의해 정상적인 노동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노동력의 조기 노형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이외에 달리 소득의 원천을 갖지 못하는 무산자로써의 장애자집단의 생활은 절대빈곤계층의 기생적이고 소모적인 생존양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무산자인 4백만 장애자의 빈곤은 심신적 결함으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의 지속성에 그 원인이 있는 듯 하나 보다 객관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생활자료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인간적인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결과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4백만 장애자는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한 면에 존재하는데 첫째,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되었으며, 둘째, 그것의 당연한 결과로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노동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강제되어 노동력의 상품화 과정이 원초

복원 훈련에 의해 단순노동만이 가능한 정신박약자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국가나 사회의 보호가 없는 한 당연히 그들의 생존권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일정한 범주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이 곧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논리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심신의 장애는 곧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지배계급의 통일적 논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장애자는 노동력이 결코 열등하지 않다. 예를들면 1910년 포드형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그 공정은 7882개로 이 중 670개의 공정은 두다리가 없는 근로자도 충분하며 2637개 공정은 한쪽다리가 없는 근로자도 할 수 있다. 두 팔이 없는 직공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으며 715개의 공정은 한팔인 직공도 가능하다. 눈 먼 직공도 10개의 공정을 할 수 있다고 포드는 자서전에 쓰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생산의 51% 이상되는 공정에서 장애라는 조건을 갖고서도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의 정도가 감안된 노동의 경우에 있어서 비장애자인 노동자와 비교 했을 때 과연 장애자의 노동생산성이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또한 상식적으로 이와 반대의 경우를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다양한 노동과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반영된 일정한 조건을 전제한다면 오히려 비장애자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유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청각장애자는 집중력이 비장애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곧 잉여가치의 생산량에 의해 연결 될 것이다. 청각장애자 뿐만 아니라 장애자 일반이 자신의 심신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면 장애정도가 감안된 노동에 있어서는 최소한 사회적 평균의 노동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포드자동차 생산공정에 있어서 노동환경이 비장애자 중심의 구조일 경우 두 다리나 두 팔이 없는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는 자신의 신체적 구조에 적합한 노동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력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 혹은 엘리베이터의 시설 그리고 노동과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두 팔이 수행해야 하는 일상적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시각장애가 고려된 물리적시설의 보완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의 성립하에서 장애정도가 반영된 노동형태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애자의 심신적 조건에 따른 물리적 환경이 수반되어야만 자신의 노동으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자는 생물학적인 조건에 반드시 물리적 환경이 수반되어야만 노동력의 실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경증장애자의 경우에는 비장애자 중심의 노동환경하에서도 일반 노동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상적으로는 위의 포드자동차 생산공정에서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자와 한쪽 팔을 상실한 장애자(전체노동과정의 42.5%) 및 이보다 장애정도가 약한 다수의 지체장애자는 굳이 장애정도가 감안된 노동형태의 접근과 이에 수반되는 물리적 환경이라는 전제조건 없이도 일반노동자와 경쟁적으로 노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장애정도가 감안된 노동에의 접근(포드 자동차의 예)과 각 장애별 특성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의 전제조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저하된 노동능력의 지속이라는 조건하에서도 대다수의 장애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실현하여 국가나 사회의 특별한 보호 없이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은 곧 노동능력의 상실이라는 획일적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 받을 수 없으며 대다수의 장애자는 장애라는 조건하에서 일정한 형태로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실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나 사회 혹은 가족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비주체적인 장애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3. 자본제적 생산관계와 장애자

이상은 주로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에 의해 저하된 장애자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왜곡된 장애자관을 반박한 것이다. 단적으로 "심신장애자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혹은 "신체장애자라 함은 몸의 사용에 장애가 있어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상업능력이 뚜렷이 저해 되는 자" 등의 일방적이고 비주체적이며 대상화된 기존의 장애자관을 논박한 것이며 동시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장애자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 했듯이 장애자는 특수성이 고려됨과 동시에 자본의 비인간적인 운동법칙이 관철되는 자본제적 생산관계에 흡수된 사회적 존재로서 장애자를 파악할 때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자가 집단적으로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한 극점(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된 무산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보편적인 사회관계를 무시하고는 장애자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도시빈민 그리고 대다수가 실업자로 존재하는 4백만 장애자는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된 무산자이다. 한국자본주의 무산자인 4백만 장애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이라는 심신적 조건하에서 거의 대다수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생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다. 한편 극대이윤을 목표로 하는 생산수단 소유자인 자본가가 장애

정도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이 수반되어야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장애자를 고용한다는 것(여기서 물리적 환경의 전제없이도 노동력의 실현이 가능한 경우는 배제한다)은 비장애자인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에 추가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장애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잉여가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도 않는 불변자본의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윤의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자본의 논리와 상반되는 것으로 장애자 대다수가 실업자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법칙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당연한 연장에서 비장애자인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하에서 장애자가 어렵게 노동의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저임금의 강요, 승진, 차별, 불황시 우선해고 등 자본의 강도 높은 노동력 착취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의해 정상적인 노동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노동력의 조기 노형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이외에 달리 소득의 원천을 갖지 못하는 무산자로써의 장애자집단의 생활은 절대빈곤계층의 기생적이고 소모적인 생존양식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것이다. 무산자인 4백만 장애자의 빈곤은 심신적 결함으로 인해 저하된 운동능력의 지속성에 그 원인이 있는 듯 하나 보다 객관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생활자료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인간적인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의 결함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결과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4백만 장애자는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한 면에 존재하는데 첫째,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되었으며, 둘째, 그것의 당연한 결과로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노동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강제되어 노동력의 상품화 과정이 원초

적으로 차단당한 한국자본주의의 제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반영된 소외집단인 것이다.

4. 장애인운동의 성격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집단이든 자기 권리를 획득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그러한 일련의 활동을 소위 '운동(Movement)'이라하는데, 한국장애자에게 있어 총체적인 '운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운동의 논리는 사회구조 속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위상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장애자가 하나의 사회구성집단이라는 총체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운동'을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접근방식에 의해 장애자의 사회적 위상을 규명하고, 그에 걸맞은 사회·경제적상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본질성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서술 했듯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규정됨으로써, 노동력의 결핍이나 부분적 결여는 곧 노동시장으로부터 결격적으로 제외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신체적 상실을 항상 지니고 있는 장애자는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노동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회정의개념 또는 도덕관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상 장애자는 비자립적 인간으로 규정되기 쉽다.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한 이후, 사회정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장애자에게 보편적 권리를 부여한 정책을 마련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해 실현과정에서 정부의지나 사회통념이 완전하게 조율되어 실시되지 않는이상 장애자의 사회통합은 많은 장애물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여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의 극복이나 체제내에서의 역동적 투쟁이 없고서는 장애자의 입지확

보는 가능치 못하다. 꾸준히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적 장애물을 척결하여 공정한 여건을 획득함으로써 장애자는 당당한 사회구성인으로 자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장애인운동은, 자본주의 구조의 모순성에서 파생된 소외집단, 즉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제소외계층의 운동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장애자는 '소외'를 창출하는 구조성에 대하여 그들과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들 통한 연대의식으로 실천적과제에 대하여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운동의 실천논리를 구성하는데 꼭 유의해야할 것은 장애인집단의 복잡하고 다양한 속성이다. 장애자는 대체로 지체·시각·청각·정신박약 등 각기의 장애의 유형이 다름으로 해서 사회적 욕구가 다양해 질 수 밖에 없어 직업문제, 특수교육문제, 시설수용문제 등이 각 장애별 부문에서 상이한 순위로 요구되고 있다. 더군다나 그러한 다양성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는데, 이 점에서 다른 소외집단에 대한 시각과는 다른 특수한 관점에서 장애인집단이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은 생산관계에서 비롯되어 결정지워진다. 때문에 그들 집단의 각각의 구성원은 동일한 경제적 조건 속에서 욕구의 대체적 동일성이 원초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곧 공감대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장애인 집단은 다르다. 경제활동의 가능 여부에서 장애자는 구분되고, 그중 경제활동 장애자의 직업문제는 직업적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재활·시설 등 사회·문화적 욕구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표출된다. 그러므로, 장애자가 처한 본질적인 면에서는 총체성을 가지지만 개별적인 장애자의 실존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운동의 실천논리를 도식적으로 적용할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이 장애인운

동이 극복 하여야 할 문제인데, 그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장애인운동은 그 고유성을 상실하거나 파행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장애인문제의 발생체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은 항상 전제되어야 하나 장애인집단의 특이성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장애인운동의 실현가능한 실천적 대안은 제시될 수 없다. 장애인문제가 다른 사회운동 부문과 동일하게 모순구조의 산물이라고 해서, 그 운동방식까지 동일한 형태를 띄어야 한다거나 다른 부문의 운동전개에 항상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 발생의 본질적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현상적 문제에 매달려 개별적·부분적 운동론을 전개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오류이다. 후자가 현상론적 발상이라면 전자는 과의소아병적 발상이다. 사실, 한국의 장애인운동 상황은 장애자들의 자기문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전무한 것을 우선 염려할 정도로 미흡하다. 현상적으로 장애자와 관련된 활동은 매우 다기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의식의 철저성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부분적이고 말초적인 사항에 그치고 자기독단에 의한 파행성만이 보여질 뿐이다. 그에 따라, 한국 장애인운동에는 총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다양성을 거부하여 획일적 운동노선만을 고집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총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실천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실천방식은 장애인문제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는 인식의 공감대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항상 견지되면서 실천은 이루어져야 한다.

5. 한국장애인운동의 과제

한국장애인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람은 광범위한 운동조직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운동의 대중적 기반은 일천한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선도그룹이 부

재하고, 군소조직으로 파행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국장애인운동의 논의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전진시켜야 할 형편이다. 이 점은 한국에서 장애인운동사의 목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운동이 가능하려면, 주체적으로 이념이 공감되어 있어야하고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장애자는 위의 사항 모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운동은 '의식의 확산'이라는 명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사회의 각 집단이 스스로의 지위향상을 위해 자기문제를 자각하고 힘의 결집을 통해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유독 장애인들만이 이렇게 자기운동성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장애자의 거의 대다수가 장애인문제 발생의 구조성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들은 장애인문제의 총체적 성격보다는 장애발생의 우연성으로 문제해결 방식까지 규정지어, 장애인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점은 조직구성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써 그동안 범장애자조직을 결성하려는 여러번의 시도가 직접적으로 좌절되게 되었고, 현재의 군소조직의 연합이나 연대체제 구축에까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 점은 기존의 여러 장애인 모임이나 단체의 활동방향까지 규정짓고 있는데 대다수의 소규모 모임은 주된 활동이 구성원끼리의 위안이나 친목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한시바빠 극복되지 않고서 장애인운동의 고양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자가 운동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장애자의 내외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생활수준의 절대적인 저급함이 의식의 공감대 형성이나 조직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여유를 허용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장애자들이 자기

저한 사회·경제적 위치가 상이하여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데다 생존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장애자는 운동에 대한 의욕을 애초부터 갖지 못했거나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전환과 광범위한 조직의 구성이라는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전자는 여건의 성숙을 기하면서 각성된 그룹의 선도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문제의 본질이 폭로되고 운동의 고양을 위한 분위기가 유도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도적인 계몽활동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존의 장애인 관계 간행물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나 장애인문제의 말단적인 사항을 취급하는데 불과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시각의 습득과 과감하게 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 자세가 요망된다. 또 기존간행물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전달매체가 탄생되기도 해야 할 것이다. 장애자가 자신의 실존에 작용하는 구조적 요소와 총체적 원인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게끔 꾸준한 의식화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대중으로부터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 군소조직의 체제개선과 연대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금껏 제도권 주변의 여러단체들은 사회에 대한 홍보라는 막연한 취지에서 무의미한 소비적 행사나 복지사업의 핵심을 도외시킨 말초적인 전시사업에만 매달려 있을 뿐 조직적 운동의 전개에는 관심과 신념이 부족했다. 이 점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사업 내지는 운동을 한다는 몇몇 유명인사의 청원적 활동은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활동내용의 구호적 성격, 본질적인 변화보다 부분적인 개선에 치중, 장애인층의 전체적 의식 고양에 대한 무관심, 대중적 기반의 상실—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운동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했다

는 점에 비판이 가해져야 하며, 이러한 비판이 외부로부터 가해짐으로써 기존조직과 단체의 체질개선을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과 아울러 각 조직 및 단체간의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연계체제'라 함은 통일된 '단일조직'이라는 의미와 다르다. 장애인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직의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며 아직 우리나라 장애자의 전반적 상황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획일적 단일조직의 운영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권 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단체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비판과 협력을 통해 통일된 활동을 전개시켜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구현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였거나 장애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담보하여 개인적 치부에 몰두하였던 사이비조직 및 단체를 해체하거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한국 장애인운동은 복지구현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참신한 신진세력에 의해 역동적인 운동의 생명성이 유지되어 장애자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사회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V. 끝맺는 말

1988년 이후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태도가 보여진다.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등록제 실시, 의료보험 실시, 고용촉진법 제정, 관련악법의 개폐 등이 그것인데, 그에 따라 1990년대 이전 장애인복지정책은 대체적인 모양이 갖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는 것으로 과거처럼 형식적으로만 규정되어 실질성과 실효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 유념해 볼때 한국 장애인운동은 정책의 '내용규정'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새로운 차원

으로의 도약을 요구 받고 있다.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경직된 상황보다 완화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이론무장과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호전된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는 고도의 자기전개 논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우리나라 장애자의 정신적 물질적 현단계와 그의 한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강서 재활원과 신망에 재활원의 주민거부 사태를 볼 때, 장애인운동은 그 내용에 '대 국민외식' '대 국민외식 투쟁'을 첨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장애인문제는 그러한 예민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를 맞고 있다).

장애인운동의 뿌리가 전혀 없으면서 형식적인 정책이 마련된 호전된 상황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열한 운동이 없이는 진정한 장애자의 권리획득은 요원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노동의 상품성으로 관찰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장애자의 자구적인 투쟁이 계속적으로 견지되지 않는 한 장애자는 인권을 상실한 주변적 소비계층으로의 전락을 모면키 어려운 것이다.

1960년대말, 반전·반핵·반체제운동의 소용돌이에 편승하여 미국의 장애자는 자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장애인 부모회의 활동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1979년 미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미국 장애인운동은 이후에도 계속 활성화 되고 장애유형별·지역별로 보완되어 자기의 권익확대를 꾀한다. 이 점이 한국장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장애자가 총체적인 자기운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집단적이든 개별적이든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존재성의 확보는 가능한 것이다.

다시 반봉건 문제에 대하여

전 성 식(의예 84)

I. 머릿말

"반봉건"문제에 대한 논쟁은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문제이다. 그다지 생산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논쟁이었지만 변혁운동진영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이론가, 실천가들이 최소한 한번씩은 논쟁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새삼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그 논쟁의 결과가 올바르게 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실제로 논쟁의 결과는 우리가 쏟은 노력에 비해 형편없는 결실을 거둔 꼴이 되었다. 조진경씨와 같이 "반봉건성의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는 신식민주주의에 의해 온존·강화된 지주-소작 관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반봉건성=농업에서의 지주-소작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협소한 인식이다."¹⁾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가 약속한²⁾바로 그대로 '반봉건'이란 개념을 (식민지)'반자본주의'라고 개정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이들과 축을 달리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반봉건제에 대한 견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는 조진경씨의 소위 '식민지반봉건론' 혹은 '식민지반자본주의론' 등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은 잘못된 철학적 전제와 방법론에 기초하였기에 논쟁이 공허해질 수 밖에 없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필자가 위에서 '잘못된 반봉건제에 대한 견해'라고 지칭한 입장에 대한 검토, 비판을 통하여 '반봉건'문제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물론 그 잘못에 대한 비판은 어떠한 특징의 논자나 주장에 한정시키지는 않겠지만 주된 비판의 초점은 이진경씨에게 맞추어 질 것이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밝히자면 이진경씨는 그의 역작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한국 사회성격 논쟁에 부쳐-』(아침, 1987)에서 자신의 뛰어난 이론적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전개되었던 '반봉건'논쟁의 한계와 오류를 많은 부분 옳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진경씨의 책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 등 '사이비론'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과 '사회구성체론'을 올바른 방법론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중요한 범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체론, 사적유물론에서 문제가 되는 근본개념 및 원칙에 대한 고전적 틀

을 제시한다'는 목적의식 하에서 기술되었다.³⁾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완전히 무시당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받는다. "그 목적의식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작업의 결과는, 그것이 그러한 목적의식하에서 필요했던 고전에서의 주요 구절을 전반적으로 인용하여 독자에게 제시했다는 점만을 제외한다면, 그 목적의식을 무색하게 하고도 남을 만큼, 철학의 빈곤을 드러냈다."⁴⁾라고.

필자는 '반봉건'문제에 대한 탁월한 이론 전개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능하게한 이현준씨의 위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에 근거하여 '반봉건'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에서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 하도록 하겠다.

II. 몸 말

'반봉건'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진경씨나 이현준씨 모두가 출발로 삼았던 물음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반봉건제의 본질적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는 본질적으로 '봉건적'인가? 또는 '자본주의적인가?'라는 문제"⁵⁾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앞서 먼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개념 및 상호관계-생산력의 성격과 발전에 대한 생산관계의 조

-차 례-

I. 머릿말

II. 몸말

1. 생산력과 생산관계
 2. 시대구분의 기준
 3. 반봉건제의 본질
 4. 일제하 조선 농업의 문제
- ### IV. 맺음말

1) 조진경, '한국현대사와 80년대 한국사회' 조진경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운동』 공동체 1987, pp31~2

2) 조진경, 위의글, p28

"식반사회라는 개념규정이 어떤 일정한 표상을 가지면서 불필요한 혼동과 오해를 낳는다면 그 개념을 과감히 포기하고,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3) 정태현, '식민지 사회의 보편성과 개별성' 『한겨레회보』1987.12. 서문, 이현준, '소모적 반봉건 논쟁의 지양을 위하여' 『한겨레회보』1988. 통권제2호, 965에서 재인용.

4) 이현준, 위의글, p65.

5)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한국 사회성격 논쟁에 부쳐-』아침, 1987 이현준, 위의글, p67.

용의 법칙—에 관하여 언급하고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해명되어야 하는 '경제적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 그리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겠다.

1. 생산력과 생산관계

여기서 굳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문제삼는 이유는 이진경씨처럼 생산력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다. 다만 이진경씨가 자신이 목적했던바 "사적유물론의 제원칙과 주요개념을 정리하는 것"에 실패하고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만들었음에도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⁶⁾에 대한 우려와 보다 중요한 문제로 생산력에 대한 엄청난 곡해가 '시대구분의 기준'을 잘못 파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이진경씨는 생산력을 생산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며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으로 이해하길 강조한다.⁸⁾ 또한 「도이체 이데올로기」를 인용 설명하면서 "노동과정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맺는 일정한 관계"⁹⁾ 라고 옮겨 지적한다.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내용과 형식간의 관계"로서 "양자는 분리될 수 없다"

고 하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체가 생산양식"¹⁰⁾이라고 하는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산력의 구성요소를 이야기하며 주장되는 "생산력이 본업을 포함"하고 "생산력은 이러한 협동양식을 포함하고"¹¹⁾있다. 혹은 "생산력적 관계가 생산관계내에서 정하는 위상"¹²⁾등은 "생산력은 생산관계와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고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라는 것을 심오하게 만드는 것이며 급기야는 "생산력은 생산수단과 생산자간의 관계"¹³⁾라고 정의하여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즉 "생산수단과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분리 해석해내는" "물신"¹⁴⁾성을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결국 이진경씨는 "생산관계로 전환한 생산력"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관계를 생산력으로 이해¹⁵⁾해 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생산력이란 무엇인가? 또 생산관계란 무엇이며, 둘의 상호관계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심오하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이해한다. 생산력은 한마디로 "사회가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이다."¹⁶⁾(강조는 필자)또한 "사회적 생산력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수단과 무엇보다도 노동용구 그리고 또 그것을 작동하여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인간이다."¹⁷⁾그리고 "생산력의 발전 수준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으로 표시된다."¹⁸⁾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생산력은 '생산수단과 생산자간의 관계'라는 측

면보다는 '단위 시간당 생산해낼 수 있는 사용가치의 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생산관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살펴보면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서……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이러한 제관계가 생산의관계 혹은……생산관계"¹⁹⁾라고 되어있다. 또 그 성격은 "주어진 사회에서 누가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 소유의 문제—단순히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법적 권리로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실질적 총체로서 이해되는 소유, 즉 생산수단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의해 매겨진 소유—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²⁰⁾ "생산관계의 총체 속에서도 기본적인 것으로서 다른 모든 제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둘러싼 인간의 관계이자, 생산자와 생산수단이 결합되는 제형태인 소유형태이다."²¹⁾(강조는 필자)위의 인용에서 우리는 생산관계는 생산에 있어서 결합되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생산수단을 둘러싼, 생산수단 소유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소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으며 마지막 인용으로 생산자와 생산수단 간의 관계는 생산력이 아니라 생산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생산관계를 전제했을 때만 생산의 기능과 발전을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모든 요소 및 전체 생산양식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이제는 마지막 문제인 '생산력과 생산의 관계'의 관계의 문제만 남았다. 이는 역사를 통하여 작용되어온 일반 사회학적 법칙이며 "생산력의 성격과 발전에 대한 생산관계의 조종의 법칙"²²⁾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내용은 "생산의 양 측면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의 사회적 형식으로서의 생산관계가 생산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²³⁾이다.

우리는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생산력과 생산관계 그리고 그 둘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개념을 폐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진경씨의 인용문²⁴⁾을 이용하여 앞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시대구분의 기준

역사적 시대구분의 기준은 생산양식이다. 물론 여기서 생산양식이란 생산력의 특정한 단계에 조종하는 생산관계,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²⁵⁾ 앞에서 인용한 이진경씨와 이현준씨 두사람 모두는 이 기준을 끌어내기 위하여 맑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다음의 문장이 그것인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에 여기서도 다시 인용하기로 하겠다.

"생산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노동자와 생산수단은 언제나 생산의 요건이다. 그러나

6) 이진경, 위외책, p17

7) 이성민, '사회과학방법론과 사회구성체론의 개관', 『고대문화 제29집』1988.9 이 글의 필자는 많은 지면을 개념설명에 할애하는데 이진경씨 글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8) 이진경, 위외책 pp182~pp198.

9) 이진경, 위외책 p183(강조는 이진경)

10) 위외책, p196(강조는 이진경)

11) 위외책, p188

12) 위외책, p188

13) 위외책, p184

14) 이현준, 위외 글, p72

15) 이진경, 위외책, pp197~8

16) 김창선편역, 『사적유물론』, 새길1988, p40

17) 위외책, p41

18) 위외책, p42(강조는 원문)

19) 위외책, p47

20) 위외책, p48(강조는 원문)

이 문장은 생산수단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이후 우리 논의에 한번 더 첨가하여 커다란 기여를 할 중요한 문장이다.

21) 『세계철학사—사적유물론』, 녹두:1985, p76

22) 김창선편역, 앞의책, p50

23) 『세계철학사』, 녹두, p89

24) 이진경, 위외책, pp197~8의 주46)의 인용문

25)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잘못은 이진경, 위외책, p191, 주32)인용문참조

그 어느 한쪽도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단지 가 능적으로만 그리할 뿐이다. 무엇보다(현실적으로) 생 산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양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결합이 행해지는 특수한 방식 내지 양 식이 사회구조의 다양한 경제적 시대를 구별짓는 다.”²⁶⁾

(강조는, 이진경, 이하 같음)

“부불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착출되는 독특한 경제적 형태는, 생산 그 자체로부터 직접 자라나면서 또한 자신도 규정적으로 생산에 반 작용하는 바의 지배-예속관계를 규정한다. 또한 위 관계 위에서 생산관계 자체로부터 성장하는 경제 적 공동체의 전체적 형태가 세워지며, 이로써 동 시에 그것에 독특한 정치적 형태도 건축된다. 직 접생산자에 대한 생산조건 소유자의 직접적 관계 -이 관계의 다양한 제형태는 외당 노동의 방법,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 에 조응한다-이 관계야말로 항상 우리가 그 위 에서 사회구조 전체, 따라서 주권-종속관계의 정치 적 형태, 요약하면 그때 그때의 독특한 국가형태 의 가장 깊은 비밀, 그 숨겨져 있던 기초를 발견 하게 되는 바의 관계인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경 제적 기초-주요조건에서 보인 동일하다-가 무 수하게 다양한 경험적인 사정, 즉 자연조건이나 종속관계 등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역사적인 제영 향을 통해서 현상에 무한한 제변화나 명암을 보여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변화나 명암은 단지 이러한 경험적으로 주어진 제사정들을 분석할 때만 이해되는 것이다.”²⁷⁾

“이 잉여노동이 직접적 생산자, 즉 노동자로부터 착출되는 형태야말로, 제반 경제적 사회구 성 제, 예컨대 노예제 사회와 임노동제 사회를 구별 짓는다.”²⁸⁾

몹시 낯익은 위의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의 올바른 해명이 우리에게 현실 분 석의 무기를 제공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 각 인 용자들의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하자.

이진경씨는 첫번째 문장을 “노동자와 생산수단 은 생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간에 생산 의 구성요소이다. 그런데 생산이 행해지기 위해 서는 또한 제반 생산조건에 대한 소유자를-즉 비노동자를-생산 그 자체의 구성요소로서 갖지 않을 수 없다.”²⁹⁾라고 해석하고 다음 인용문에서 는 “특정한 생산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분 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자와 생산수단 간 의 관계 및 생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의 직접적 관계임”³⁰⁾ 주장하고 마지막 구절은 “생산관계 속에 착취형태도 포함”³¹⁾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총괄로 다음과 같이 결론 을 낸다.

“생산의 사회적 형태와 무관하게 생산이 행해지 는 과정 속에는 생산수단과 노동자(직접생산자), 그리고 생산조건의 소유자로서의 비노동자가 언 제나 그 구성요소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소들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는가, 즉 이들 요소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는

가가, 사회구조 전체가 어떤 경제적 시대로서 과 약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규정한다.”³²⁾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이에 근거하여 이진경씨 는 생산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1)직접생산자인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관계로 서 ‘노동과정의 기술적·사회적 결합양식(=노동 양식, 이진경)과 (2)직접적 생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 간의 직접적 관계로서, ……① 생산수단 에 대한 소유형태와 ② 생산물에 대한 전유형태 를 포착해야 한다.”³³⁾라고 한다.

이에 반해 이현준씨는 인용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번째 인용문은, 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생산의 두 요소인 ‘노동자와 생산수 단’의 결합이 행해지는 특수한 방식 내지 양식이 사회구조의 다양한 경제적 시대를 구별짓는다’는 것이고, 두번째 및 세번째의 인용문은 이 보편적, 일반적 원칙의(제한적인) 제급사회에의 적용이 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는 한에서만 본 다면, 제급사회에서의 상이한 사회구성을 보기 위 해서는 ‘부불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착출 되는 독특한 경제적 형태’, ‘이 잉여노동이 직접 적 생산자, 즉 노동자로부터 착출되는 형태’를 보 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⁴⁾

그리고 이진경씨의 견해를 “생산의 3요소설”³⁵⁾ 이라 부르며 이진경씨의 표현을 빌어 “새로이 발 명해낸 해석으로 스스로 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결과로 귀결”³⁶⁾되었다고 비판한다. 즉 “생산수단 과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분리”하는 사고가 “관념 적이고, 형이상학적, 도시적이며 물신적”³⁷⁾이라

는 것이다. 또한 “그는(이진경 필자) 스스로 위 인용문들에서 ‘부불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착출되는 독특한 경제적 형태’, ‘잉여노동이 직접적 생산자, 즉 노동자로부터 착출되는 형태’ 등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망각해버 림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방법에서의 무기를 버렸 다”³⁸⁾고 비판한 후 이현준씨는 “사회구조의 다양 한 경제적 시대를 구별짓는, ‘노동자와 생산수단 의’ 따라서 ‘직접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결합이 행해지는 특수한 방식 내지 양식”을 파악 하기 위해서 제급사회 속에서는 ‘부불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착출되는 독특한 경제적 형 태’, 곧 잉여노동이 직접적 생산자, 즉 노동자로부터 착출되는 형태를 볼 것을”³⁹⁾주장한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인용문과 두사람의 해석을 검토해 보자. 첫번째 인용문은 우리에게 이진경 씨의 생산력의 개념이 잘못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즉 “노동자와 생산수단……양자가 결 합……이 결합이 행해지는 특수한 방식 내지 양 식이……경제적 시대를 구별”한다고 하여 이 결 합은 생산력이 아니라 생산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를 밝히는 것은 몹시 중 요하다. 왜냐하면 이진경씨의 시대구분의 기준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사회 가 처해있는 시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생산양식을 알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생 산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결국 그 수단은 생산 자와 생산수단의 결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생산관계로 전환된 생산력” “생산관 계의 중요한 일 계기”등으로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잘못되지는 시대구분의 기준이 생산력이라는

26) 『자본론』, 제 2권, 제 1장, 제 2절, 이진경, 위외역, p201에서 재인용 이현준씨 역시 이진경씨의 책에서 재인용하였 음. 이현준, 위외역, p68

27) 『자본론』 제 3권 제47장, 제 2절, 이진경 위외역, pp201-2에서 재인용, 이현준, 위외역, pp68-9 이 문장을 인용하 여 이진경씨와 이현준씨 모두 일정 주)를 달아 놓았는데 읽어보면 좋겠다.

28) 『자본론』, 제 1권, 제 7장, 제 1절, 이진경, 위외역, p202에서 재인용, 이현준, 위외역, p69

29) 이진경, 위외역, p201. (강조는 원문)

30) 이진경, 위외역, p202

31) 위외역, p203

32) 위외역, p203

33) 위외역, p205

34) 이현준, 위외역 p69(밑줄은 원문, 인용문내의 ‘’은 원문에서 ‘’)

35) 위외역, p72

36) 위외역, p72

37) 위외역, p72

38) 위외역, p72

39) 위외역, pp72-3(밑줄은 원문, ‘’는 원문에서 ‘’)

결론을, 올바르게는 시대구분의 기준을 파악하는 수단을 생산수단에서 찾아야 한다는 동어반복을 하게 된 것이다.⁴⁰⁾

이제 우리는 '시대구분의 기준'과 '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사회구조의 다양한 경제적 시대를 구별짓는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따라서 '직접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결합이 행해지는 특수한 방식 내지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급사회 속에서는 '부불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착출되는 독특한 경제적 형태' 곧 '잉여노동이 직접적 생산자' 즉 노동자로부터 착출되는 형태"를 볼 것을" 주장한 이현준씨의 견해가 그것이다.

3. 반봉건제의 본질

이상의 논의를 마치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반봉건제의 본질적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는 본질적으로 '봉건적'인가? 또는 '자본주의적'인가?"⁴¹⁾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계의 대답이 제출되어 있다."⁴²⁾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의미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논지에 의하면 봉건제의 본질이 보존되는 반봉건제라는 개념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반봉건제라는 개념이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관계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주-소작관계를 지칭하는 서술적 개념

으로 사용되지 않고, '타협적 재편' 등으로 인해 봉건제의 본질이 잔존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반봉건제라고 사용된다면……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결과……다시 말해 반봉건제는 본질적으로 봉건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위 '반봉건적 토지소유'가 형태상으로는 지주-소작관계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의 소작농은 이전의 봉건적 부역농민이라는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으로서, 생산수단(특히 토지)으로부터 분리되고 경제외적 강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이미 봉건제를 탈락한 자본주의의 전제로서 존재하는 '자유로운 노동력'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자본제'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⁴³⁾ 라는 이진경씨의 주장과 "이러한 원칙에 서서 볼 때, '반봉건제의 본질적 성격', 좀더 구체적으로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를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⁴⁴⁾, "즉 본질적으로 봉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현준씨의 견해이다. 필자는 두 상반된 입장에서 먼저 반봉건제는 본질적으로 봉건제라는 결론을 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우리는 경제적 시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착출되는 형태'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보다 구체적인 무기가 봉건적인가 자본주의적인가 하는 주어진 문제에 적용되는 한, 그것은 지대론적 접근일 수 밖에 없고, 봉건적 지대이나, 자본주의적 지대이나의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⁴⁵⁾ 이현준씨는 '반봉건제가 본질적으로 봉

건적이다'라는 지표로 '고율소작료'를 삼는 것과 '경제잉여의 유일한 형태로서의 지대론'을 잘못 된 지대론적 접근이라 비판하고 올바른 지대론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본론』이 설명하는 바는, 봉건제 하에서는 지대가 잉여가치의 제1차적, 본원적, 정상적 따라서 정당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며, 지대가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한, 그 생산관계는 봉건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때, 상업이윤이나 고리대자본에 대한 이자는 자연히, 지대의 파생형태, 분지(分枝)형태를 취하게 되고, 따라서 잉여가치는 분화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자본주의 하에서는, 잉여가치의 제1차적, 본원적, 정상적, 정당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윤이고, 지대는 이윤의 파생형태, 분지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현행 지주-소작관계가 반봉건적, 즉 본질적으로 봉건적인 이윤은 그 잉여가치의 착취형태가 봉건적 형태라는 것——잉여가치의 제1차적, 본원적, 정상적, 정당한 형태가 소작료=지대라는 것에 있다."⁴⁶⁾

그렇다면 어떻게 '지대가 잉여가치의 제1차적 본원적, 정상적, 정당한 형태'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윤·지대·이자'는 모두 잉여가치의 형태인데 '어떻게 무엇이 제1차적, 본원적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은 비판이 나오게 된다.

"지대(이윤이 아니라)가 잉여가치의 제1차적 본원적…형태를 취하면 그 생산관계는 봉건제이다. 그럼 지대를 제1차적…형태가 되게끔 만드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윤이 아니라 지대가 그렇다는 것을 판별해내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봉건제일 경우에 그렇고, 자본제가 아니라 봉건제라

는 것이 판별기준이 된다. 그럼 봉건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대가 제1차적…형태를 취하면 그런 것이다.", "아무리 이씨의 '올바른 지대론적 접근'이 무엇인지 들춰 보아도 이러한 동어반복 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다."⁴⁷⁾

우리는 맑스로부터 도움을 구하자.

"본래의 차지농업이란 임금노동자를 사용하여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고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을 화폐 또는 현물로 지주에게 지대로써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⁴⁸⁾

여기서 잉여가치는 임금노동자에게서 창출되고 그것은 이윤의 형태로 차지농업자에게 가게되고 그 일부가 지대로써 지주에게 간다. 즉, 제1차적, 본원적, …형태는 이윤이고 지대는 그 파생형태, 분지형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지농업자와 임금노동자와의 생산에서 맺는 관계는 자본주의적이다.

토지를 소작농에게 대여한다. 그리고 마름을 통해 관리하고 소작료를 받아 마름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빌어 쓴 돈의 이자를 갚는다. 제1차적 형태는 소작료=지대이고 임금과 이자는 그 파생형태이다. 생산수단을 둘러싼 소유관계, 즉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는 봉건적 관계이다.

1986년 서울의 건물주는 지대를 포함한 임대료를 건물을 임대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봉건지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진경씨는 잘못된 이해로써 남을 조롱한다.⁴⁹⁾

이상에서 생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무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착출되는 형태'를 보는

40) 이진경, 위외책, pp195~8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곳은 면밀히 살펴보자. 특히 주45)

41) 이진경, 위외책, pp198~9

42) 이현준, 위외글, p67

세계의 답이란 본질적으로 자본제적이라는 대답, 본질적으로 봉건적이라는 답, 그리고 봉건적도 자본제적이기도 않은 세계사의 부차적 사회구성이라는 것을 말한다.

43) 이진경, 위외책, p252

44) 이현준, 위외글, p69

45) 위외글, p76

46) 위외글, p73

48) 위외글, p75

49) 김민영, 『소모적반봉건논쟁의 지양을 위하여』를 읽고, 『한겨레』 1988.3 pp60~

50) 『자본I-3』, 이본과 실천, 1987, pp833

51) 이진경, 위외책, p209

이에 대한 비판은 이현준, 위외글, p79를 보면 잘 나와있다.

것은 '동어반복'이나 '순환논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분석의 올바른 무기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외적 강제'의 문제를 살펴보자. 반봉건제가 본질적으로 봉건제라고 했을 때는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에는 경제외적 강제가 관찰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봉건제'가 본질적으로 '자본제적'이라는 이진경씨는 봉건적 토지소유에 필연적인 '경제외적 강제'가 지주-소작관계에 존재하지 않기에 반봉건제가 봉건적이라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여기서도 맑스의 힘을 빌자.

"더 나아가 분명한 것은, 직접노동자가 아직 그 자신의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이나 노동조건의 '보유자(Besitzer)'로 남아있는 곳에서는 그 형태가 어떠한 간에 소유관계는 동시에 직접적인 지배-예속의 관계로 나타나며, 따라서 직접적 생산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부자유는 부역노동을 수반하는 농노제로부터 단순한 공납의무에 이르기까지 점차 약화되어 간다. 이 경우 직접적 생산자는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그의 노동의 실현 및 그의 생산수단 생산에 필요한 객관적인 제반 노동조건, 그 자신의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농가뿐만 아니라 농촌 가내공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한다. 이 독립성은, 예컨대 인도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들 소농민이 말건 적건 서로 간에 자연발생적인 생산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의하여는 해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만 명목상의 영주에 대한 독립성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명목상의 토지소유자를 위한 영

여노동은, 다만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서만 그들로부터 강탈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강제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것을 노예경제나 플랜테이션경제와 구별하는 것은, 노예는 여기에서는 타인의 생산조건으로 노동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노동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신적 종속관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것이든 인신적 부자유가, 그리고 토지의 부속물로서 토지에 긴박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본래의 의미에서의 예속제가 필요한 것이다."⁵²⁾(원문)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봉건적 소유는 이중적인 것"⁵³⁾이며 독립적인 것이기에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서만 잉여노동의 착취가 가능하며"⁵⁴⁾ 따라서 "경제외적 강제는 봉건적 토지소유에는 필연적"이지만, "그 형태는 극히 다양하다"⁵⁵⁾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보면 "경제외적 강제가 봉건성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⁵⁶⁾ 주장은 잘못이다. 또한 경제외적 강제에 관한 잘못된 이해는 이진경씨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형태의 다양성과 변화-부역노동을 수반하는 농노제로부터 단순한 공납의무에 이르기까지 점차 약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이진경씨는 "기본적인 착취형태로서 잉여노동을 필요노동과 분리시켜 직접적 강제에 의해 전유하는 경제외적 강제"⁵⁷⁾라고 하여 "봉건제를 부역노동제, 즉 농노제로 한정하는 그 특유의 함의한 이해"⁵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봉건"제하에서는 경제외적 강제가 필연적이며, 그 "경제외적 강제의 형태는 관습법일 수도 있고,

또 근대법적 외피를 쓴 민법일 수도 있는 것이며"⁵⁹⁾ 반봉건적 토지소유가 본질적으로 봉건적인 한 실재로 그러하다.⁶⁰⁾

이제 여기서 반봉건적 생산관계에 대한 개념규정을 하도록 하며, 이 절을 마치도록 하자. 이것이 일제하 조선 사회의 성격과 현재의 지소작제를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봉건제라 칭해지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부르조아적 재산관계-특히 상품유통이 광범하게 행해지고, 명목상으로는 토지가 상품화되어 때때의 자유가 존재하며, 농민도 또한 화폐경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제조건-하에서 중세 봉건적인 재산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반봉건제라는 규정을 법적,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재산관계하에서의 전자본제적 토지소유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농업에서의 생산관계를 나타내는 규정이다."⁶¹⁾

4. 일제하 조선농업의 문제

이제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일제하 조선의 사회구성의 문제가 반봉건논쟁의 출발점이었던 사실은 다 아는 일이다. 여기서 다룰 일제하 조선 농업의 문제는 일제하 조선의 사회성격 문제와 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 문제의 검토 후에 일제하 조선사회의 성격에 관하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진경씨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그는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등 1910년이

래 실시된 사업을 조선에 있어서 본원적 축적의 수행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는 "조선사회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관계가 확립되었고 농민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지주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되며 지주-소작관계로 재편된다. 그리고 소작인은 본질적으로 근대적 계급이며 '반(半)프롤레타리아트'로 이야기 될 수 있고 그들의 존재는 적체된 것 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단 토지로부터 '분리'되었다가 소작계약을 매개로 다시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던 것이며 실제로 토지에 긴박된 존재가 아니고, 따라서 이동 가능한 존재이며, 이는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라 현실화한다. 또 절박한 필요에 의한 차이가 식민지 조선에 경우에 농촌에 있어서 전근대적 재산관계의 토대를 이룬다고 한다."⁶²⁾ 우리는 여기에서 소유에 대한 이진경씨의 '법제적'사고를 볼 수 있다. 여러가지 사업에 의한 '소유의 일원화'와 '직접 생산자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일단 분리되었다가 소작계약을 매개로 다시 결합 등 이진경씨는 있지 않았던 것까지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앞서 생산관계에 관하여 논의할 때 생산관계의 주요한 핵심을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라고 하였다. 이진경씨도 그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등을 경이로움을 가지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생산수단 소유의 문제가, 단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법적 권리로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실질적 총체로서 이해되는 소유, 즉 생산수단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의해 매개된

52) 『자본론』 제3권 제47장 제2절, 이현준, 위외규, pp206~7

53) 이진경, 위외규, p207

54) 위외규, p209

55) 이현준, 위외규, p78

56) 박현제, 『한국사회의 반봉건적 내용과 민주주의』 『창비1987』 창비사1987, p342 이현준, 위외규, p77제인용

57) 이진경, 위외규, p208

58) 이현준, 위외규, p79

59) 위외규, p78

60) 즉, 일제하의 지주-소작관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주-소작관계에도 경제외적 강제는 존속되어 있고, 그 형태는 근대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현준, 위외규, p78)

61) 小谷注之(『반』)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의 개념규정, 장시원편역, 『식민지반봉건사회론』1986, 미래, p335
반봉건문제의 해명은 조선사회의 성격 규명의 문제이고 현재 남한사회의 부차적으로 우클라드인 농업문제인 지주-소작문제의 규명문제다. 왜냐하면 조선사회는 식민지 반봉건사이며 한국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62) 이진경, 위외규, pp252~8참조

63) 주20)을 보라

소유의 문제"이라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는 농민이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경작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한 것으로 본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의 변화란 단지 법률의 변화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경작권이 상실되는 영국의 모습을 보라.

토지조사사업을 자본의 본원적 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토지조사사업은 자본-임노동관계의 창출이 아니라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의 창출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 변화가 아닌 현상적 변화이고 말 그대로 내용은 보존된 채 형식만의 변화이다.⁶⁴⁾ 그리고 '러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근거로 설명한 '근대적 계급', 즉 '반프롤레타리아트'로서 본질규정할 수 있는 소작인은 그의 위의 책에 대한 이해 결여에 책임이 있다. 확실히 당시 러시아의 농업에는 두가지 종류의 생산양식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일원화되어감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서술의 목적이었다. 레닌이 분명히 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농촌-프롤레타리아, 분여지를 보유하고 있는 임노동자계급"은 "완전한 몰락 상태에 있는, 경영을 수반하는 한 쪼가리의 땅에서의 미미한 경영유지, 노동력의 판매(무산 농민들의 영입)없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 지극히 낮은 생활수준(아마도 분여지가 없는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것이다.)-이러한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선의 소작농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조선의 소작농은 러시아의 '농촌 프롤레타리아'보다는 '코르베'하의 고역 농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이진경씨의 주장을 비판하였

다. 그러나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 색다른 주장을 하는 김석민씨의 견해를 보면 지주-소작관계는 "봉건적 관계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당시 지주와 소작인이 맺고 있는 관계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전화될 수 있고 전화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전화될 수 없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산방식이 변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당시의 지주-소작관계는 봉건적 생산관계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생산관계"이라고 한다. 즉, 그는 "지주-소작관계를 가능성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생산관계'의 개념에 대한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성립할 수 없는 지극히 관념적인 사고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일제하 조선의 농업의 성격은 봉건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하의 조선사회의 성격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토지조사사업등을 '본원적축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고 농업에서의 생산관계가 반봉건적, 즉 봉건적 생산관계라고 하였을 때 조선사회는 '식민지 반봉건'사회라 이름지어야 할 것이다. 즉, 일제하 조선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보는 시각은 부정되어야 한다.⁶⁵⁾ 여기서 '식민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식민지의 개념은 "각각의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발전의 특수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어느 나라가 어떤 사회구성에 속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념-식민지와 사회구성체-는 "명백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64) 형식이 내용에 조응하는것을, 내용은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꼭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동일한 내용에는 몇개의 형식이 조응할 수 있다.

65) 레닌, 『러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1)』 김진우 옮김, 태백, 1988, pp166-7(고덕원문, 방점표지)

66) 김석민, 『일제하조선농업의 성격에 관한 일연구』, 김홍상외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 1987, p66

67) 이에 또한 간략한 지적은 이현준, 위외글, pp80-1

또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사에서 자본주의 이행의 시기, 본원적 시기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이 역시 간략하게는 이현준씨의 글에 포함되지만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

III. 맺음말

반봉건문제의 검토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역사적 시대'를 나누는 기준과 접근하는 방법, 또 구체적 수단으로서 '지대론적 접근방법', '봉건적 소유'의 특징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제외적 강제'에 대한 이해, '한국사에 있어서 자본주의 이행시기에 대한 문제제기', '식민지에 관한 문제제기' 등등

그러나 이글을 읽으며 독자들은 무엇인가 약간 공허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농업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논의 모든 논쟁은 실천을 위해서이다. 올바른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하루 빨리 정리해 내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굳이 한물 가버린 반봉건문제를 다시 다루었던 이유는 반봉건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을 목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논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반봉건논쟁은 소모적 비생산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멈추어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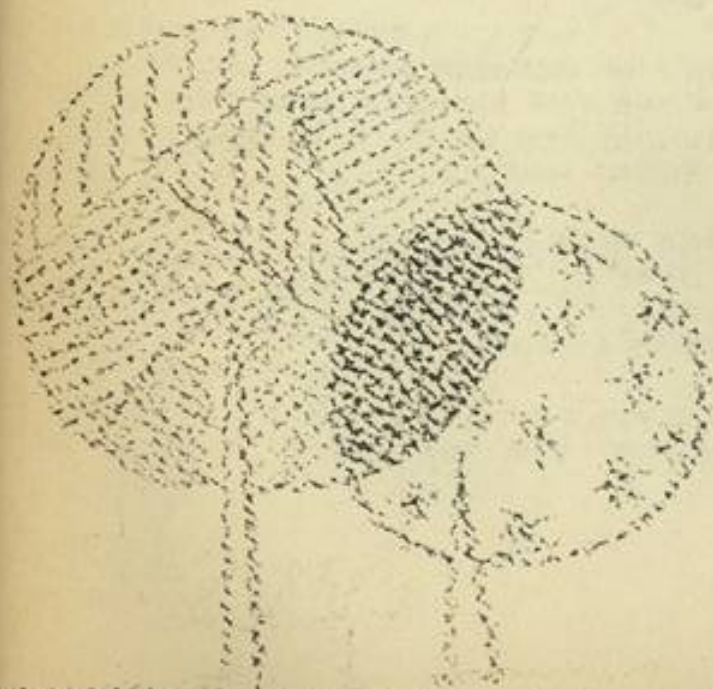
리는 줄 알았고 그러므로해서 서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이현준씨 지적대로 "별로 생산적이지도 못한 것을 깨달아도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코 지양되지 않는 비생산적 소모적 논쟁"에 빠져 "실천적인 문제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가 정리되는 과정속에서 더욱 더 소모적일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려 하고 있다. 이번 『고대문화-제29집』의 내용이 그러하다. 우리의 현재적 수준이 이미 벌써 그러한 차이를 검증할 단계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관념적으로 서로의 비난으로 흘러버리게 된다. 상대방과의 차이가 현재의 올바른 투쟁을 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인가? 그것이 그렇지 않고 또 일정시기 이후의 일이라면 가장 커다란 장애를 물리치기 위해 손잡고 싸워라. 일정시기가 지난 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때까지. 다만 투쟁속에서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준비하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우리의 귀중한 책들을 욕되게 하는 '인용'경쟁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글들은 실천속에서 찾아져, 실천속에서 단련된 것들이기에 실천속에서만 빛을 발하는 무기이다. 이제 비실천적,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을 전개하자. 더 이상 잘못된 지적유희의 장난을 지양하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눈을 실천으로 대중에게 돌려라.

68) 권영옥, '구식민지 경제연구노트' 장시원편역, 『식민지반봉건사회론』 1986미래, p418 이현준씨도 이 견해를 지지한다. 이현준, 위외글, pp64-5

영재 글모음



- 영재 글모음
- 한글날 기념행사
- '여성상위시대' 추진



영재글모음

여학생을 위한 글모음지

영재는

3호에 게재할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모집부문: 시, 수필, 소설,

희곡, 콩트

●마감일: 5월 30일

당선작에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박 선 영

명 로 진

(불어불문학과 84학번)

아름답고 착한 우리의 신부 다정한 선배
예쁜 후배가 될수 있었다 그대
축복받으며 졸업하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이 다가도록 끝까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우리의 자매로 남고
동창회와 25년, 50년 재상봉에 곱게 늙어
나타나 우리와 담소하며 그때 차마
질식 당함을 피할 수 있는 뽀뽀스러울 가졌더라면
그 좋은 세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을
그 좋은 세상 우리 모두와 볼 수 있었을
스무살 초등학교 예비생 어린 가슴이었다.

타살이었다 최루탄을 맞고 물을 맞고 불을 맞고
개구리 사지 찢어지는 전기 고문 물고문
무차별 무자비한 때려 죽임과 떨리는 치밀리는
바지 가랑이 아아 성고문 판치는 고문의 나라
동토의 제국에서
독재는 환한 거리와 대학가 노조 상계동
철거민 마을 남영동 대공분실
구치소와 유치장 경찰서 어두운 그늘에서만
판치지 않았다

우리 매일 만나는 곳곳한 애국자 불퇴전의
투사이며 전사인 우리를 선배의 발목뿐 아니라
우리 매일 만나는 순진한 팔팔 학번
가날픈 목덜미마저 얹매어 오고

그 얹매임과 옥조임의 겹고 더러운 털난 손
야수의 그림자는
스무살 초등학교 예비생 파아란 꿈을
이년 동안 조금씩 비틀어왔다.

누구보다도 부모님과 형제와 벗들을 사랑했으며
누구보다도 자유와 민주와 해방을 갈망했으나

익숙한 사기 경찰의 은폐 엄폐 왜곡 발표로 죽고
구역질나는 기만 서울 교대 폭력 교수 광란의 집단
그들의 자살 동기 고의 조작으로 죽었으며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타성
스스로 무감각해진 무감동의 무관심
그 기만으로 다시 죽었다.

병사여 청춘이여 정열이여 피눈물의 역사여
알기장 속에서 울부짖으며
최루탄 속에서 고뇌했던 그대가
호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역사와 함께 가고 싶다면 그대가
왜 수화기를 들었다 놓는 비참함 거듭했는지 모른다해도
왜 홀로 비바람의 시련 감내했는지 모른다해도

이제 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는지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동료들과 모든 이를 먼저 열려하며
민주의 이름으로 어머니처럼 죽어간 그대
모든 양심의 디딤돌이 될 그대!
박선영 열사여.

*고 박선영은 서울교대의 폭압적 학생운동 말살 정책과
숨막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민주를 갈망하고
동료들의 헌신을 격려하면서 87년 2월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가윗날 고향서는

김 경 순

(식생활과 85학번)

오전내내 밤을 살았다. 엇그제 동구밖 어귀 과부집에서 눈물 반 웃음
반 코맹맹이 소리로 신세한탄 늘어놓다 막걸리 두어잔에 취해 쓰러져자
불쌍한 과부옆에서 손 뻗어가며 밤송이 까주고 뭇으로 얻어왔다
는 엄마는 고 농 도통한게 우리말 볼때기 같네. 불을 지피고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밤익기를 기다렸다.

앞치락 뒤치락 소리에 두깅을 여니
땀 뻘 산모의 무명옷 냄새인가
후덥지건 풍겨나오고
신열에 들뜬 파리한 이마에는
거룩한 땀방울이 생명처럼 영글어오르던
힘든 나이에 딸 여섯 낳고
막둥이 놓다 힘없이 사라져간
어머니를 달았는가 얹은 미소까지 지으며
싸림문에 걸쳐둔 붉은 고추를
새빨간 그 고추를 열눈으로 보던
내 시골 누이를 달았는가
큰 누이를 엄니처럼 알고 자라나는
막둥이의 머리광은 어디선가 영성하고
여든 나이 시어머니 불호령에
가슴 똬다는 시골 누이는
막차 놓칠세라 뛰어가는
나를 붙잡고

함 소쿠리 가득 삶은
우리의 밤 위에 서립던 夜도 깊어
그렇게 깊어간다.

“여성상위시대 유감” 유감

강 진 속

교육대학원 영어과 3학기

“대체로(약 절반 이하라고 해 두자) 우리나라 여성은 교양미가 없고, 무식하고,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현시적이며 사치 좋아하고, 무절제하게 향락적이며, 경솔하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색하며,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재능이 없고,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줄 모르며, 창의력이 없고, 정서가 매마르고, 너무 센티멘탈하여 죽대가 없고, 정도에 지나치게 질투심 많고, 효도심이 부족하고, 자학적이고 운명론적이며, 공중도덕심이 부족하고 수다스럽고, 남을 믿지 못하고, 등등 해야 할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본원적 또는 외생적 요인에서 연원한 결함 무성이의 우리나라 여성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와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은 『금융경제』지 '88년 9월호, 지성의 초대난(pp.34-35)에 나오는 고려대 정○○교수의 「여성상위시대 유감」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위의 글을 읽으며 심한 분노와 비애를 느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위의 내용과 같은 졸속, 편협하고 악의에 찬 표현은 대학강단에서 이 사회의 지성을 키워내는 사람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직장에서의 심한 남녀 불평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사상, 의식상의 권위주의적인 남녀 불평등, 차별문화를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나는 위의 글이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기나라 사람, 민족과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멸시하는 식민지 예속문화의 일부 표출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의 대다수 여성들이 위의 글을 읽고 분노하리라 생각하며 우리나라 다수 남성들도 위의 글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건전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여성들과 함께, 여성을 비하시키고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정○○교수의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일찌기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스미스는 경제발전의 조건을 분업이라고 하였다. 사회발전도 역시 분업과 전문화가 되어야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치는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정치인이, 행정은 행정을 아는 관료가, 군사는 군인이, 학문은 학자가 하는 것이 능률을 극대

화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하고 가사를 경영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능률적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간에 그 조직체 내에는 우두머리가 있게 마련인데 그 우두머리는 물리력이나 경제력이 앞서게 되면 그 주도권은 당연히 그것을 소지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자연적 질서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자연적 질서가 파괴되면 엄청난 혼란의 댕가를 치볼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 고학력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이 배운 지식을 사장하고 가사에 매달린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자원의 낭비라고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정에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성악이나 기악을 전공했다고 하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약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했다면 집안의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고 조경이나 원예학을 전공했다면 가사 경영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족에게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계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총생산에는 통계 기술상 계산되지 않지만 분명히 삶의 질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국민총생산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다.”(위의 잡지, 35쪽)

위와 같은 터무니 없는 논리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남성우월론적인 편견의 반영임은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는 가사 일만이 여성의 가장 큰 미덕의 발휘인 양 고집하며, '인고의 덕'이니 '희생'이니 하는 말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묶어 놓는 것에 항수를 느끼는 정○○교수와 같은 소수 남성들의 변변찮은 사고방식에 대해 나는 실망의 도를 넘어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자연에 완전히 의존되던 농경사회에서는 신체적인 힘의 우월성이 사회의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쥐도록 되어 있었고 남녀의 역할은 그에 맞추어 자연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의 모든 공적인 조직이 남성위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힘이 더 이상 사회에서의 우월한 위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우리 남성의 신체적인 힘의 과시가 그다지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련한 일부 남성들은 아직도 자신이 남자, '사나이'인 점을 되풀이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해 착종되고 까닭모를 우월감을 즐기는 듯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이러한 남성들은 자신의 위치를 침입해 오는 '여자답지 못한' 여성들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며 남성위주의 조직체내의 심하게 불평등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자주성을 고양시키려는 우리의 분무노력형의 여성들에 대해 소아병적인 적개심마저 느끼는 듯한 경우를 나는 자주 목격했습니다.

위의 글은 불과 몇 발자국 전방에 있는 재벌이도 반드시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가져오도록 명령하는 것이 남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취미생활과 부인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윗글의 논지는 여자의 존재의의는 남자를 섬기고 가정을 돌본다는 데 있고 여성에게는 남성과 똑같은 독립된 인격이라든지 사회적인 성취욕,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고양시키려는 욕구 등이 전혀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어도 안된다는 낡은 봉건시대 사고에 연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합리성을 따지는 일부 남성들이 유독 아내나 자신의 여성관에 있어서는 이른바 '현모양처'를 으뜸으로 여기는 미덕으로 알고 그 이외의 것은 백안시하는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글이 바로 위의 정○○교수의 글입니다.

이런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와 성취를 위하여 부인에게 무한한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큰일'을 하니까 아내를 '자질구레'한 가사일을 해야 어울린다는 가부장제 사회의 권위주의적 사상, 의식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우리사회는 '여성상위'사회가 아니고 고용기회와 승진, 보수 등이 불합리하며 결혼, 가정을 비롯한 사회, 문화적 생활 및 정치, 경제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터무니 없이 남녀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 주부나 직업여성, 젊은 여학생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일지라도 가사의 모든 일, 육아나 집안행사 준비, 식사, 세탁, 세균고지서나 옷가지 생기기 등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이 벅찬 가사일을 떠맡게 됩니다. 여성은 사회교육에 참여 등 자신의 발전을 위한 일에 직, 간접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나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혼을 원하는 노인 중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많은데 이유는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으면 시중들 사람(여자)이 필요한 탓이요, 할머니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해도 시중들 생각을 하면 내키지 않는 탓이라 합니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여성질곡은 오죽했겠습니까? 정교수의 글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주종관계(?)의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사상, 의식의 잔재가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드러내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남녀는 동등한 인간이요 인격체요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관계는 종속적이 아니라 상호존중, 상호의존, 상부상조해야 할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다수 여성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편견을 가진 남성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폭력성과 연관되어 사회 발전을 정체, 후퇴시키는 '일등공신'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서로 돕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될 현대사회에서 남성-여성, 아내-남편관계에서도 제반 사회구조적이고 물리적인 혹은 의식상의 폭력성을 배제하고 이해와 협조, 상호존중에 기초한 진정한 평등관계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만고불변의 가치관은 있을 수 없고 사회조직이 바뀌면 각자의 역할과 지위, 그에 따른 평가체제나 관념도 바뀌게 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지극히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여성들과 나아가 전체 남녀로 구성된 전체 국민에 대해 인격모독적이고 악의와 편견에 가득한 글을 발표한 정○○교수의 사고방식의 건전성을 심히 의심하면서 그의 생각과 논리의 부당성을 널리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의 글이 널리 알려져 진지한 토론과 비판의 계기가 주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출산 후기

첫사랑에 애를 낳은 풀이다.
부실한 애를 낳아 민망할 뿐이다.
출산에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독재적 폭압에 저항하지 않고
온갖 고통과 슬픔을 다 참아준
기옥, 성희, 은경, 현우에게(가나다순)
사과 해명하면서
반납할 재산은 없으므로
말 없이 은둔코자 한다.

덧붙임: 소중한 경험이었다.

-미즈 엠-

석 달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잉태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다.

처음 원고를 부탁하고 내용을 준비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흡한 점이 무척 많았다. 작가에게 글만 맡겨 놓고 땡까땡까 놀다가, 마감 날짜 임박해서 재촉하고 또 재촉해 원고를 받아 놓고 보니, 마음에 드는 글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글도 꽤 있었다. 논문이라기 보다는 마치 소설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 마감일의 촉박함과 함께 필자의 역량과 편집진의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원고를 넘기게 되었다.

-은경-

아이를 낳은 고통이 이보다 더 할까. 시험준비와 각자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이 달도록 애 쓴 멜다언니와 87들에게 미안한 만큼 감사하고……, 『잉태』 2호를 읽고 자그마한 감동이라도 받 는 여학우 또는 남학우가 있다면 더없는 보람이겠다.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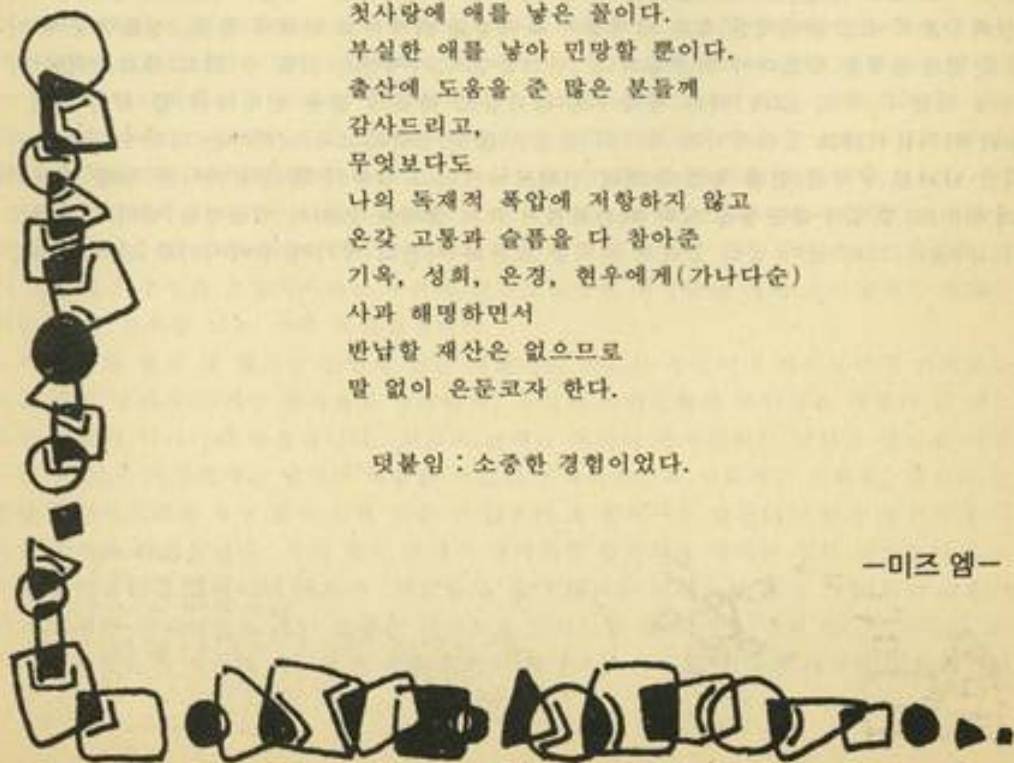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잉태'는 두번째 출산을 맞이하고 있고, 이번의 시행착오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음 세번째 '잉태'에 그나마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자위를 하며 차마 떼이지 않는 손을 놓는다.

-왕-

이제 89년이 다가온다.

어렵지만(어려운가?) 보람을 왕창 느낄 수 있는 『잉태』 편집부로 88, 89학번 아가들아! 어서 어서 들어오거라. (편집부에는 환풍기와 망가졌지만 난로도 있습니다.)

-현-



잉태 두번째

1988년 12월 일 인쇄
1988년 12월 일 발행
펴낸이 / 이 은 희
엮은이 / 잉태편집위원회
찍은곳 / 풀 무 기 획

■ 이 책을 만드시느라
즐거운 노동을 꿈꾸며
무거운 어깨를 감수하신
인쇄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엮은이들 : 정숙명(영문 85)
심은경(사회 86)
김성희(국민 86)
심현우(의생활 87)
김기옥(의생활 87)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찬바람은 지나친 수분증발을 일으켜 피부노화를 재촉합니다. 다이나믹스로 피부균형을 지켜주십시오.

스스로 추위에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스포츠를 유난히 좋아하십니까?
그럴수록 겨울피부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세심한 손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차고 건조한
겨울바람으로 기능이 저하된 피부는 급격히
거칠어져 잔주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항력도 크게 떨어져 면도부위에는 상처가
잘나며 하얀각질도 일어나 초췌해보이기
쉽습니다. 탄력을 잃기 쉬운 겨울피부!
자연추출물과 바이오성분의 다이나믹스로 충분한
영양공급 및 피부노화지연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있는 외모로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하십시오.

신제품

● **스킨케어시스템** : 자연추출물과
바이오성분이 과학적으로 처방된
다이나믹스 남성피부에 보습·유
연·보호작용으로 피부보호 및 확
실한 노화방지 지연효과를 발휘
합니다.

● **헤어케어시스템** : 청결하고 윤
기있는 모발 유지 및 모발보호, 두
피영양공급으로 모발건강에 최
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우수한
정발작용으로 깔끔한 헤어스타일
을 연출해 드립니다.

● **메이크업시스템** : 갈색
조의 색상으로 피부를 자
연스럽고 건강하게 표현
해 드립니다.
● **방향제** : 신선하고 세
련된 남성의 향취를 간접
하게 해 드립니다.



다이나믹스
다이나믹스
남성화장품

● 아프티케어브로온 (140ml 6,800원) ● 스킨토닝로션 (140ml 6,800원) ● 모이스춰로션 (140ml 6,800원)
● 헤어샴푸워시크림 (100g 6,800원) ● 헤어스프레이 (50g 6,800원) ● 라치 헤어링 (200g 4,000원)
● 헤어스칼프토닉 (140ml 6,800원) ● 헤어스타일링리퀴드 (140ml 6,800원) ● 헤어드레싱 크림 (140ml 6,800원)
● 후레쉬 샴푸로션 (250g 2,500원) ● 헤어스타일링 무스폼 (150g 6,000원) ● 스포티브론저 (30g 6,800원)
● 헤어스프레이 (30g 6,800원) ● 스킨크림 (100ml 13,000원) (권장가)

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 실천으로